



2023 여름

농업·농촌 경제 동향



일반경제 및 농촌경제 동향

• 성장률, 취업고용, 소비, 물가, 금융·환율, 수출입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 실태

특별주제

- 국내 푸드테크 활용 실태와 발전 과제
- 기능성 표시식품 시장 실태와 소비자 인식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 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담당자와 농업종사자의 의사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5월), 여름(8월), 가을(11월), 겨울(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관측&동향/농정동향/농업농촌경제동향”)

내용문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이형용 lhy2813@krei.re.kr, 배현정 bhj923@krei.re.kr

연락처 전화: 061-820-2371 팩스: 061-820-2409

목 차

I. 일반경제 동향

1. 경제성장	1
2. 고용	3
3. 소비	4
4. 물가	6
5. 금융·환율	12
6. 세계경제	15

II. 농촌경제 동향

1. 농림어업 경제성장	17
2. 농촌 물가	18
3. 농림어업 취업자	22
4. 농축산물 수출입	24

III.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	31
2. 엽근채소	36
3. 양념채소	43
4. 과일	52
5. 과채	59
6. 축산	68

IV.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 실태

1. 조사 개요	75
2. 음식점업 경기 동향	77
3. 2/4분기 주요 농축산물 소비실태	80
4. 3/4분기 주요 농축산물 예상 구매량	85
5. 채소류 구매 형태	87

특별주제

국내 푸드테크 활용 실태와 발전 과제	91
기능성 표시식품 시장 실태와 소비자 인식	111

요 약

□ 일반경제 동향

- 2023년 2/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전기 대비 0.6% 성장함.
- 2/4분기 취업자 수는 2,869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함. 농림어업 취업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한 163만 명으로 나타남.
- 1/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0.6% 증가함.
- 2023년 6월 소매판매는 소비자 심리지수 상승 및 관광객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백화점 및 할인점 매출 감소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2/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111.0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함. 품목성질별로 상품, 서비스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8%, 3.6% 상승한 113.2, 109.1로 나타났으며,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3% 상승한 111.9로 나타남.
- 2/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115.9로 전년 동기 대비 23.0% 상승하였으며,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123.2로 전년 동기 대비 21.1% 상승함.
- 2/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135.0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하락하였으며,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의 경우 126.8로 전년 동기 대비 12.2% 하락함.
- 2023년 2/4분기 원/달러, 원/위안, 원/유로 환율은 전기 대비 상승하였지만, 원/100엔 환율은 전기보다 하락함.
- 2023년 1/4분기는 미국, 중국, 일본의 경제는 각각 전기 대비 2.0%, 4.5%, 0.7% 성장하였지만, 유로존 경제는 0.1% 역성장함.

□ 농촌경제 동향

- 2023년 2/4분기 농림어업 GDP는 전년 동기 대비 3.1%, 전기 대비 5.5% 증가함.
- 2/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기 대비 1.7% 상승하였지만, 전년 동기 대비 3.7% 하락함.
 - 부류별로 곡물, 청과물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축산물, 특용작물, 화훼류는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함.
- 2/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6%, 전기 대비 0.3% 하락함.
 - 재료비 구입가격지수는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하락함.
 - 노무비 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2% 상승하였지만, 경비, 자산구입비 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2%, 3.2% 하락함.
- 2/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89.0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악화됨.
 -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는 농가구입가격지수가 0.6% 하락하였지만, 농가판매가격지수가 3.7% 하락하였기 때문임.
-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하였으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함.
-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약 22억 5,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하였으며, 수입액은 약 113억 9,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함.
 - 순수입액은 약 91억 3,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함.

□ 음식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 2023년 2/4분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음식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 음식점업체의 경기 동향은 2.98(5점 척도), 매출 동향은 2.97(5점 척도)로 조사됨.
 - 2/4분기 통계청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는 전 분기 대비 4.2% 감소한 83.26임.
 - 2/4분기 통계청 서비스업생산지수 중 음식점업은 경상지수로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하였으나, 불변지수는 3.9% 하락하였음.
- 2023년 2/4분기 음식점업체의 농축산물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
 - 채소류 구매량은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하였으나, 당근 등 일부 품목은 외국식 음식점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음.
 - 주요 과채류의 월평균 구매량은 기상 여건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하락함.
 - 축산류는 계란, 쇠고기, 돼지고기의 월평균 구매량은 증가하였으나,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감소함.
- 2023년 2/4분기 축산물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살펴보면,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국내산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고, 닭고기는 감소하였음.
 - 쇠고기의 경우, 국내 공급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국내산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닭고기는 국내 공급량 감소로 국내산 비중은 줄고 브라질산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특별주제

1. 국내 푸드테크 활용 실태와 발전 과제

- 푸드테크는 식품과 기술의 융합 분야로서, 인류 먹거리 식품 관련 식재료인 농림축산물의 생산공급, 식품 제조, 가공, 조리, 유통, 판매, 배달, 소비에 이르는 밸류체인(Farm to Fork) 전 분야에 IoT, AI, 3D프린팅, BT, 로봇틱스 등 ICT 혁신기술을 접목하여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분야임.
- 소비자 결과, 응답자의 29.4%가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으며, 구매 의향도 증가함. 식물성 대체식품 구매 의향도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39.3%)’ 등의 이유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농축산물 구매 시 온라인 유통채널 이용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식 음식점에서의 무인주문기(84.4%), 서빙로봇(61.1%) 등의 이용 경험이 많으며, 서비스용 로봇 사용 음식점에 대한 이용 의향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외식업체의 푸드테크 기술의 사용여부는 ‘배달앱/배달대행’이 가장 높았으며, ‘무인주문기’, ‘예약앱’ 순으로 나타남. 향후, 사용 의향에 대해서는 ‘무인주문기’가 가장 높았으며, ‘예약앱’, ‘배달앱/배달대행’, ‘조리로봇’, ‘서빙로봇’, ‘육류 대체식품’의 순으로 조사됨.
- 전문가 조사결과, 푸드테크 산업에서의 관련 기술 수준 및 활용 수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유통/물류, 소매/배송/소비, 외식조리/서비스 부문 등은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음. 푸드테크 산업에 가장 영향력이 큰 사회 이슈로는 ‘고령화, 건강(영양)에 관한 관심 증가(4.38점)’를 꼽았으며, ‘인구의 변화와 식량 생산, 동물사육의 한계(4.25점)’ 또한 매우 높은 영향을 주는 이슈로 평가되었음.
- 푸드테크 각 분야에서 규제 개선 및 완화, 규제 공백 해결, 명확한 지침 정리 등에 대한 관련 업계의 요구가 큰 상황이며, 국내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푸드테크 원천기술 및 소재 개발을 위한 스타트업 대상 연구개발(R&D) 투자의 확대, 금융 및 투자 인프라 조성, 선제적 규제 개선 및 완화,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필요함.
- 또한 푸드테크 관련 산업의 보다 집중적인 육성·지원을 위해서는 푸드테크 산업의 기술 융·복합적인 특성 반영, 지원관리체계 마련 등 다양한 쟁점별 정책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새로운 법 제정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기능성 표시식품 시장 실태와 소비자 인식

-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관한 관심 증대와 함께 식품 섭취와 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 또한 빠르게 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식품 라벨, 특히 직접 조리 과정을 확인하기 힘든 가공 포장 식품의 라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게 됨.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국 식품업체들은 다양한 기능성 표시를 활용해 왔음. 우리나라 또한 i) 식품산업에 활력을 도모하고, ii)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선택권을 보장하며, iii) 국산 농축산물 유래 소재 개발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 12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도입함.
-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는 일반식품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022년 10월 기준 총 442개의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이 출시되었거나 출시 예정이었음. 2022년 1월 한 달 동안 출시된 기능성 표시식품이 10개였던 것에 비해 불과 10개월 만에 44배 가까이 급성장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기존 연구는 제도 시행 전 도입 방안 검토와 주요국의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를 국내와 비교 조사한 것에 그침. 따라서 기능성 표시 식품 시장의 실태와 소비자들의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2021년 기능성 표시식품은 1,109억 원 판매되어 전체 식품 시장 규모의 0.1%를 차지하였음. 다음 해인 2022년 판매액은 전년 대비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소비자들의 기능성 표시식품 인지도는 높은 편(전체 응답자의 81%가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다’라고 응답)이었으며, 제도의 취지(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권 보장)에 대한 기대도 높았음. 소비자의 기능성 표시식품 (재)구매 의향 역시 76%로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시장의 지속성은 불확실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2021년 시장에 출시된 기능성 표시식품의 2022년 판매액은 미세하게 감소하였음. 또한 소비자들은 기능성 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기능성 미표시 일반식품 간 제품 정체성 및 건강성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i) 기능성 원료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제품의 다양성 증대, ii) 농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제도와 상충하는 소관 법령을 개정하여 제도 본래 취지에 부합, iii) 기능성 표시 방법 단순화, 건강하지 않은 제품의 표시 제한, 기능성 농식품 시장 체계화로 소비자의 신뢰성 향상 등이 필요함.

I. 일반경제 동향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경제성장²⁾

- 2023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6%, 원계열은 전년 동기 대비 0.9% 성장함.
 - 2023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함.

부문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구분	2021				2022 ^p				2023 ^p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G D P 성장률	1.8	0.9	0.1	1.4	0.7	0.8	0.2	-0.3	0.3	0.6(0.9)
민간소비	1.4	2.9	0.4	1.3	-0.6	2.9	1.6	-0.5	0.6	-0.1(1.5)
정부소비	1.6	3.8	1.5	1.1	0.1	1.0	0.1	2.5	0.4	-1.9(1.1)
건설투자	-0.1	-0.8	-2.0	1.4	-2.5	-0.6	-0.1	1.3	1.3	-0.3(2.2)
설비투자	7.8	0.7	-4.1	0.1	-4.2	1.6	7.0	2.4	-5.0	-0.2(3.9)
총 수 출	4.4	-0.7	0.3	3.7	3.8	-3.2	0.6	-3.8	4.5	-1.8(-0.6)
총 수 입	6.1	2.0	-0.6	4.2	-1.1	-0.8	5.4	-2.8	4.2	-4.2(2.3)

주 1. 2022^p, 2023^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3. 2015년 기준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자료: 한국은행(2023. 7. 25.), "2023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준호 연구원(kjh92@krei.re.kr), 이형용 전문위원(lhy2813@krei.re.kr)이 작성함.

2) 경제성장 부문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3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2023.07.25.)」,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 최근경제동향(2023.06.16., 2023.07.14.)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 부문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대부분의 부문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
 - 2023년 2/4분기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음식 숙박 등 서비스 소비가 줄어 0.1% 감소하였으며,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 등 사회보장현물수혜가 줄어 1.9% 감소함.
 - 2023년 2/4분기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0.3% 감소하였으며, 설비 투자는 기계류가 늘었으나 운송장비가 줄어 0.2% 감소함.
 -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이 늘었으나 석유제품, 운수서비스 등이 줄어 1.8%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원유, 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4.2% 감소함.
- 경제활동별 성장률은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함.
 - 2023년 2/4분기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5.5% 증가함.
 - 2023년 2/4분기 제조업은 컴퓨터·전자·광학기기 등이 늘어 2.8% 증가함.
 - 2023년 2/4분기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이 줄었으나 운수업 등이 늘어 0.2% 증가함.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2021				2022 ^p				2023 ^p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농림어업	5.8	-6.7	7.1	1.4	-1.6	-5.1	2.9	1.3	-6.3	5.5(2.9)
제조업	3.3	-0.1	-0.8	1.5	2.3	-0.2	-0.6	-3.9	1.3	2.8(-0.5)
서비스업	1.2	1.5	0.7	1.6	0.4	1.7	0.6	1.1	0.0	0.2(1.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0.0	1.7	-1.1	4.5	0.3	2.6	2.1	1.2	-0.9	-3.7(-1.4)
(운수업)	4.5	4.2	-1.7	2.9	0.0	8.3	-0.8	3.0	-3.9	11.8(9.9)
(금융 및 보험업)	0.8	1.1	-0.1	0.9	1.3	1.5	-1.4	1.3	0.9	1.0(1.7)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	1.0	2.4	3.3	1.0	1.7	1.3	0.3	1.5	2.9	0.1(5.0)
(문화 및 기타)	1.9	1.9	1.5	3.3	1.1	4.5	7.1	-1.9	2.6	-1.2(6.6)

주 1. 2022^p, 2023^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3. 2015년 기준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자료: 한국은행(2023. 7. 25.), "2023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2. 고용3)

- 2023년 2/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약 2,949만 명으로 전분기 대비 2.8%,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함.
- 2023년 2/4분기 취업자 수는 약 2,869만 명으로 전기 대비 3.3%,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함.
 - 산업별로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업종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6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 대비 54만 6천명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13만 3천명, 일용근로자는 11만 5천명 각각 감소하였음. 비임금 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각각 8만 1천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만 5천 명 증가하였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6만명 감소하였음.

고용동향

단위: 천 명, %

구분	2021	2022					2023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28,310 62.8	28,922 63.9	28,360 62.7	29,227 64.6	29,143 64.4	28,957 63.9	28,685 63.2	29,493 65.0	0.9 0.4
취업자	27,273	28,089	27,369	28,347	28,425	28,216	27,767	28,693	1.2
• 농림어업	1,458	1,526	1,310	1,630	1,661	1,502	1,289	1,625	-0.3
• 광공업 (제조업)	4,380 4,368	4,512 4,503	4,489 4,476	4,518 4,507	4,532 4,525	4,512 4,505	4,446 4,439	4,466 4,458	-1.2 -1.1
• 건설업	2,090	2,123	2,071	2,164	2,128	2,129	2,051	2,111	-2.4
• 도소매·음식숙박업	5,451	5,495	5,424	5,486	5,517	5,551	5,546	5,585	1.8
실업자	1,037	833	990	880	718	741	918	800	-9.1
실업률(계절조정)	3.7	2.9	3.0	2.9	2.8	2.9	2.7	2.6	-0.3

자료: 통계청(2023. 7. 12.), "2023년 6월 고용동향".

3) 고용 부문은 통계청 보도자료 「2023년 6월 고용동향(2023.07.12.)」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3. 06.16., 2023.07.14.)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3. 소비4)

- 2023년 1/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0.6% 증가함.
- 2023년 5월 소매판매는 내구재(0.5%), 준내구재(0.6%), 비내구재(0.2%) 모두 증가하여 전월 대비 0.4% 증가함.
- 2023년 6월 소매판매는 소비자 심리지수 상승 및 방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백화점 및 할인점 매출 감소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소비동향

단위: %

구분	2021	2022 ^p					2023 ^p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4월 ^p	5월 ^p
민 간 소 비	3.6	4.1	-0.6	2.9	1.6	-0.5	0.6		
소 매 판 매	5.8	-0.3	-1.2	-0.4	0.6	-1.4	1.1	-2.6	0.4
(내 구 재) ¹	6.3	-3.2	-0.7	-2.9	0.8	-0.1	1.6	-2.7	0.5
(준내구재) ²	12.7	2.2	-1.8	1.6	0.0	-4.1	5.0	-6.0	0.6
(비내구재) ³	3.2	0.3	-1.2	0.2	0.7	-1.1	-0.7	-1.3	0.2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4. 2022년, 2023년 소비동향은 잠정치임.

5. 표 안의 숫자는 전기 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2023. 6. 16., 2023. 7. 14.), 최근경제동향.

- 2023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약 631만 원으로 전기 대비 8.9%,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하였음.
 - 2023년 1/4분기 경상소득은 사업소득과 이전소득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8%, 1.0% 감소하였으나, 근로소득, 재산소득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2%, 24.0% 증가하여 6.1% 증가하였음.
 - 비경상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46.2% 증가하였음.

4) 소비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3.06.16., 2023.07.14)」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전가구(2인 이상) 가계소득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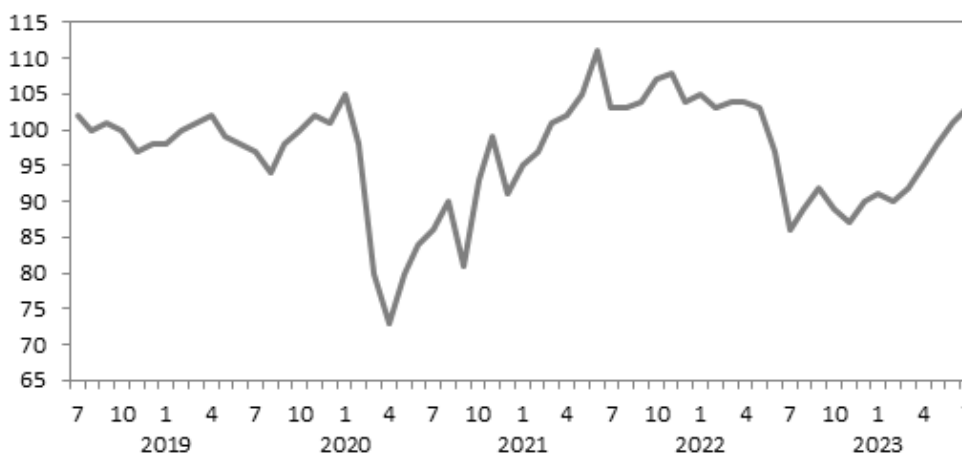
단위: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				2022				2023
	1/4	2/4	3/4	4/4	1/4	2/4	3/4	4/4	1/4
소득	-0.7	-1.4	7.6	7.0	11.1	13.4	3.1	4.9	6.7
경상소득	0.1	-1.5	7.7	6.9	11.5	13.3	2.7	5.1	6.1
(근로소득)	-3.5	4.9	5.7	5.7	12.6	6.3	5.9	8.7	10.2
(사업소득)	1.6	5.5	3.3	11.9	10.9	12.7	11.0	0.7	-3.8
(재산소득)	-12.7	58.1	-27.5	8.9	-6.7	-26.1	15.4	7.0	24.0
(이전소득)	17.5	-31.4	25.3	5.4	8.3	52.2	-20.6	-7.1	-1.0
비경상소득	-30.0	6.3	-1.1	10.9	-7.8	19.2	32.3	-5.3	46.2

자료: 통계청

- 2023년 6월 소비심리지수⁵⁾는 101로 전월 대비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3월) 92 → (4월) 95 → (5월) 98 → (6월) 101

소비심리지수 월별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 5)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서 전반적인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음.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에 비해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비관적인 것을 의미함.

4. 물가6)

- 2023년 2/4분기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는 111.0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함.
 - 품목성질별로 살펴보면, 상품과 서비스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8%, 3.6% 상승한 113.2, 109.1로 나타남.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

구분	2022					2023	
	연간	1/4	2/4	3/4	4/4	1/4	2/4
총 지 수	107.7 (5.1)	105.4 (3.8)	107.5 (5.4)	108.8 (5.9)	109.2 (5.3)	110.4 (4.7)	111.0 (3.2)
상 품	110.0 (6.7)	106.7 (4.7)	110.1 (7.6)	111.4 (7.9)	111.9 (6.5)	112.9 (5.8)	113.2 (2.8)
농축수산물	112.8 (3.8)	111.3 (2.7)	111.6 (3.6)	116.7 (6.8)	111.7 (1.9)	113.2 (1.7)	111.9 (0.3)
공업 제품	109.3 (6.9)	106.1 (5.4)	110.1 (8.5)	110.4 (7.5)	110.7 (6.1)	111.1 (4.7)	111.6 (1.3)
전기·수도·가스	110.2 (12.6)	101.1 (2.9)	106.7 (8.7)	109.0 (15.3)	124.0 (23.1)	129.8 (28.4)	132.7 (24.3)
서 비 스	105.7 (3.7)	104.2 (3.0)	105.3 (3.5)	106.5 (4.1)	106.9 (4.1)	108.2 (3.8)	109.1 (3.6)

주: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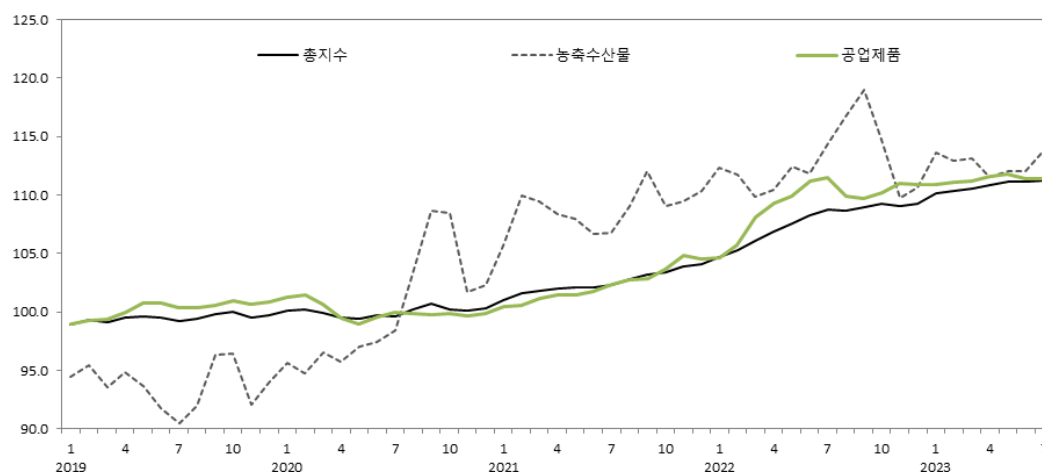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3. 7. 4.), 202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 2023년 6월 상품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하락하였으며, 서비스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상승함.
 - 농축수산물, 공업제품은 각각 전월 대비 0.1%, 0.4 하락하였으나, 전기·수도·가스는 전월 대비 2.2% 상승함.

6) 물가 부문은 통계청 「202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2023.07.04.)」, 한국은행 「2023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2023.07.22.)」, 「2023년 6월 수출입물가지수(2023.07.13.)」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집세는 전월 대비 0.1% 하락하였으나,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는 각각 전월 대비 0.1%씩 상승함.
- 2023년 6월 기준 지출목적별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주택·수도·전기·연료, 식료품·비주류음료, 보건, 음식·숙박, 기타 상품·서비스, 주류·담배는 상승하였으며, 의류·신발, 오락·문화,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교통은 하락하였음. 교육, 통신은 변동 없음.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20년=100)



자료: 통계청

- 2023년 2/4분기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11.9로 전년 동기 대비 0.3% 상승하였지만, 전기 대비 1.2% 하락함.
 - 농산물 품목별로 살펴보면, 곡물, 과실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2%, 0.6%, 하락한 95.6, 118.7로 나타났으며, 채소, 기타농산물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9%, 6.5% 상승한 105.3, 114.4로 나타남.
 - 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17.0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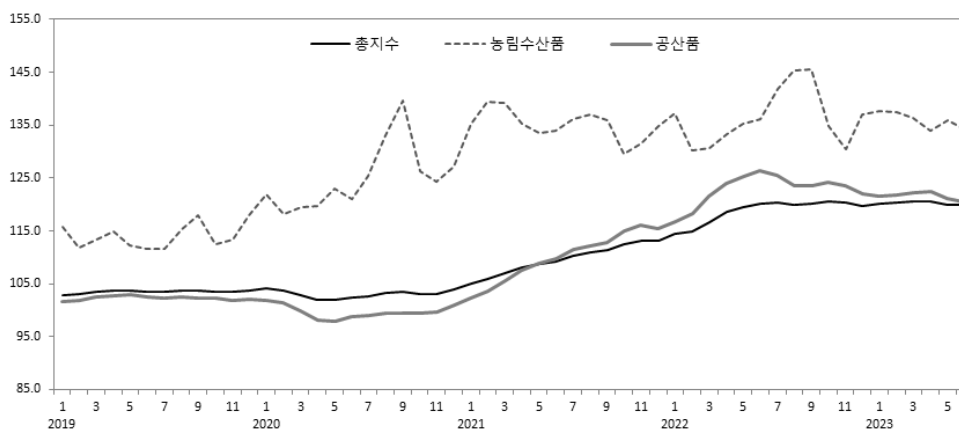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구분	2022					2023		등락률(%)	
	연간	1/4	2/4	3/4	4/4	1/4	2/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축수산물	112.8	111.3	111.6	116.7	111.7	113.2	111.9	0.3	-1.2
농산물	110.9	111.3	107.1	117.2	107.9	113.4	108.9	1.7	-3.9
곡물	98.9	103.6	99.8	95.6	96.5	95.8	95.6	-4.2	-0.2
채소	110.3	107.2	99.4	126.4	108.1	116.7	105.3	5.9	-9.8
과실	118.2	120.1	119.4	120.8	112.3	117.6	118.7	-0.6	1.0
기타농산물	109.9	110.2	107.4	107.9	114.0	119.0	114.4	6.5	-3.9
축산물	119.5	115.2	121.9	121.7	119.0	114.1	117.0	-4.0	2.6
수산물	104.9	102.7	104.4	103.9	108.7	110.8	110.8	6.1	0.0

자료: 통계청

- 2023년 2/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20.1로 전년 동기 대비 0.6% 상승하였음.
 - 2023년 6월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이 모두 내려 전월 대비 1.3% 하락함.
 - 2023년 6월 공산품 생산자물가지수는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제1차 금속제품 등이 내려 전월 대비 0.6% 하락함.
 - 2023년 6월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력, 도시가스 등이 올라 전월 대비 1.8% 상승함.
 - 2023년 6월 서비스 생산자물가지수는 금융 및 보험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1% 상승함.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5년=100)



자료: 통계청

- 2023년 2/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115.9로 전기 대비 0.1%, 전년 동기 대비 23.0% 상승함.
- 2023년 6월 수출물가지수는 113.1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화학제품, 제1차 금속제품 등이 내려 전월 대비 2.8%, 전년 동월 대비 14.7% 하락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15.7% 하락함.
- 2023년 2/4분기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23.2로 전기 대비 2.9% 하락하였지만, 전년 동기 대비 21.1% 상승함. 6월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20.7로 전월 대비 3.5%, 전년 동월 대비 14.1% 하락함.
- 2023년 2/4분기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15.9로 전기 대비 0.1%, 전년 동기 대비 23.0% 상승하였으며, 6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13.1로 전월 대비 2.8%, 전년 동월 대비 14.7% 하락함.

부문별 수출물가지수(2015년=100)

구분	2022					2023			
	연간	1/4	2/4	3/4	4/4	1/4	2/4	5월	6월
총 지 수	126.3 (16.6)	119.9 (1.5)	130.5 (12.3)	129.4 (18.9)	125.4 (25.0)	115.8 (22.0)	115.9 (23.0)	116.4 (-11.3)	113.1 (-14.7)
농림수산물	136.2 (14.5)	130.5 (-6.8)	136.7 (-1.9)	141.7 (11.2)	135.9 (15.3)	126.9 (20.0)	123.2 (21.1)	125.0 (-8.0)	120.7 (-14.1)
농 산 물	99.8 (-1.0)	93.0 (-8.6)	112.0 (-13.8)	108.6 (-5.7)	85.8 (-19.0)	81.5 (-11.9)	76.9 (9.9)	77.9 (-26.0)	77.9 (-39.4)
공 산 품	126.3 (16.6)	119.9 (1.6)	130.4 (12.3)	129.4 (18.9)	125.3 (25.0)	115.8 (22.0)	115.9 (23.0)	116.4 (-11.3)	113.1 (-14.7)

주: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2023년 2/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135.0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전기 대비 1.7% 하락함.
- 2023년 6월 수입물가지수는 130.5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광산물,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내려 전월 대비 3.4%, 전년 동기대비 15.7% 하락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1.1%, 전년 동월 대비 16.7% 하락함.
 - 2023년 6월 기준 원재료는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2.8% 하락하였으며, 중간재는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내리며 전월 대비 4.5% 하락하였음. 자본재 및 소비재의 경우 각각 전월 대비 2.6%, 2.1% 하락함.
- 2023년 2/4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126.8로 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12.2% 하락하였음. 6월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123.7로 전월 대비 3.1%, 전년 동월 대비 14.7% 하락함.
- 2023년 2/4분기 공산물 수입물가지수는 123.0으로 전기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5.7% 하락하였으며, 6월 공산물 수입물가지수는 119.4로 전월 대비 3.7%, 전년 동월 대비 8.2% 하락함.

부문별 수입물가지수(2015년=100)

구분	2022					2023			
	연간	1/4	2/4	3/4	4/4	1/4	2/4	5월	6월
총 지 수	147.9 (25.9)	140.2 (32.4)	152.4 (35.2)	151.6 (24.2)	147.4 (14.1)	137.3 (-2.1)	135.0 (-11.4)	135.1 (-12.3)	130.5 (-15.7)
농림수산물	139.9 (19.9)	132.5 (24.8)	144.5 (26.7)	144.4 (19.4)	138.1 (10.1)	127.6 (-3.7)	126.8 (-12.2)	127.7 (-13.1)	123.7 (-14.7)
농 산 물	157.6 (27.5)	149.4 (35.4)	163.1 (38.0)	160.7 (25.1)	157.2 (14.3)	144.8 (-3.1)	140.1 (-14.1)	141.2 (-15.5)	135.9 (-16.5)
공 산 품	128.8 (15.5)	124.7 (19.7)	130.5 (20.2)	130.6 (14.0)	129.3 (8.7)	123.4 (-1.1)	123.0 (-5.7)	124.0 (-5.9)	119.4 (-8.2)

주: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5. 금융·환율⁷⁾

- 2023년 5월 원계열 기준 협의통화(M1, 평잔)는 전년 동월 대비 13.8% 감소(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7% 감소)함.
- 2023년 5월 원계열 기준 광의통화(M2, 평잔)는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3% 감소)함.
 - 금융상품별로는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등이 증가한 반면, MMF,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이 감소함.
- 2023년 5월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원계열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1% 감소)함.

통화지표 증감률(평균잔액기준)

단위: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22									2023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M1 ¹	9.5	8.7	7.8	5.3	2.5	-0.4	-3.5	-6.8	-9.0	-11.3	-12.4	-13.0	-13.3	-13.8
M2 ²	9.5	9.4	9.0	8.3	7.5	7.0	6.4	5.9	5.0	4.4	4.1	3.8	3.2	2.3
L ³	8.1	8.2	7.8	7.2	6.7	6.2	6.0	5.3	4.8	4.1	3.7	3.6	3.6	2.9
본원통화 ⁴	14.0	12.4	9.8	13.7	9.8	9.0	7.8	4.4	3.6	0.9	0.9	-0.7	-2.2	-0.5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 미만 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f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7) 금융·환율 부문은 한국은행 「2023년 5월 통화 및 유동성(2023.07.14.)」과 「2023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2023.07.12.)」, 「2023년 6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2023.07.12.)」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2023년 6월 국고채(3년) 금리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기조 강화 움직임에 따라 전월대비 0.2%p 증가한 3.5% 임.
 - 코스피는 미 부채한도 협상 타결, 전기전자 업종 투자유인 부각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여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가 주요국 통화긴축 경계감,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반락함.

금리동향

단위: 연 %

구분	2022					2023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국고채(3년)	3.2	3.9	4.2	3.9	3.6	3.5	3.5	3.5	3.3	3.3	3.5
회사채 ¹	4.2	4.9	5.4	5.5	5.3	4.7	4.3	4.2	4.1	4.1	4.4
CD유통수익률 (91일)	2.8	3.0	3.7	4.0	4.0	3.8	3.5	3.6	3.5	3.6	3.8
콜금리 ²	2.3	2.5	3.0	3.1	3.2	3.3	3.4	3.4	3.5	3.6	3.6

주 1. 회사채: 장외3년

2.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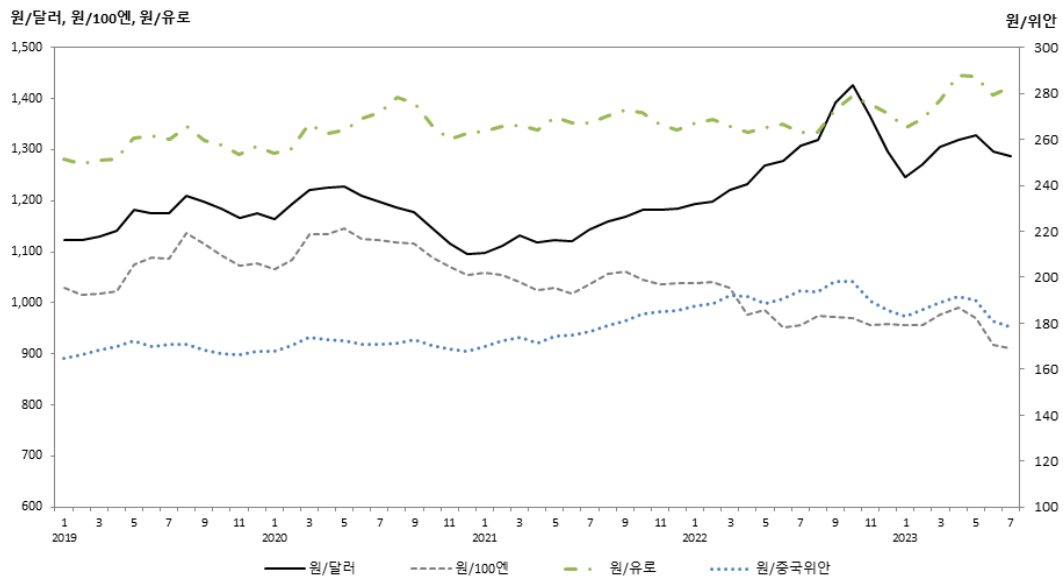
- 2023년 2/4분기 원/달러 환율은 전기 대비 3.1% 상승한 1,315원임.
 - 2023년 6월 원/달러 환율은 수출기업의 미 달러화 매도 등 외환 수급 개선에 따라 하락하였다가 6월 FOMC 이후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 강화,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폭이 축소됨.
- 2023년 2/4분기 원/위안 환율과 원/유로 환율은 각각 187원, 1,432원으로 전기 대비 0.7%, 4.6% 상승하였으며, 원/100엔 환율은 959원으로 전기 대비 0.5% 하락함.
 - 2023년 6월 일본 엔화 및 위안화는 엔화 및 위안화 약세 영향으로 상당폭 하락함.
- 2023년 6월 중 원/달러 환율의 전일 대비 변동률은 전월에 비해 상승함.

원화 환율 동향

구분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5월	6월
원/달러	1,144	1,292	1,205	1,260	1,338	1,359	1,276	1,315	1,328	1,297
원/100엔	1,041	983	1,036	972	968	961	964	959	969	918
원/유로	1,353	1,357	1,352	1,342	1,348	1,387	1,369	1,432	1,444	1,406
원/1위안	177	192	190	190	195	191	186	187	190	181

주: 평균 환율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화 환율 추세



자료: 한국은행.

6. 세계경제⁸⁾

- 2023년 1/4분기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2.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견조한 고용을 토대로 내수가 뒷받침되고 있으나, 통화 긴축 장기화에 따른 경기회복세 약화 가능성이 존재함.
- 2023년 1/4분기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4.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경제는 리오프닝 이후 내수와 서비스 중심의 회복 흐름이 유지되고 있으나 수출·투자·산업생산 부진 등 회복세가 제약됨.
- 2023년 1/4분기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 경제는 소비·서비스업 회복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고용 및 기업투자가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며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짐.
- 2023년 1/4분기 유로존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1%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유로존 경제는 근원물가가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세 둔화가 상대적으로 더딘 가운데,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부진한 실물경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8) 세계경제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3.06.16., 2023.07.14)」을 참고하여 재 정리함.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을 추이

단위: %

국가	지표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4월	5월	6월
미국	실질GDP(전기비 연율)	5.9	2.1	-1.6	-0.6	3.2	2.6	2.0			
	산업생산(전기비)	4.9	3.4	0.9	1.0	0.5	-0.6	-0.1	0.5	-0.2	
	소매판매(전기비)	19.6	9.1	3.0	2.7	0.8	0.2	1.1	0.4	0.3	
	실업률(계절조정)	5.4	3.6	3.8	3.6	3.6	3.6	3.5	3.4	3.7	3.6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4.7	8.0	8.0	8.6	8.3	7.1	5.8	4.9	4.0	3.0
중국	실질GDP(전년동기비)	8.4	3.0	4.8	0.4	3.9	2.9	4.5			
	산업생산(전년동기비)	9.6	3.6	6.5	0.6	4.8	2.8	3.0	5.6	3.5	
	소매판매(전년동기비)	12.5	-0.2	3.3	-4.9	3.5	-2.7	5.8	18.4	12.7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9	2.0	1.1	2.2	2.7	1.8	1.3	0.1	0.2	0.0
일본	실질GDP(전기비)	2.2	1.0	-0.7	1.4	-0.4	0.1	0.7			
	산업생산(전기비)	5.6	-0.1	0.8	-2.7	5.9	-3.0	-1.8	0.7	-1.6	
	소매판매(전기비)	1.9	2.6	-0.4	1.3	1.3	1.2	2.5	-1.1	1.3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2	2.5	0.9	2.4	2.9	3.9	3.6	3.5	3.2	
유로존	실질GDP(전기비)	5.3	3.5	0.7	0.8	0.4	-0.1	-0.1			
	산업생산(전기비)	8.9	2.3	0.8	0.8	0.1	-0.5	-0.1	1.0	0.2	
	소매판매(전기비)	5.0	0.7	-0.3	-0.5	-0.8	-1.0	-0.3	0.0	0.0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6	8.4	6.1	8.0	9.3	10.0	8.0	7.0	6.1	5.5

자료: 기획재정부(2023.06.16., 2023.07.14.), 최근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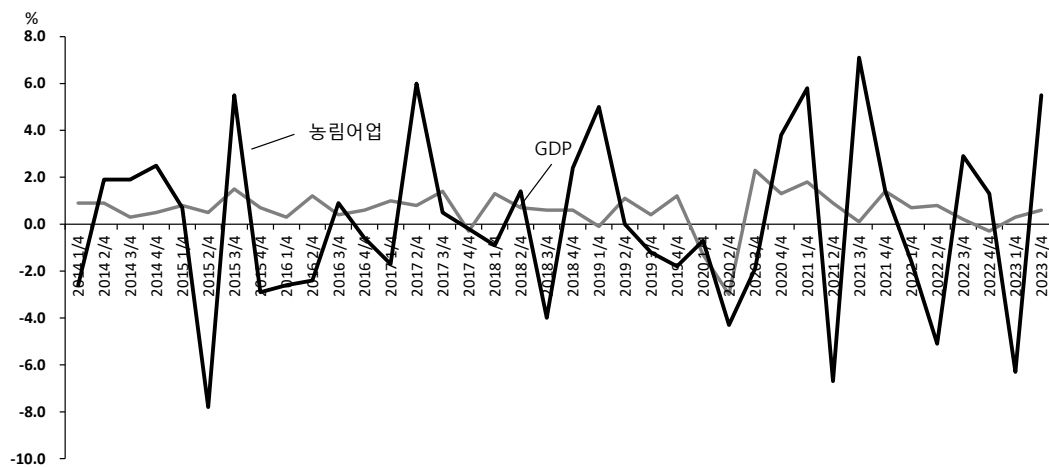
II. 농촌경제 동향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농림어업 경제성장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은 2023년 2/4분기 8조 1,7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전기 대비 5.5% 증가함.
 - 2023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97조 1,14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전기 대비 0.6% 증가함.

농림어업 경제성장률 추이(2015년 연쇄가격 기준)



주: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2021년, 2022년, 2023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재휘 연구원(raccoon_kjh@krei.re.kr), 이형용 전문위원(lhy2813@krei.re.kr)이 작성함.

2. 농촌 물가

2.1. 농가판매가격지수

- 2023년 2/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6.4로 전기 대비 1.7% 상승하였지만, 전년 동기 대비 3.7% 하락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 청과물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축산물, 특용작물, 화훼류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함.

농가판매가격지수(2020=100)

구 분	가중치	2021	2022	2022		2023		등락률(%)	
		연간	연간	1/4	2/4	1/4	2/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10.6	107.7	107.9	110.5	104.6	106.4	-3.7	1.7
곡물	200.1	107.9	93.5	104.8	95.5	85.8	99.9	4.6	16.4
-미곡	146.0	108.1	90.3	106.4	87.2	81.8	87.0	-0.2	6.4
-맥류	8.7	89.6	90.1	90.7	88.7	88.2	90.7	2.3	2.8
-두류/잡곡	27.5	114.5	102.0	110.6	96.6	94.7	112.9	16.9	19.2
-서류	17.9	106.2	110.8	92.1	161.4	105.5	190.2	17.8	80.3
청과물	314.0	105.3	108.4	102.9	112.0	112.4	112.2	0.2	-0.2
-채소	196.1	106.8	113.4	110.5	112.2	130.8	107.4	-4.3	-17.9
-과수	117.9	102.8	99.6	89.6	111.8	80.3	120.7	8.0	50.3
축산물	378.3	115.0	109.5	106.6	113.5	98.1	102.7	-9.5	4.7
-가축	240.7	110.6	103.7	101.6	108.4	87.3	91.9	-15.2	5.3
-기타	137.6	123.3	120.4	115.9	123.1	118.3	123.1	0.0	4.1
기타농산물	107.6	116.3	125.1	135.0	122.5	139.5	114.0	-6.9	-18.3
-특용작물	64.7	115.4	117.3	124.9	119.1	123.4	107.9	-9.4	-12.6
-화훼	39.3	120.0	143.9	160.2	131.5	177.2	126.9	-3.5	-28.4
-부산물	3.6	98.0	110.5	106.8	106.8	121.5	121.5	13.8	0.0

자료: 통계청

- 곡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9.9로 전년 동기 대비 4.6%, 전기 대비 16.4% 상승함.
 - 잡쌀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6% 상승하였지만, 멥쌀은 0.4% 하락하여 미곡 농가판매가격지수는 0.2% 하락함.
 - 맥류의 경우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하였으며, 특히 보리쌀(정곡) 농가판매가격지수가 20.5% 상승함.
 - 콩과 검정콩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9%, 32.7% 하락하였지만, 옥수수, 팥 농가판매가격지수는 각각 49.1%, 37.8% 상승하여 두류/잡곡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9% 상승함.
 - 고구마와 감자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3%, 15.9% 상승하여 서류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7.8% 상승함.
- 채소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엽채류와 조미채소류 농가판매가격지수의 하락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4.3%, 전기 대비 17.9% 하락한 107.4임.
 - 엽채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시금치, 브로콜리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1%, 22.8% 상승하였지만, 배추, 양배추, 상추, 미나리, 부추, 깻잎은 각각 15.0%, 5.7%, 7.6%, 5.7%, 2.4%, 5.3% 하락하여 전년 동기 대비 6.8% 하락함.
 - 근채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무, 당근의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9%, 21.5% 상승하여 전년 동기 대비 31.9% 상승함.
 - 건고추, 양파, 파, 생강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5%, 54.8%, 17.9%, 213.8% 상승하였지만, 마늘이 40.5% 하락하여 조미채소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5% 하락함.
 - 토마토(방울)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8.1% 하락하였지만 그 외 품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과채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6% 상승함.

- 과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0.7로 전년 동기 대비 8.0%, 전기 대비 50.3% 상승함.
 - 사과, 자두, 매실, 블루베리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8.7%, 22.2%, 8.7%, 4.7% 상승함.
 - 반면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6%, 4.2%, 3.8%, 23.5%, 27.6% 하락함.
- 축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2.7로 전기 대비 4.7% 상승하였지만, 전년 동기 대비 9.5% 하락함.
 - 육계와 오리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0%, 29.7% 상승하였지만, 한우(암, 수), 육우, 한우송아지(암, 수), 육우송아지, 성돈, 자돈, 젓소 농가판매가격지수는 각각 20.3%, 28.0%, 16.5%, 25.6%, 21.1%, 54.9%, 4.6%, 12.5%, 6.9% 하락하여 가축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2% 하락함.
 - 계란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5.4% 하락하였으나 우유 농가판매가격지수가 5.3% 상승하여 기타축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임.

2.2. 농가구입가격지수

- 2023년 2/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19.5로 전년 동기 대비 0.6%, 전기 대비 0.3% 하락함.
- 재료비 구입가격지수는 종자종묘와 비료비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전기 대비 2.8% 하락한 140.8임.
 -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 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9%, 6.2%, 4.2% 상승하였으나, 종자종묘, 비료비 구입가격지수는 각각 4.4%, 24.7% 하락함.

- 노무비 구입가격지수는 132.4로 전년 동기 대비 8.2% 상승하였지만, 경비, 자산구입비 구입가격지수는 영농광열비와 가축구입비 영향으로 각각 124.4, 97.6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2%, 3.2% 하락함.
- 농업용품과 농촌임료금을 통해 산출된 2023년 2/4분기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136.6로 전년 동기 대비 3.9% 하락함.

농가구입가격지수(2020=100)

구 분	가중치	2021	2022	2022		2023		등락률(%)	
		연간	연간	1/4	2/4	1/4	2/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05.0	120.1	115.1	120.2	119.9	119.5	-0.6	-0.3
가계용품	484.8	102.5	107.4	105.2	107.2	109.9	110.5	3.1	0.5
재료비	250.6	108.4	145.8	137.6	143.7	144.8	140.8	-2.0	-2.8
-종자종묘	27.5	101.6	109.1	105.8	110.3	105.4	105.4	-4.4	0.0
-비료비	39.0	107.5	249.6	251.1	251.1	211.4	189.2	-24.7	-10.5
-농약비	29.3	101.6	109.5	109.5	109.5	122.5	122.5	11.9	0.0
-사료비	136.0	111.2	135.3	121.2	131.0	140.7	139.1	6.2	-1.1
-영농자재비	18.7	110.1	141.8	139.9	140.0	145.8	145.9	4.2	0.1
노무비	45.0	108.9	122.9	113.8	122.4	129.4	132.4	8.2	2.3
경비	129.0	107.3	133.1	121.7	137.0	124.6	124.4	-9.2	-0.2
-영농광열비	32.6	127.1	201.7	171.0	220.1	169.3	167.8	-23.8	-0.9
-임차료	40.5	101.8	103.8	102.0	103.5	105.1	105.9	2.3	0.8
-농작업위탁비	42.5	95.3	95.2	95.2	95.2	95.2	95.2	0.0	0.0
-판매자재비	13.3	98.4	121.9	108.3	108.3	129.9	129.9	19.9	0.0
자산구입비	90.6	103.4	99.1	98.6	100.8	95.7	97.6	-3.2	2.0
-기계구입	58.9	99.5	99.6	99.8	98.9	100.3	100.3	1.4	0.0
-가축구입비	31.7	113.2	98.0	95.7	105.6	84.5	90.9	-13.9	7.6

자료: 통계청

2.3. 농가교역조건지수

- 2023년 2/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89.0으로 전기 대비 2.1% 회복되었으나, 전년 동기 대비 3.1%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농가구입가격지수는 0.6% 하락하였지만, 농가판매가격지수가 3.7% 하락하여, 농가교역조건이 전년 동기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농업경영조건지수

구 분	2022		2023		등락률(%)	
	1/4	2/4	1/4	2/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가판매가격(A)	107.9	110.5	104.6	106.4	-3.7	1.7
농가구입가격(B)	115.1	120.2	119.9	119.5	-0.6	-0.3
농업투입재가격(C)	133.3	142.1	139.1	136.6	-3.9	-1.9
농가교역조건(A/B×100)	93.7	91.9	87.2	89.0	-3.1	2.1
농가경영조건(A/C×100)	80.9	77.8	75.2	77.9	0.2	3.6

3. 농림어업 취업자

- 2023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62만 5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하였으나, 전기 대비 26.1% 증가함.
 -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151만 2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전기 대비 1.4% 감소함.
 - 농림어업 취업자들 중 전체 남성 수는 96만 9천 명, 여성 수는 65만 5천 명임.
 - 농가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195만 6천 명임.

농림어업 취업자 수 동향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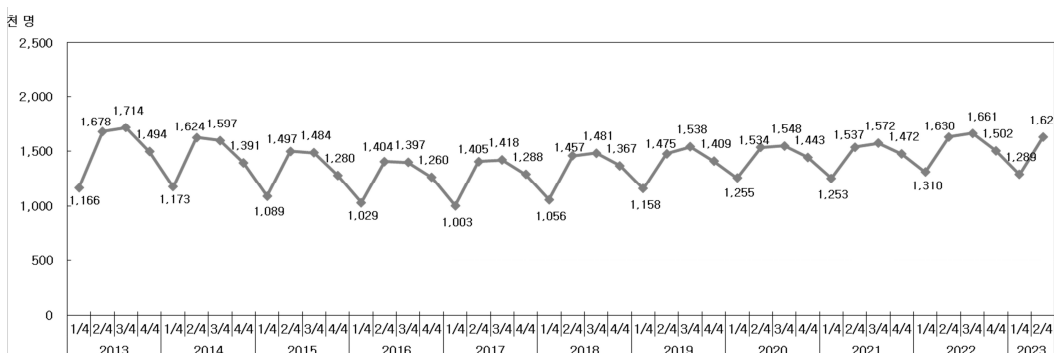
구 분		2022	2023		증감률(%)	
		2/4	1/4	2/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취 업 자	전산업 (계절조정)	28,347 (28,123)	27,767 (28,313)	28,693 (28,465)	1.2 1.2	3.3 0.5
	농림어업 (계절조정)	1,630 (1,514)	1,289 (1,534)	1,625 (1,512)	-0.3 -0.1	26.1 -1.4
	남성	973	830	969	-0.4	16.7
	여성	658	459	655	-0.5	42.7
	농가	1,840	1,613	1,956	6.3	21.3
	농가남성	1,027	945	1,098	6.9	16.2
	농가여성	813	669	858	5.5	28.3

주: ()안은 계절조정 값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값임.

2020년 계열을 추가하여 계절조정인자를 재작성함에 따라 1999년 6월 이후 계절조정 자료가 변경됨
자료: 통계청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증가하다가 4/4분기에서 감소하는 계절성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이후에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23년 2/4분기는 전기 대비 증가하여 계절성을 보이나 1/4분기와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4. 농축산물 수출입

4.1. 수출 동향

- 2023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량은 107만 6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함.
 - 과실류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하였지만, 곡류, 채소류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4%, 14.1% 감소하여 전체 농산물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함.
 - 포유육류, 낙농품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 3.9% 증가하였으나, 가금육류는 29.1% 감소하여 축산물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함.
 - 임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하였지만, 전기 대비 9.2% 감소함.
- 2023년 2/4분기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22억 5,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함.
 - 과실류, 채소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3%, 2.6% 감소하였지만, 곡류 수출액은 10.2% 증가하여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함.
 - 축산물 수출액의 경우 가금육류, 낙농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0%, 27.1% 감소하였지만, 포유육류 수출액은 11.2%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함.
 - 임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8%, 전기 대비 8.2% 감소함.
- 2023년 6월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7억 7,728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9%, 전월 대비 5.4%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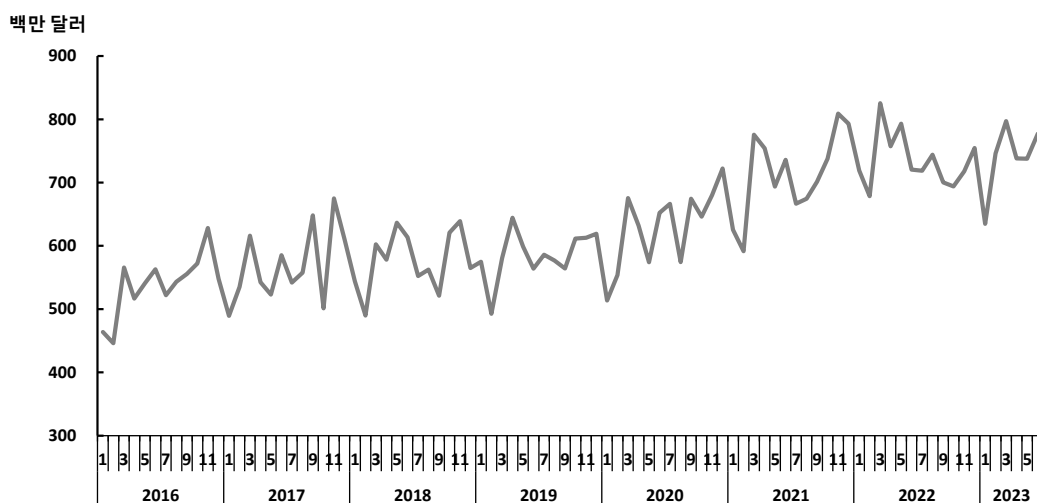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22				2023				전년 동기 대비	
	1/4		2/4		1/4		2/4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015	2,223	1,063	2,271	981	2,178	1,076	2,253	1.2	-0.8
농산물	801	1,958	850	1,983	731	1,923	845	1,998	-0.6	0.8
-곡류	11	9	67	22	8	11	58	25	-14.4	10.2
-과실류	31	90	27	67	33	89	30	67	11.5	-0.3
-채소류	30	127	37	114	31	132	32	111	-14.1	-2.6
축산물	49	149	52	153	46	146	46	156	-12.3	2.0
-포유육류	2	7	2	8	2	9	2	9	3.9	11.2
-가금육류	15	21	15	24	16	25	11	18	-29.1	-23.0
-낙농품	10	48	8	42	10	47	9	30	3.9	-27.1
임산물	165	116	161	136	204	108	185	99	15.0	-26.8
수 산 물	225	781	273	914	200	741	176	780	-35.6	-14.6
전 체	1,240	3,004	1,336	3,185	1,181	2,919	1,252	3,034	-6.3	-4.8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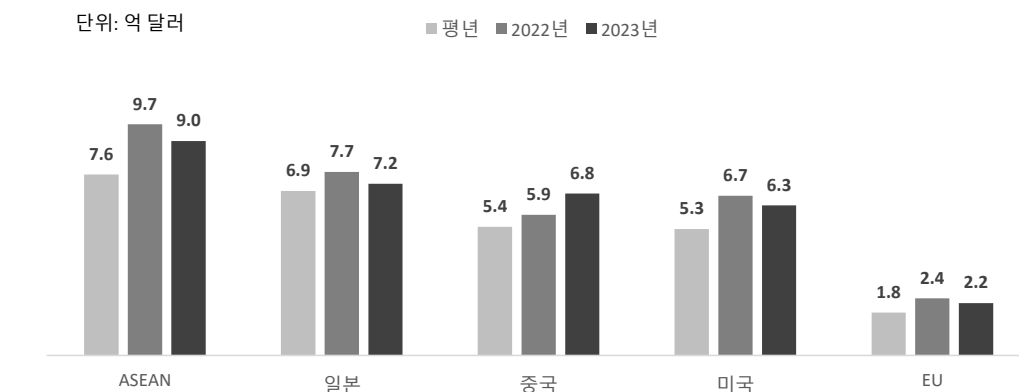
농림축산물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23년 1~6월 농축산물 수출액은 44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하였고,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액은 3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함.
 - 주요 수출대상국 상위 5개국은 ASEAN, 일본, 중국, 미국, EU이며, 5개국의 1~6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31억 5천만 달러임.
-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2/4분기 농수산물의 수출산업경기 전망지수(EBSI)는 86.7로 전분기 대비 수출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제조원가(74.3), 수출단가(81.2)의 악화가 예상됨.²⁾
 - 주요 수출 애로사항으로는 원재료 가격 상승(23.2%), 수출대상국 경기부진(16.0%)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주요 수출 대상국별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2023년 2분기」.

2) 한국무역협회, '2023년 2/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2023.03.21).

4.2. 수입 동향

- 2023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량은 1,346만 8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축산물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였으나, 농산물, 임산물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 12.8% 감소함.
- 2023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113억 9,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함.
 - 농산물과 축산물, 임산물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6%, 6.8%, 21.2% 감소함.
 - 곡류 수입액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특히 많은 수입 비중을 차지하는 옥수수의 수입액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함.
 - 포유 가축육류, 낙농품 수입액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5%, 4.7%, 감소하였으나, 가금육류 수입액은 18.6%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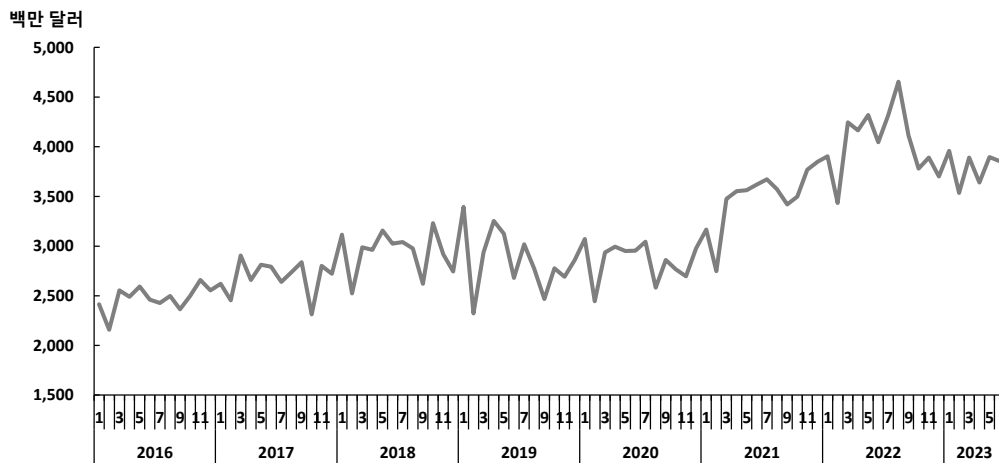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22				2023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4		2/4		1/4		2/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3,727	11,586	14,284	12,530	13,299	11,386	13,468	11,392	-5.7	-9.1
농 산 물	9,134	6,968	9,379	7,685	8,836	6,917	9,122	7,178	-2.7	-6.6
-곡류	4,220	1,531	4,168	1,607	4,058	1,492	4,094	1,521	-1.8	-5.3
-과실류	270	543	325	667	278	527	328	652	1.1	-2.3
-채소류	278	287	290	300	338	313	316	300	8.9	0.2
축 산 물	499	2,722	501	2,753	521	2,725	506	2,566	1.1	-6.8
-포유육류	294	1,846	276	1,748	302	1,732	289	1,582	4.6	-9.5
-가금육류	47	125	55	148	72	188	69	175	24.6	18.6
-낙농품	93	362	105	433	92	448	97	413	-8.0	-4.7
임 산 물	4,093	1,896	4,404	2,092	3,942	1,744	3,840	1,648	-12.8	-21.2
수 산 물	1,598	1,713	1,425	1,791	1,540	1,717	1,518	1,669	6.6	-6.9
전 체	15,326	13,299	15,708	14,322	14,839	13,103	14,986	13,060	-4.6	-8.8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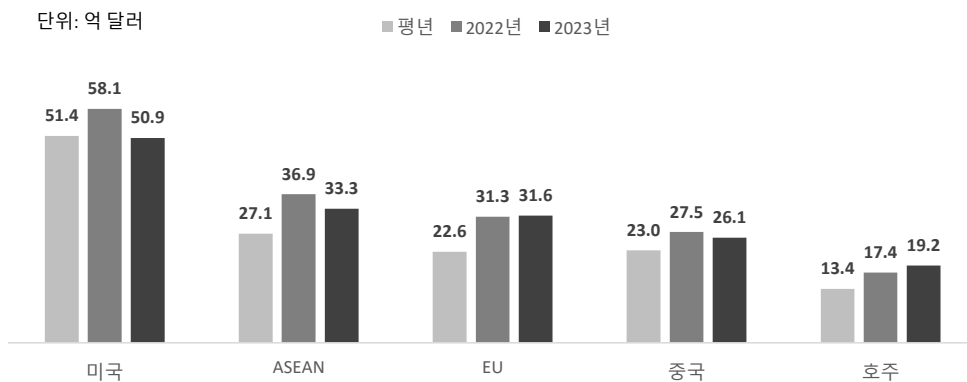
- 2023년 6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38억 5,56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7%, 전월 대비 1.0% 감소함.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요 수입 대상국별 수입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동향 2023년 2분기」.

- 2023년 1~6월 농축산물 수입액은 22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하였으며,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90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함.
- 주요 수입대상국 상위 5개국은 미국, ASEAN, EU, 중국, 호주이며, 5개국의 1~6월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한 161억 1천만 달러임.

4.3. 순수입 동향

- 2023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량은 1,239만 2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함.
- 농산물 순수입량은 827만 7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함.
- 축산물 순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46만 1천 톤임.
- 2023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한 91억 3,900만 달러임.
-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2%, 7.3%, 2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농림축산물 순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22년 2/4분기		2023년 2/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3,221	10,259	12,392	9,139	-6.3	-10.9
농 산 물	8,529	5,702	8,277	5,179	-3.0	-9.2
축 산 물	449	2,600	461	2,410	2.7	-7.3
임 산 물	4,243	1,957	3,655	1,549	-13.9	-20.8
수 산 물	1,151	877	1,342	888	16.6	1.2
전 체	14,372	11,136	13,734	10,027	-4.4	-10.0

주: 순수입=수입-수출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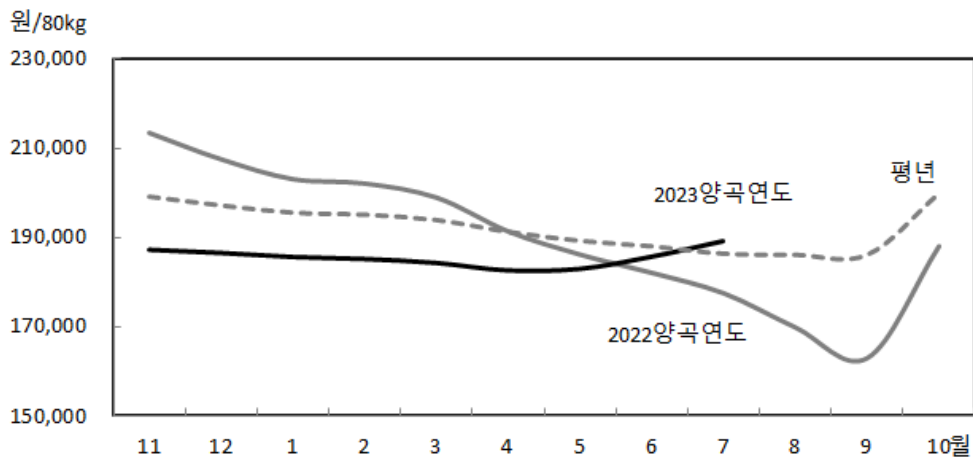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곡물¹⁾

1.1. 쌀

산지 쌀 가격 추이



주: 쌀 가격은 단순평균 방식이며, 평년가격은 최근 5개년(2018~2022양곡연도) 산지 쌀 가격의 절단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 2023년 2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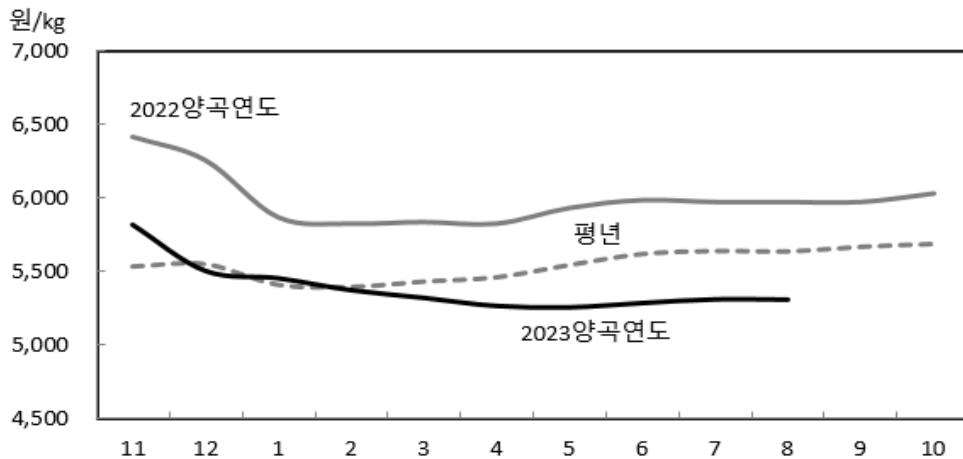
- 2분기 산지 쌀 가격은 18만 3,612원/80kg(45,903원/20kg 기준)으로 1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7%, 1.6% 하락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조남욱 전문연구원(ukjo@krei.re.kr), 김지연 전문연구원(jykim12@krei.re.kr), 최선우 전문연구원(opendoyon@krei.re.kr), 이미숙 전문연구원(lms1214@krei.re.kr), 윤성주(ysj0811@krei.re.kr), 김창수(kcs87@krei.re.kr), 김지훈(jhkim4209@krei.re.kr), 강윤정(kangyj@krei.re.kr), 임수현(imsh79@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 4월까지 하락하던 쌀 가격은 5월에 재고 부족에 대한 공감대가 산지에 형성되면서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6월부터 전년보다 높은 수준 유지
- 2023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산지 쌀 가격은 18만 9,223원/80kg으로 2분기 및 전년 대비 각각 3.1%, 6.6% 상승
 - 이는 재고 부족과 이에 따른 가수요 등이 많았기 때문
 - 3분기 산지 쌀 가격은 22년산 원료곡 가격 상승 영향 등으로 2분기 및 전년보다 높은 수준 유지 전망

1.2. 콩

국산 콩(백태 상품)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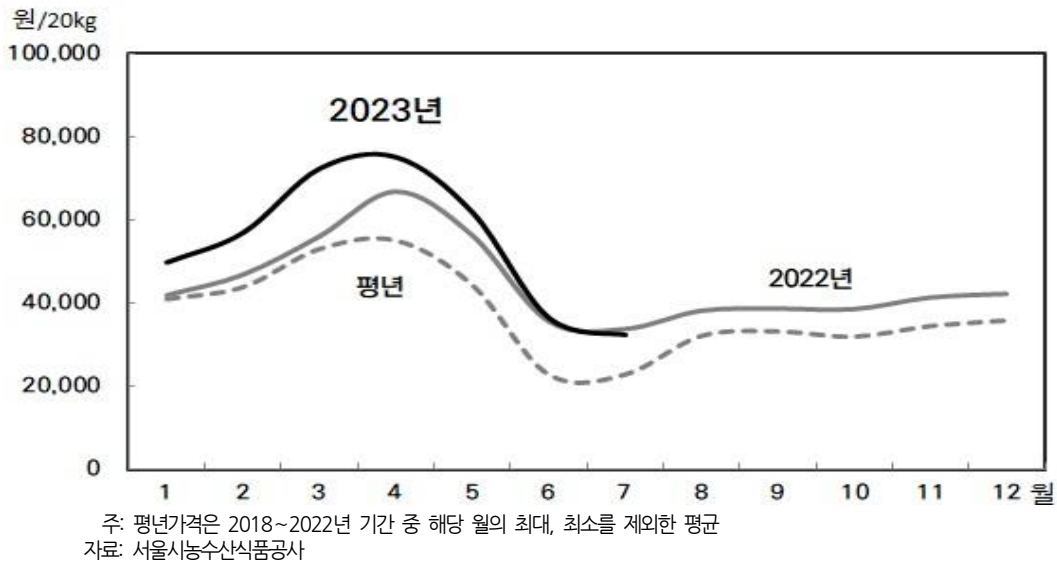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18~2022양곡연도 기간 중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3년 2분기 동향
 - 2분기 국산 콩 도매가격은 5,269원/(백태 상품 kg)으로 1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 11.0% 하락

- 이는 생산증가로 연간시장공급물량이 전년보다 늘었고, 대규모 수요처 구매 완료로 거래는 둔화되었기 때문
- 2023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국산 콩 도매가격은 5,310원/(백태 상품 kg)으로 2분기 대비 0.8% 상승, 전년 동기 대비 8.9% 하락
 - 이는 계절수요 영향으로 2분기보다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
 - 3분기 국산 콩 도매가격은 작황 및 시세 등을 관망하는 업체 영향으로 2분기와 비슷, 전년 대비 하락 전망

1.3. 감자

감자(수미 상품)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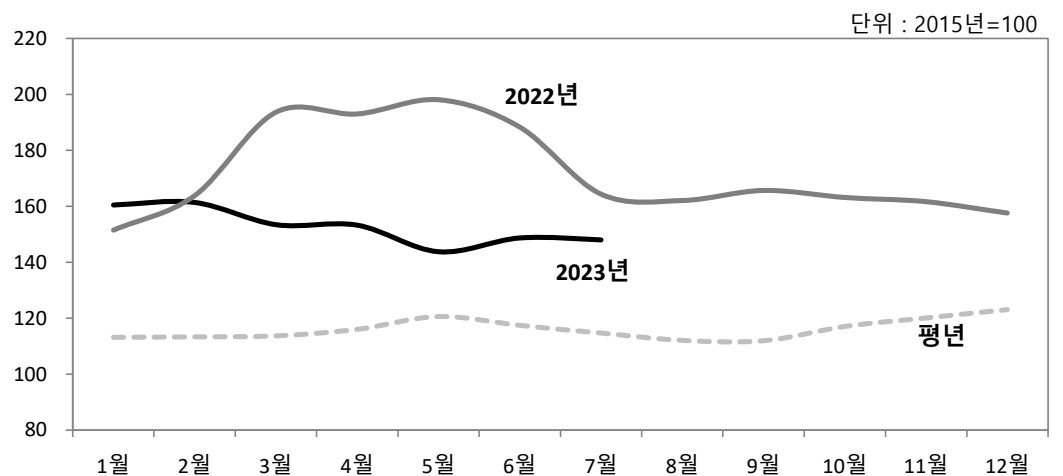


- 2023년 2분기 동향
 - 2분기 감자 도매가격은 57,758원/(수미 상품 20kg)으로 1분기 대비 3.3%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8.8% 상승

- 이는 생육기 저온에 따른 시설 봄감자 품위 저하와 출하 지연, 지방도매시장으로의 분산 출하가 늘었기 때문
- 2023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감자 도매가격은 32,444원/(수미 상품 20kg)으로 2분기 및 전년 대비 각각 43.8%, 4.2% 하락
 - 이는 노지봄 및 고랭지감자 생산량이 전년보다 늘어 출하량이 많았기 때문
 - 3분기 감자 도매가격은 고랭지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하락할 전망
 - ※ 노지봄·고랭지감자 생산량은 각각 전년 대비 15%씩 증가 전망

1.4. 국제곡물

국제곡물 선물가격 추이



주: 선물 가격지수는 근접월 인도분 선물가격에 곡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평년가격은 2018~2022년의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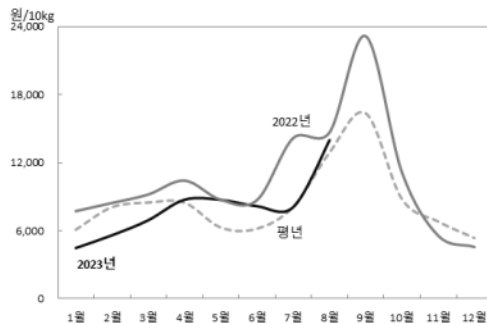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 2023년 2분기 동향
 - 2023년 2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2015년=100)는 전 분기 대비 6.2% 하락한 149.7임.
 - 흑해곡물협정 연장으로 흑해지역 곡물 수출 지속, 2023/24년 세계 옥수수·콩 생산량 증가 전망으로 인한 수급 개선 기대 등으로 하락함.
- 2023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2023년 3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1.7% 하락한 147.2로 전망됨.
 - 2023/24년 미국 밀·옥수수 생산량 전망치 상향 조정 등으로 공급 부족 우려 완화되며 가격 하락 전망되나, 미국 콩 생산량 전망치 하향 조정, 흑해지역 갈등 심화 및 엘니뇨로 인한 북반구 주산지 생육 부진 우려는 가격 하락폭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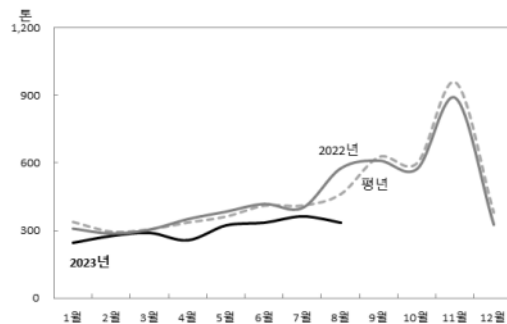
2. 엽근채소²⁾

2.1. 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18~2022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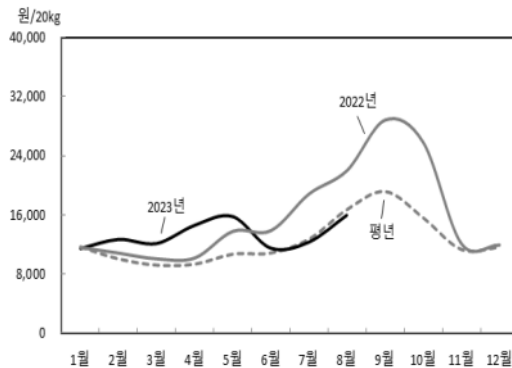
- 2023년 2분기 동향
 - 2분기 배추 평균 도매가격 8,550원/10kg (전년 대비 7.7% 하락, 평년 대비 22.5% 상승)
 - 겨울배추 저장 출하 및 노지봄배추 생산량 증가로 가격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가락시장 하차경매 전면 시행 및 여름철 수급 불안에 대비한 노지봄배추 저장량 증가로 시장 출하 감소하여 평년 대비 상승
 - * 2022년산 겨울배추 저장량 전년 대비 12.2% 증가, 평년 대비 1.1% 감소
 - * 2023년 노지봄배추 생산량 28만 6천 톤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0.3%, 16.2% 증가)
 - * 2023년 가격: (4월) 8,750원/10kg, (5월) 8,740원, (6월) 8,170원
 - * 2분기 가격: (2023년) 8,550원/10kg, (2022년) 9,270원, (평년) 6,980원

2)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박영구 전문위원(ygpark@krei.re.kr), 박자원(jione1105@krei.re.kr), 남호진(namho1992@krei.re.kr), 안나영(anna@krei.re.kr), 백호승 연구원(white77@krei.re.kr)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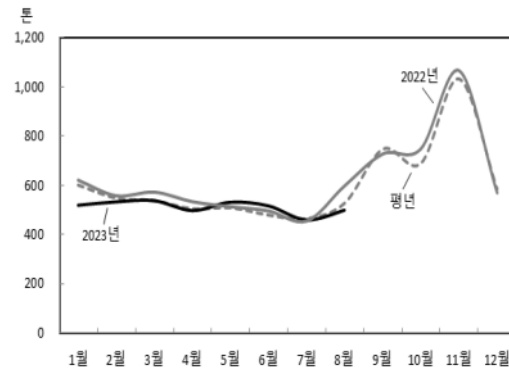
- 2023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2023년 봄배추 저장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1.8%, 33.4% 증가
 - * 7~9월 여름배추 생산량 변동성 심화에 대비하여 김치업체의 노지봄배추 저장 확대
 - * 9월 중순 소진 예상되나 감모에 따라 소진 시점 변동 가능
 - 2023년 여름배추 생산량 38만 5천 톤 (전년 대비 8.6% 증가, 평년 대비 0.5% 감소)
 - * 재배면적 5,224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6%, 1.9% 감소)
 - * 단수 7,370kg/10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1.5%, 1.4% 증가)
 - * 7월 출하분은 하순 장마 영향으로 무름병 확산되었으나 전반적 작황 평년 수준
 - 3분기 배추 출하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0.6%, 2.3% 증가
 - * 금년 정부 수급안정대책의 일환으로 9~10월 출하될 농협 계약재배물량 확대 및 늦은 추석(9.29.)으로 인해 9월 출하량 전년 및 평년 대비 증가
 - 3분기 배추 도매가격 전년(17,310원/10kg) 및 평년(12,240원) 대비 하락
- 2023년 가을배추 재배의향면적 전망
 - 가을배추 재배의향면적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7.5%, 4.4% 감소
 - * 전년 출하기 가격 낮았던 영향으로 재배 의향 감소
 - * 정식기 가격 등에 따라 추후 재배 의향 변동 가능

2.2. 무

도매가격 동향(상품)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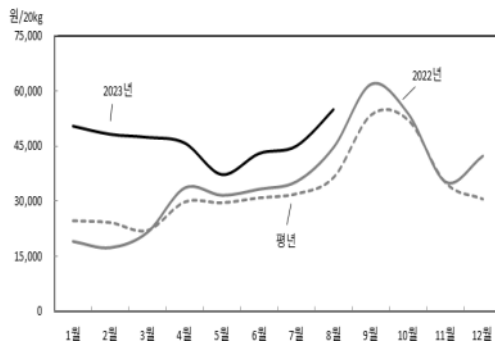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8~2022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2023년 2분기 동향
 - 2분기 무 평균 도매가격 13,980원/20kg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0.9%, 36.8% 상승)
 - 봄무 생산량 늘었으나, 겨울무 저장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가격 상승
 - * 2022년산 겨울무 저장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0.3%, 18.5% 감소
 - * 2023년 봄무 생산량 12만 톤(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4.7%, 3.9% 증가)
 - * 2023년 가격: (4월) 14,620원/20kg, (5월) 15,820원, (6월) 11,490원
 - * 2분기 가격: (2023년) 13,980원/20kg, (2022년) 12,610원, (평년) 10,220원W
- 2023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2023년 노지봄무 저장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9.1%, 7.2% 증가
 - 2023년 여름무 생산량 24만 7천 톤 (전년 대비 12.0% 증가, 평년 대비 0.8% 감소)
 - * 재배면적 2,732ha (전년 대비 3.1% 증가, 평년 수준)
 - * 단수 9,034kg/10a (전년 대비 8.7% 증가, 평년 대비 0.7%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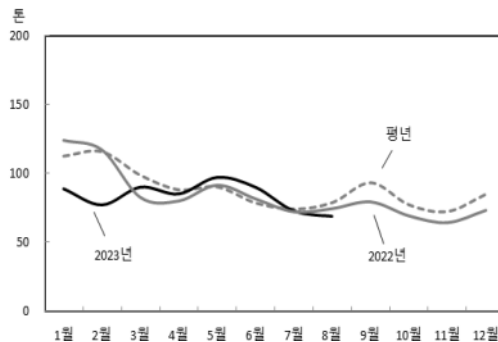
- * 8월 출하분 생육기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병해(무름병 등) 및 생리장해(열근 등) 발생하여 작황 다소 부진, 9월 출하분 작황은 양호하나 최근 고온 영향으로 생육 다소 지연
- 3분기 무 출하량 전년 대비 14.2% 증가, 평년 수준
- * 노지봄무 저장량 및 여름무 생산량 늘어 출하량 전년 대비 증가
- 3분기 무 도매가격은 전년(23,240원/20kg) 대비 하락, 평년(16,190원) 수준
- 2023년 가을일반무 재배의향면적
 - 2023년 가을일반무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5.9% 감소, 평년 대비 1.0% 증가
 - * 전년도 출하기(11월) 가격 낮아 재배의향 전년 대비 감소, 주요 대체작목은 양파, 콩 등
 - * 주산지(충청, 호남)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유실 피해 심하여 향후 필지 정비 여부에 따라 재배의향 변동 가능

2.3. 당근

도매가격 동향(상품)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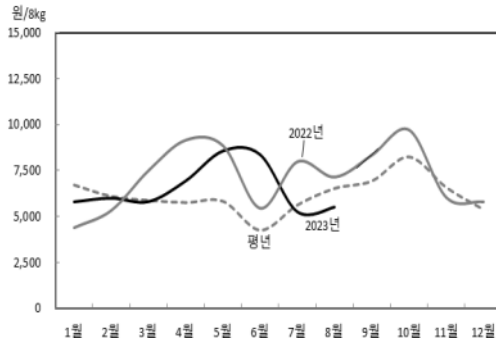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8~2022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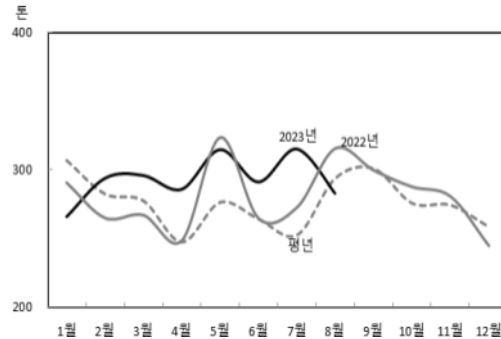
- 2023년 2분기 동향
 - 2분기 당근 평균 도매가격 41,940원/20kg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7.7%, 39.3% 상승)
 - 봄당근 생산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가격 상승
 - * 봄당근 생산량 2만 6천 톤(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4%, 8.5% 감소)
 - * 2023년 가격: (4월) 45,800원/20kg, (5월) 37,130원, (6월) 42,900원
 - * 2분기 가격: (2023년) 41,940원/20kg, (2022년) 32,850원, (평년) 30,120원
- 2023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2023년 봄당근 저장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6.9%, 9.7% 감소
 - 2023년 여름당근 생산량 전년 대비 11.4% 증가, 평년 수준
 - * 재배면적 385ha (전년 대비 3.7% 감소, 평년 대비 8.9% 증가)
 - * 단수 1,918kg/10a (전년 대비 15.7% 증가, 평년 대비 8.4% 감소)
 - * 7월 하순 검은잎마름병 등 병해 발생으로 인한 작황 부진 가능성
 - 3분기 당근 출하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9.6%, 12.1% 감소
 - 3분기 당근 도매가격 전년(47,360원/20kg) 및 평년(40,718원) 대비 상승
- 2023년 가을당근 재배(의향)면적 전망
 - 2023년 가을당근 재배(의향)면적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8%, 16.6% 감소
 - * 여름당근 출하 기간 장기화 및 겨울당근 파종 시기 앞당겨짐으로 인한 재배(의향)면적 감소, 대파, 단무지무 등으로 작목 전환 예상
 - * 노지가을당근 주산지인 경기·영남지역 전년 대비 5% 감소, 시설 주산지인 충청은 전년과 비슷

2.4.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8~2022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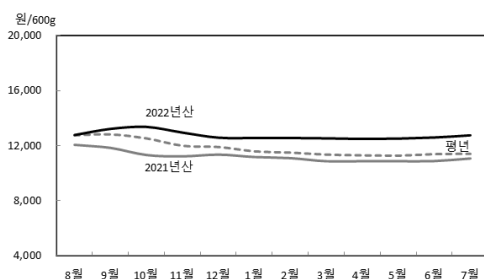
- 2023년 2분기 동향
 - 2분기 양배추 평균 도매가격 7,950원/8kg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7%, 51.3% 상승)
 - 겨울 만생종 양배추 인력 부족으로 출하량 감소, 봄양배추 재배면적 감소 영향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가격 상승
 - * 2022년산 겨울양배추 저장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2.7%, 35.2% 감소
 - * 2023년 봄양배추 생산량 6만 9천 톤(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6%, 3.3% 감소)
 - * 2023년 가격: (4월) 6,930원/8kg, (5월) 8,560원, (6월) 8,370원
 - * 2분기 가격: (2023년) 7,950원/8kg, (2022년) 7,820원, (평년) 5,260원
- 2023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2023년 여름양배추 생산량 전년 대비 3.9% 증가
 - * 재배면적 전년 대비 1.1% 증가, 단수는 전년 대비 2.7% 증가
 - * 6월 하순 및 7월 상순 적절한 강수량으로 준고랭지 작황 양호
 - * 고랭지양배추 현재 작황 양호하나, 고온 지속시 병해 발생하여 작황 부진 가능성
 - 3분기 양배추 출하량 전년 대비 4.9% 증가
 - 3분기 양배추 도매가격 전년(7,820원/8kg) 대비 하락

- 2023년 가을양배추 재배(의향)면적 전망
 - 2023년 가을양배추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1.5% 증가
 - * 집중호우 지속시, 발정리 지연되어 파종시기 늦은 마늘, 양파 등으로 대체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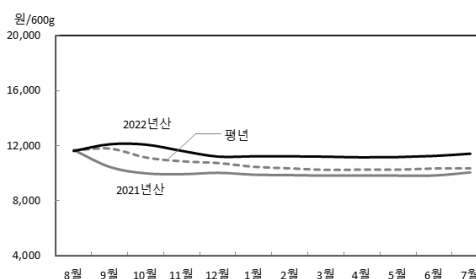
3. 양념채소³⁾

3.1.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화건 도매가격 동향(중품)



주 1. 평년 가격은 2017년 8월~2022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8월 가격은 햇건고추 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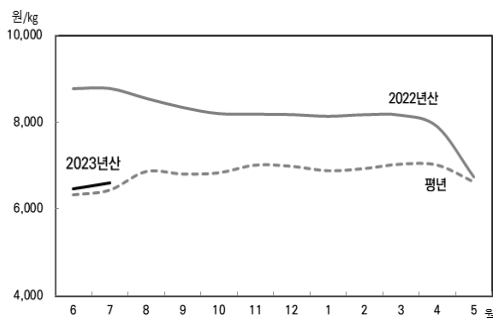
- 2023년 2분기 동향
 - 2분기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상품 600g) 2022년산 생산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5%, 10% 상승, 4~6월 가격은 보합세 유지
 -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 산지 평균가격은 4월 7,590원에서 6월 8,040원으로 상승
 - * 건고추 도매가격(원/600g): (금년) 12,500 (전년) 10,860 (평년) 11,319
 - * 월별 도매가격(원/600g): (4월) 12,459, (5월) 12,480, (6월) 12,562
- 2023년산 건고추 생산량
 - 2023년산 건고추 재배면적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6%, 9% 감소한 27,965ha
 - 초기 생육 좋았으나, 6~7월 장마 기간 많은 비, 일조 감소로 병해 증가 하여 작황 다소 부진

3)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노호영 전문위원(rhy81@krei.re.kr), 박한울 (phu87@krei.re.kr), 노수정(nosu303@krei.re.kr), 김다정(swetmug@krei.re.kr), 김치운(kcu5226@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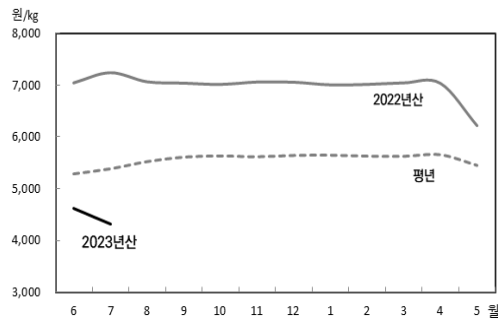
- 2023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진고추 화진 도매가격(상품 600g) 6월(12,560원) 대비 소폭 상승한 12,720원
 - 3분기 진고추 가격은 2023년산 생산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 대비 높을 전망

3.2. 마늘

간마늘 도매가격 동향(상품)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평년 가격은 2018년 6월~2023년 5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3년 2분기 동향
 - 2분기 간마늘 평균 도매가격은 2022년산 저장마늘 재고 부담과 2023년산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19% 하락했으나, 평년보다는 8% 상승
 - * 간마늘 도매가격: (금년) 7,033원/kg, (전년) 8,706원/kg, (평년) 6,533원/kg
 - * 월별 도매가격: (4월) 7,894원/kg, (5월) 6,736원/kg, (6월) 6,470원/kg
- 2023년산 마늘 생산 동향
 - 농업관측센터 실측 조사 결과, 2023년산 마늘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 대비 7% 증가하나, 평년 대비 6% 감소한 31만 2천 톤
 - * 재배면적 : 전년 대비 4% 증가하나, 평년 대비 4% 감소한 24,629ha
 - * 단수 : 전년 대비 3% 증가하나, 평년 대비 3% 감소한 1,269kg/10a

- * 구 비대기 및 수확기 큰 일교차와 잦은 강우로 전반적인 작황 부진하였으나, 고온·가뭄 피해가 컸던 전년보다는 양호, 다만 전년 대비 상품(上品)과 비율 감소
- 품종별로 난지형 중 대서종 생산량은 전년 대비 14% 증가, 남도종은 2% 감소, 한지형 마늘은 전년과 비슷

2023년산 마늘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톤, %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3	24,629	1,269	312,438
2022	23,686	1,228	290,824
평년	25,625	1,301	333,508
전년 대비	4.0	3.3	7.4
평년 대비	-3.9	-2.5	-6.3

주 1) 2021~2023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조사 결과, 2018~2020년산은 통계청 조사 결과
 2) 평년은 2018~2022년산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2023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 의향
 - 저장·가공업체 표본 조사 결과, 2023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의향)량은 9만 3천 톤으로 전년 대비 2% 증가, 평년 대비 7% 감소 전망
 - * 저장성 낮은 저품위 물량 증가로 입고량 증가 폭은 크지 않은 수준
 - 2023년산 난지형 마늘 평균 입고가격은 전년(5,100원/kg 내외) 대비 낮은 3,300원/kg 내외

2023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의향)량 추정

단위: 천 톤, %

연산	생산량	입고(의향)량
2023	312.4	92.5
2022	290.8	90.8
평년	333.5	99.4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7.4 -6.3
		1.9 -7.0

주 1) 2021~2023년산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조사 결과이며, 2018~2020년산은 통계청 조사 결과
 2) 2022년산 입고량은 국내산 정부 비축물량이 포함된 수치이며, 평년 입고량은 2018~2022년산 입고량 조사치(농업관측센터)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
 3) 2023년산 입고(의향)량은 7월 20일 저장·가공업체 조사치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2023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2023년 7월 깐마늘 가격은 6,597원/kg으로 전년 대비 낮으나, 전월(6,470원) 및 평년 대비 상승
 - * 7월 도매가격: (금년) 6,597원/kg, (전년) 8,778원, (평년) 6,433원
 - 2023년 3분기 깐마늘 도매가격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동기(8,556원) 및 2분기(7,033원) 대비 하락 전망
- 2024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
 - 2024년산 재배의향면적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 감소한 23,556ha 추정
 - * 품종별로 한지형은 전년 대비 3.4% 감소한 4,426ha, 난지형은 전년 대비 4.6% 감소한 19,130ha 전망

2024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 추정

단위: ha, %

연산		한지형	난지형	전체
2024		4,426	19,130	23,556
2023		4,581	20,048	24,629
평년		4,823	19,760	24,583
증감률	전년 대비	-3.4	-4.6	-4.4
	평년 대비	-8.2	-3.2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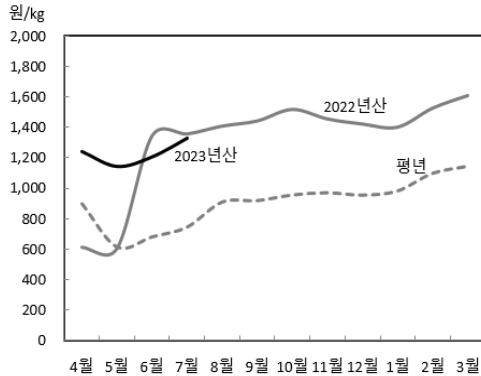
주 1) 2021~2023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조사 결과, 2019~2020년산은 통계청 조사 결과, 2024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 평년은 2019~2023년산 재배면적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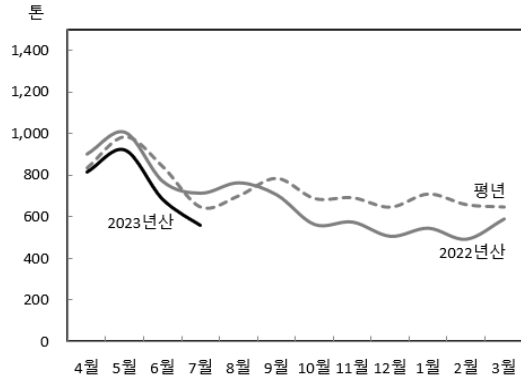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7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3.3. 양파

양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8년 4월~2022년 3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23년 2분기 동향
 - 2분기 양파 평균 도매가격은 조생종양파 생산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0.6%, 64.4% 높은 상품 kg당 1,198원
 - * 양파 도매가격: (금년) 1,198원/kg, (전년) 852원/kg, (평년) 729원/kg
 - * 월별 도매가격: (4월) 1,242원/kg, (5월) 1,146원/kg, (6월) 1,207원/kg
- 2023년산 양파 생산 동향
 - 농업관측센터 생산량 실측조사 결과, 2023년산 양파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위 증가로 전년 대비 6.3% 증가하였으나, 평년 대비 14.0% 감소한 121만 6천 톤
 - * 재배면적 : 전년 대비 3.8% 증가하나, 평년 대비 8% 감소한 17,986ha
 - * 단위 : 전년 대비 2.4% 증가하나, 평년 대비 6.8% 감소한 6,759kg/10a
 - * 병해 발생(4월 말 저온 및 5월 초 집중호우)으로 전반적인 작황 평년 대비 부진했으나, 고온·가뭄 피해가 컸던 전년보다는 양호, 다만, 특·상품과 비중 감소
 - 품종별로는 조생종양파 전년 대비 4.5% 증가한 21만 1천 톤, 중만생종양파 전년 대비 6.7% 증가한 100만 5천 톤

2023년산 양파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천 톤, %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3	17,986	6,759	1,215,675
2021	17,327	6,597	1,143,138
평년	19,511	7,248	1,414,198
전년 대비	3.8	2.4	6.3
평년 대비	-7.8	-6.8	-14.0

주1) 2020~2023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조사 결과이며, 2018~2019년산은 통계청 조사 결과

2) 2022년산 재배면적은 산지떼기면적(194ha)을 제외한 면적 기준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2023년산 양파 입고(의향)
 - 2023년산 중만생종양파 입고(의향)량은 62만 5천 톤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 평년 대비 8.8% 감소 전망
 - 저장성 낮은 저품위 물량 증가로 입고량 증가 폭은 생산량 증가 폭에 비해 적은 수준
 - 2023년산 중만생종양파 평균 입고가격은 920원/kg 내외로 전년(950원)보다 낮은 수준

2023년산 중만생종양파 입고(의향)량 추정

단위: ha, kg/10a, 천 톤, %

연산	중만생종 생산량	입고(의향)량
2023	1,005	625
2022	941	615
평년	1,200	685
전년 대비	6.7	1.7
평년 대비	-16.3	-8.8

주1) 2020~2023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조사 결과이며, 2018~2019년산은 통계청 조사 결과

2) 평년은 2018~2022년산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

3) 2023년산 입고(의향)량은 7월 20일 표본 저장업체 조사치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2023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낮으나, 전월 및 평년보다 높은 1,328원/kg(상품)
 - 8월 평균 도매가격은 저품위 출하량 증가 및 정부 수급 대책(TRQ 도입) 영향으로 전년 및 전월보다 낮으나, 평년보다 높은 1,300원/kg(상품) 전망
 - * 다만, 품위간 가격 차이 크거나, 저장 출하 조절 시에 전망치보다 가격 상승 가능
- 2024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
 - 2024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3%, 1.1% 증가한 18,403ha 추정
 - * 품종별로 조생종이 전년 대비 3.3% 증가, 중만생종은 2.1% 증가

2024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 추정

단위: ha, %

연산	조생종	중만생종	전체
2024	3,054	15,349	18,403
2023	2,956	15,030	17,986
평년	2,917	15,290	18,207
전년 대비	3.3	2.1	2.3
평년 대비	4.7	0.4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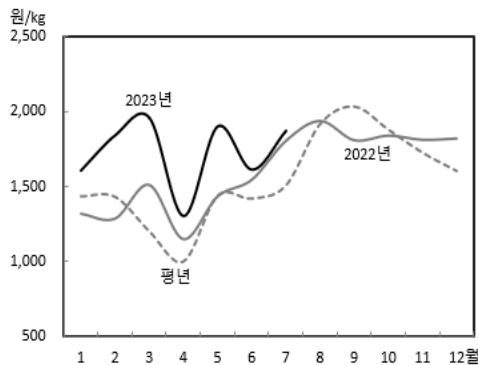
주1) 2020~2023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조사 결과, 2019년산은 통계청 조사 결과, 2024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 평년은 2019~2023년산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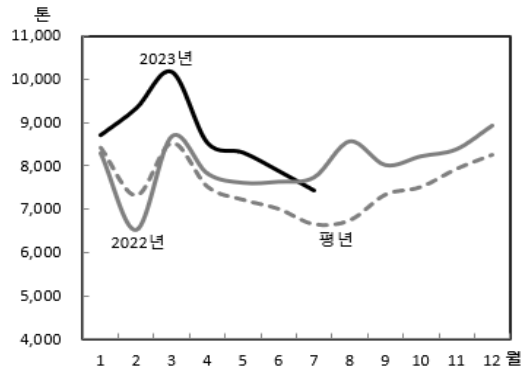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7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3.4. 대파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대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7년 1월~2021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3년 2분기 동향
 - 대파 2분기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1,607원/kg(중품 1,341원/kg)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7.0% 상승, 25.0% 상승
 - 전년 겨울대파 재배면적 감소와 한파 및 기온상승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출하량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상승
 - * 대파 도매가격: (금년) 1,607원/kg, (전년) 1,373원/kg, (평년) 1,285원/kg
 - * 월별 도매가격: (4월) 1,304원/kg → (5월) 1,902원/kg → (6월) 1,614원/kg
- 2023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대파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장마철 집중호우 영향으로 경기·충청 지역 등 출하가 원활하지 않아 전년(1,802원/kg)보다 높은 1,873원/kg
 - 3분기 가격은 강원지역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으나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상 영향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전년 및 평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 3분기는 경기와 강원지역에서 출하되며 강원지역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약 10% 증가

강원지역 지역별 고랭지대파 재배면적

단위: %

구분	철원	평창	홍천	양구	기타	전체
전년 대비	13.7	5.0	17.5	11.7	9.8	9.7

자료: 농업관측센터, 6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

- 겨울대파 재배면적 동향
 - 전남지역 대파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3,108ha로 조사
 - * 금년 겨울대파 정식기 가격 상승으로 재배면적 감소

전남지역 겨울대파 재배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연산		재배면적
2023		3,108
2022		3,076
평년		3,230
증감률	전년	1.0
	평년	-3.8

자료: 전남도청

전남지역 지역별 겨울대파 재배면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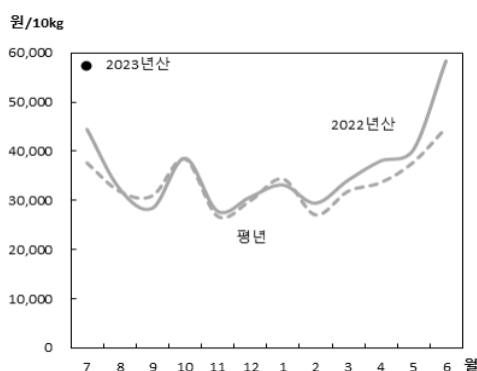
구분	신안	진도	영광	기타	전체
전년 대비	2.7	1.7	-3.4	-5.3	1.0

자료: 전남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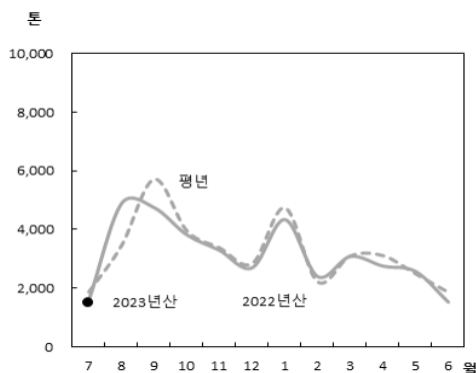
4. 과일4)

4.1. 사과

사과 도매가격 동향(상품)



사과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8~22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7~8월 쓰가루, 9월 홍로, 10월 양광, 11월 이후 후지 기준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 2023년 2분기 동향

- 4~6월 후지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전년 대비 45% 상승한 4만 5,600원/10kg이었음.
- 이는 사과 가격 상승으로 2022년산 후지 출하를 조기 종료한 농가가 많아 반입량이 전년 대비 감소(9%)하였고, 대체 과일의 가격이 높았으며, 일부 대체 과일은 품질이 저하되어 사과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23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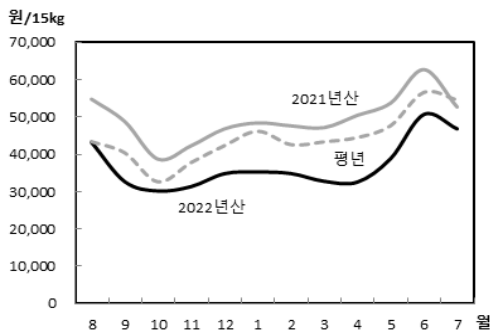
- 7월 후지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68% 상승한 5만 7,200원이었음. 이는 2022년산 저장사과 반입량 감소와 긴 장마로 인한 대체 과일의 반입량 감소·품질 저하로 사과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4)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원태 전문위원(wtkim@krei.re.kr), 김형진(junjang00@krei.re.kr), 김서영(ksy1208@krei.re.kr), 이혜인(hyen@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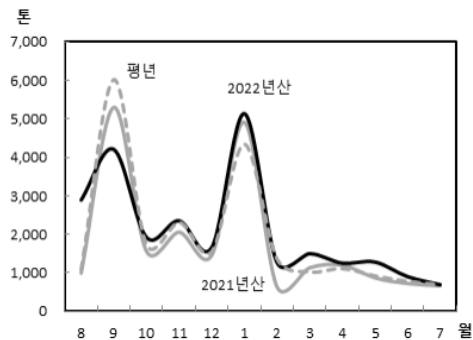
- 2023년산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늦은 추석 영향으로 홍로가 9월 집중 출하되어 8월 사과 출하량은 전년 대비 2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9월에는 사과 생산량 감소로 5% 감소할 전망이다. 저온 피해와 장마 영향으로 상품과 비율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등급 간 가격 편차가 클 것으로 예측됨.
- 2023년 생산량 전망
 -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감소한 46만 톤 내외로 전망됨.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2% 감소하였고, 단수가 전년 대비 17% 감소하였음.
 - 품종별로 기타(썸머킹, 시나노골드, 아리수 등) 품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추석용 사과인 홍로 생산량은 착과수 감소로 전년 대비 22% 감소한 7만 7천 톤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됨.

4.2. 배

배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7~21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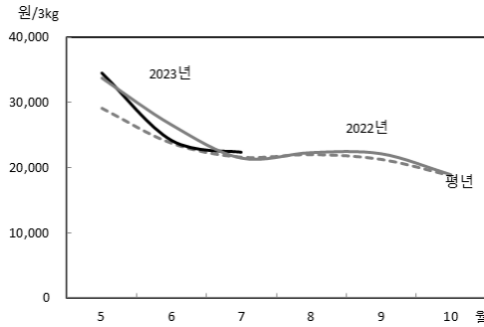
2 도매가격은 8월 원황, 9월 이후 신고 기준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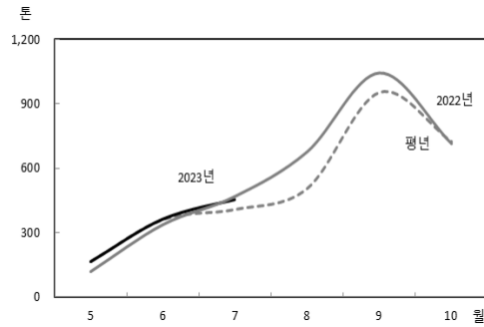
- 2023년 2분기 동향
 - 2분기 신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반입량 증가(전년 대비 24%)로 전년 대비 27% 하락한 40,800원/15kg이었음.
- 2023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신고 평균 도매가격은 2022년산 저장량 증가로 출하량이 늘어 전년 대비 11% 하락한 46,900원/15kg이었음.
 - 8월 햇배(원황)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2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금년 햇배 품질은 전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개화기 저온 피해로 기형과 발생이 많아 정형과 및 상품과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여름철 긴 장마로 일조량이 부족하여 과 비대가 지연되어, 당도도 전년 대비 낮을 것으로 예측됨.
- 2023년 생산량 전망
 - 2023년 배 생산량은 전년 대비 22% 감소한 19만 7천 톤 내외로 전망됨.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 감소, 단수는 저온 피해로 착과수 및 봉지수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4.3. 감귤

감귤 도매가격 동향(상품)



감귤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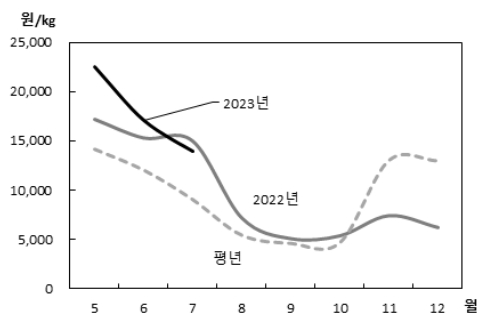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18~22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하우스온주(3kg) 기준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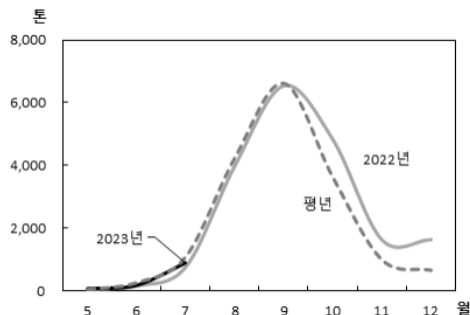
- 2023년 2분기 동향
 - 5월 하우스온주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반입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만감류 출하의 조기 종료로 하우스온주 초기 가격이 높아 전년 대비 2% 상승한 3만 4,500원/3kg이었음.
 - 6월 하우스온주 도매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9% 하락한 2만 4,200원/3kg이었음.
- 2022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하우스온주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4% 상승한 2만 4,000원/3kg이었음. 7월 일조량 부족으로 착색이 지연되어 반입량이 전년 대비 4% 감소함.
 - 8월 하우스온주 출하량은 생산량 증가와 착색 지연된 온주의 출하로 전년 대비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9월 이후 출하량은 전년 대비 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2023년 노지온주 착과수
 - 노지온주 단위면적(10a)당 착과수는 전년 대비 3% 증가함. 지역별로 제주시는 해저리현상으로 전년 대비 4% 감소한 반면, 서귀포시는 6% 증가함.

4.4. 포도

포도 도매가격 동향(상품)



포도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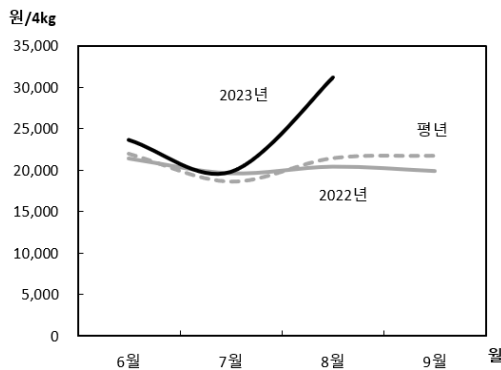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18~22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5월 델라웨어(2kg), 6~7월 거봉(2kg), 8~10월 캠벨얼리(3kg), 11~12월 샤인머스켓(2kg)을 kg으로 환산함.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 2023년 2분기 동향
 - 2분기 델라웨어, 거봉 평균 도매가격은(가락시장/상품)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 유류비 상승에 따른 저온 관리로 숙기가 지연되어 반입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5월 델라웨어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31% 상승한 45,000원/2kg, 6월 거봉 가격은 12% 상승한 34,200원/2kg이었음.
- 2023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캠벨얼리 가격은 반입량이 증가하였으나, 등급 간 품질 차이 커 전년 대비 7% 상승한 35,200원/3kg, 거봉과 샤인머스켓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각각 7%, 14% 하락한 28,000원/2kg, 33,800원/2kg이었음.
 - 8~9월 캠벨얼리 출하량은 재배면적이 줄어 전년 대비 감소하겠으며, 거봉은 전년과 비슷, 샤인머스켓은 생산량이 늘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23년 생산량 전망
 - 포도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19만 6천 톤 내외로 전망됨.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 증가하나, 단수는 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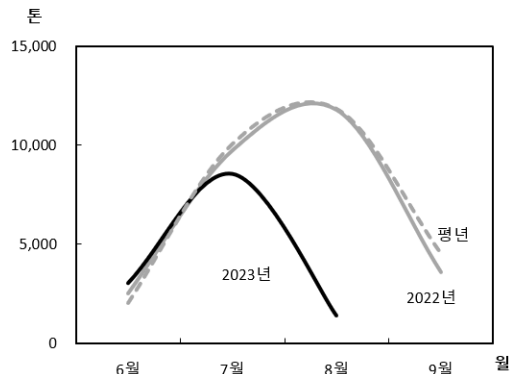
- 품종별로 캠벨얼리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줄어 전년 대비 7% 감소하나, 거봉은 전년과 비슷, 샤인머스켓은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유목의 성목화로 전년 대비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4.5 복숭아

복숭아 도매가격 동향(상품)



복숭아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8~22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2) 도매가격은 6월 천도(5kg), 7월 백도, 8월 천중도, 9월 장호원황도(엘버트) 기준임.
 3) 2021년 이전 백도, 천중도, 장호원황도(엘버트) 가격은 4.5kg을 4kg으로 환산한 가격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 2023년 2분기 동향
 - 6월 천도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반입량이 증가하였으나, 당도 등 품질이 좋아 전년 대비 11% 상승함.
- 2023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선프레(천도계) 도매가격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 대비 12% 상승한 2만 9,700원/10kg이었음. 백도(유모계)도 반입량 감소로 전년 대비 1% 상승한 1만 9,800원/4kg이었음.
 - 8월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품종별로 천도계와 유모계 출하량은 전년 대비 각각 8%, 14% 감소할 것으로 예측

됨. 품질(크기 및 당도)은 저온피해, 잦은 강우 등으로 전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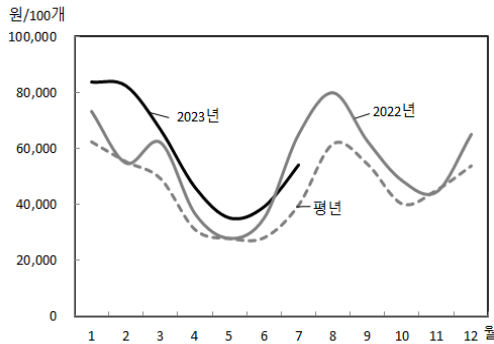
- 2023년 생산량 전망

- 복숭아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 감소한 18만 톤으로 전망됨. 개화기 저온(착과수 감소) 및 7월 집중호우(낙과 발생 증가)로 단수는 전년 대비 1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품종별로 천도계, 유모계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각각 5%,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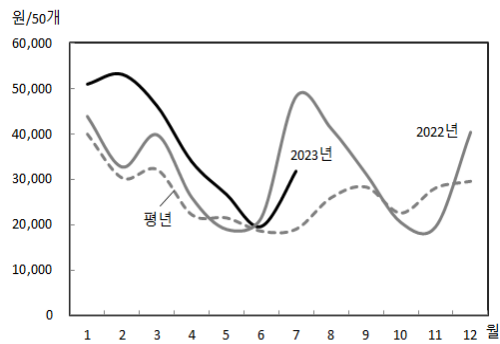
5. 과채5)

5.1. 오이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8~2022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2022년 2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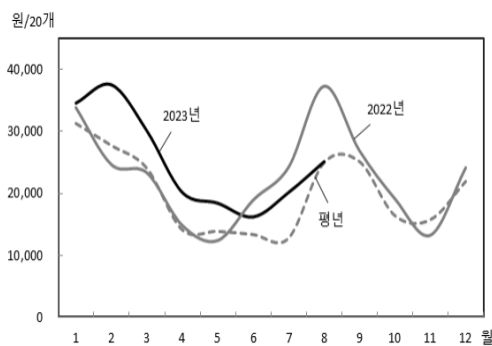
- 백다다기오이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4월 46,100원/100개, 5월 35,100원, 6월 39,100원이었음. 2분기 평균가격은 40,100원/1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하였음.
- 취청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4월 33,800원/50개, 5월 26,500원, 6월은 19,500원이었음. 2분기 평균가격은 26,600원/50개로 전년 동기보다 20% 상승하였음.
- 2분기 백다다기오이, 취청오이 반입량은 봄 작형 주 출하지인 충청지역에서 기상 여건(일조량 감소, 기온 하락 등)이 좋지 않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4%, 7% 감소하였음.

5)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원태 전문위원(wtkim@krei.re.kr), 김명은(mekim@krei.re.kr), 신성철(ssc0729@krei.re.kr), 김환희(whee0201@krei.re.kr), 문지혜(mjh91@krei.re.kr), 김주영(kimjyyang30@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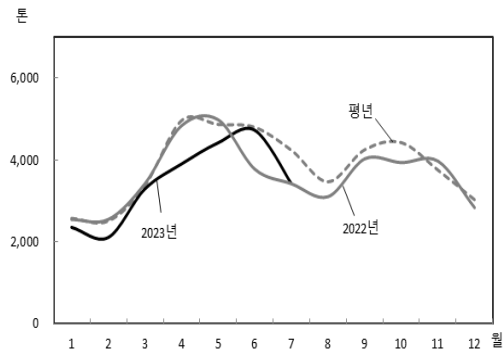
- 2022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강원지역의 출하량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7% 낮은 54,100원/100개이었음.
 - 8~9월 백다다기오이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강원지역에서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고,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작황이 부진하였던 전년 대비 병 피해가 줄고, 생육이 양호하여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7월 취청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 동월보다 34% 낮은 31,700원/50개이었음.
 - 8~9월 취청오이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강원·충청지역에서 기상 여건이 좋아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5.2. 애호박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애호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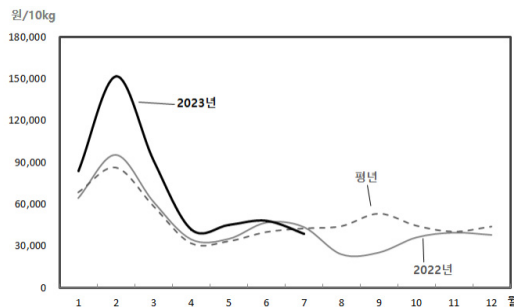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8~2022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3년 2분기 동향
 - 애호박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4월 20,200원/20개, 5월 18,500원, 6월 16,300원이었음. 2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15,400원) 동기 대비 19% 상승한 18,300원/20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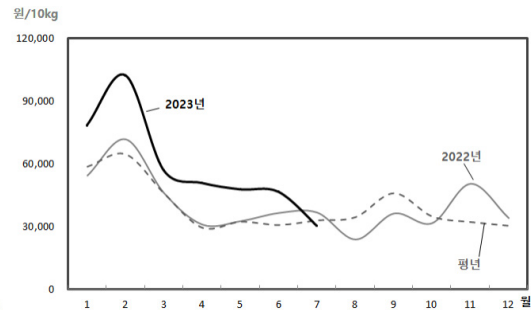
- 2분기 애호박 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하였음. 4~5월 반입량은 영남지역 작황이 부진하여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하였으나, 6월은 주산지인 충청 및 경기·강원지역에서 일조시간 증가 등으로 생육이 양호하여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음.
- 2023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애호박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전년(24,200원) 대비 17% 하락한 20,200원/20개이었음. 7월 상순 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하순은 충청지역 침수피해로 인한 출하 조기 종료, 생육 부진 등으로 반입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하였음.
 - 8~9월 애호박 출하량은 경기·강원지역 재배면적 확대와 전년보다 병해충 피해가 줄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3. 풋고추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오이맛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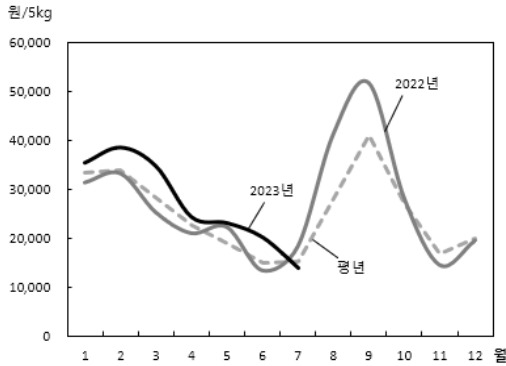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8~2022년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3년 2분기 동향
 - 청양계꽃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4월 41,700원/10kg, 5월 45,000원, 6월 47,900원이었음. 2분기 평균가격은 전년(59,800원) 동기 대비 7% 높은 44,900원/10kg이었음.
 - 2분기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은 겨울작형 주산지인 영남지역의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오이맛고추 도매가격은 4월 50,800원/10kg, 5월 47,700원, 6월 46,500원이었음. 2분기 평균가격은 전년(35,400원) 동기 대비 36% 높은 48,300원/10kg이었음.
 -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오이맛고추 생육기 기상 여건 악화로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23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청양계꽃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전년 대비 48% 낮은 38,600원/10kg이었음. 7월 오이맛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전년 대비 38% 낮은 30,300원/10kg이었음.
 -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된 여름작형 주산지인 강원지역에서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고, 생육도 양호하여 출하량 증가로 가격은 낮게 형성되었음.
 - 8월 청양계꽃고추 출하량은 강원지역 재배면적이 늘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오이맛고추 출하량도 출하면적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많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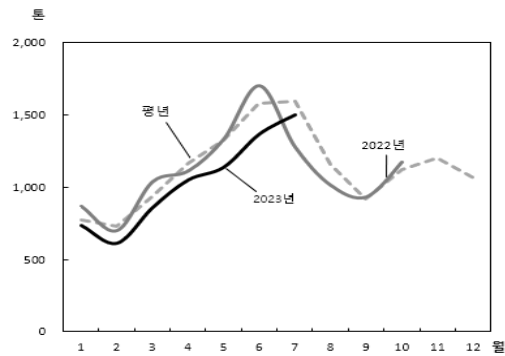
5.4. 빨강파프리카

빨강파프리카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8~2022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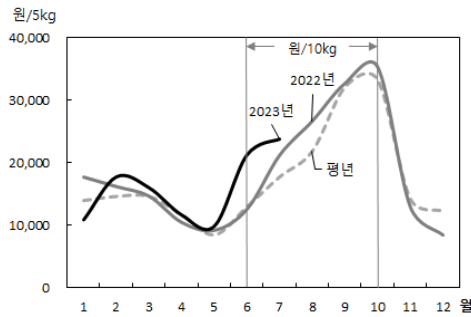
빨강파프리카 반입량 동향



- 2023년 2분기 동향
 - 빨강 파프리카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4월 24,400원/5kg, 5월 23,200원/5kg, 6월 20,300원/5kg이었음. 2분기 평균가격은 전년(18,900 원) 동기 대비 20% 상승한 22,600원/5kg이었음.
 - 2분기 빨강 파프리카 반입량은 영·호남지역에서 기상 여건 악화(일조량 감소)로 작황이 부진하였고, 병해충 피해가 늘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음.
- 2023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빨강 파프리카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23% 하락한 14,000원/5kg이었음.
 - 이는 주산지인 강원지역에서 6월 기상 여건이 좋아 수확이 지연되었던 물량이 출하되어 전년 대비 출하량 증가하였기 때문임.
 - 8~9월 빨강 파프리카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강원지역에서 생육기 고온다습, 일조량 감소 등으로 수정 불량 및 낙과 발생이 많았던 전년 대비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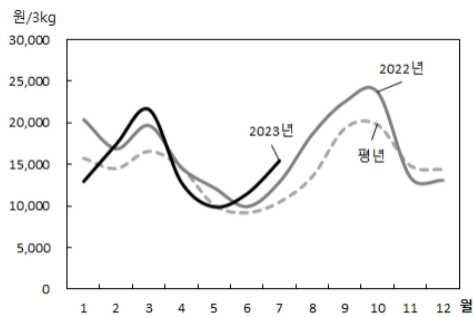
5.5. 토마토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8~2022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대추형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 2023년 2분기 동향

- 일반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4월 11,700원/5kg, 5월 9,900원/5kg, 6월 21,200원/10kg이었음. 2분기 평균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하였음.
- 2분기 일반토마토 반입량은 강원 주산지에서 출하면적이 줄었고, 낮은 기온 및 일조량 부족 등 기상 악화에 따른 단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하였음.
- 대추형방울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4월 12,800원/3kg, 5월 9,900원, 6월 11,400원이었음. 2분기 평균가격은 전년 동기(12,200원) 대비 7% 낮은 11,400원이었음.
- 2분기 대추형방울토마토 반입량은 단수가 줄어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하였으나, 소비 회복 지연으로 가격은 낮게 형성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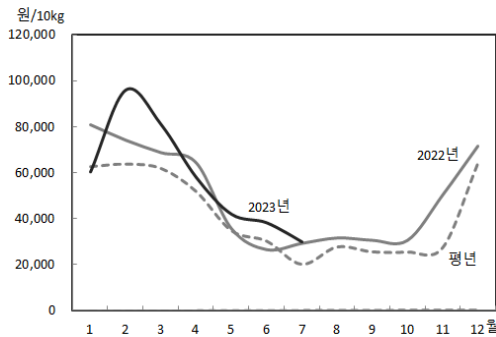
• 2023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유럽계로의 품종 전환으로 찰토마토 출하량이 감소하여 전년(21,200원) 대비 12% 상승한 23,700원/10kg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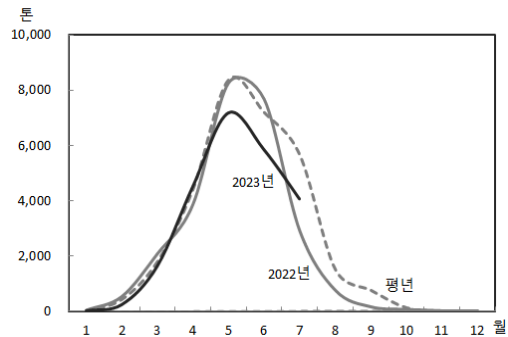
- 8~9월 일반토마토 출하량은 강원지역 출하면적 증가로 전년 대비 많을 것으로 예측됨.
- 7월 대추형방울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장맛비 피해로 출하량이 줄어 전년(12,900원) 대비 20% 상승한 15,400원/3kg이었음.
- 8월 대추형방울토마토 출하량은 일조량 부족 및 고온 영향으로 전년 대비 작과가 부진하여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나, 9월은 주산지 출하면적이 늘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6. 참외

참외 도매가격 동향(상품)



참외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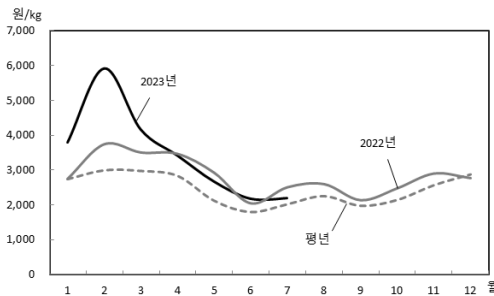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8~2022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2022년 2분기 동향
 - 참외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4월 57,800원/10kg, 5월 41,800원, 6월 38,100원이었음. 2분기 평균가격은 45,9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상승하였음.
 - 참외 2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하였음. 이는 출하 초기 저온피해 등으로 생육이 지연되었고, 일조량 부족으로 수정과 작과가 불량하여 작황이 부진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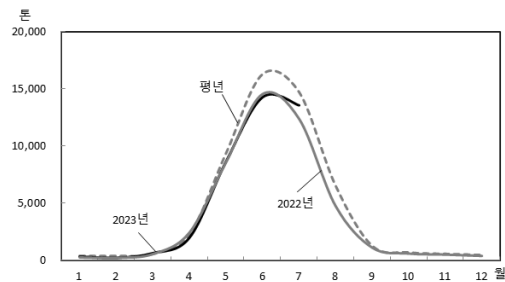
- 2022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참외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반입량 증가하였으나, 대체 과일 가격 상승 및 소비 원활로 전년 동월 대비 2% 높은 29,800원/10kg이었음.
 - 8~9월 참외 출하량은 주 출하지에서 장마로 인한 온실가루이 확산, 방제비 상승, 장마 이후 폭염에 따른 자연 고사 등으로 출하를 조기에 종료하거나 수확량이 줄어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5.7. 수박

수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수박 반입량 동향



주: 평년은 2018~2022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23년 2분기 동향
 - 수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4월 3,420원/kg, 5월 2,670원, 6월 2,180원이었음. 2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2,820원) 동기 대비 2% 하락한 2,750원이었음.
 - 수박 2분기 반입량은 잦은 비 등으로 수정 및 착과가 부진하여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하였음. 반입량이 감소하였으나, 잦은 비 등으로 품질이 저하되어 가격은 하락하였음.

- 2023년 3분기 동향 및 전망
 - 7월 수박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2,510원) 대비 13% 하락한 2,190원/kg이었음.
 - 8월 수박 출하량은 전년과 비슷할 전망이며, 9월은 주산지인 충청지역 재배 면적이 줄어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6. 축산6)

6.1. 한육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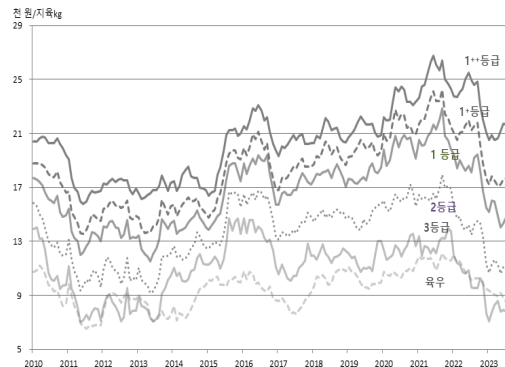
한육우 사육 마릿수 동향

단위: 천 농장, 천 마리

구분	22년				23년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p
사육 농장수	93	93	92	92	91	89
총 마릿수	3,558	3,734	3,752	3,727	3,632	3,686
가임 암소	1,620	1,648	1,691	1,702	1,662	1,671

주: 2023년 6월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육우 등급별 도매가격 동향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한육우) 2/4분기 동향

- 6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누적 입식 마릿수와 가임암소 증가로 3월(363만 2천 마리)보다 1.5% 증가한 368만 6천 마리이나 전년 동월(373만 4천 마리)보다 1.3% 감소
- * 6월 한우 사육 마릿수 353만 6천 마리, 육우 14만 9천 마리
- * 한육우 가임암소 마릿수 167만 1천 마리(전년 동월 164만 8천 마리보다 1.4% 증가)
- 2/4분기 한우 평균 도매가격은 전 분기 16,088원/지육kg보다 3.1% 하락한 15,589원(전년 동기 19,484원보다 20.0%, 평년 동기 19,186원보다 18.7% 하락).

6)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강지석(jskang@krei.re.kr), 김충현(goldbl@krei.re.kr), 지선우(bsn02@krei.re.kr) 전문연구원, 김태환(kimth3368@krei.re.kr), 김지수(jisusu@krei.re.kr), 정진주(pearlj@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 (한우) 3/4분기 전망
 - 9월 한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358만 4천 마리)보다 1.6% 증가한 364만 마리 전망
 - 3분기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한 15,000~16,000원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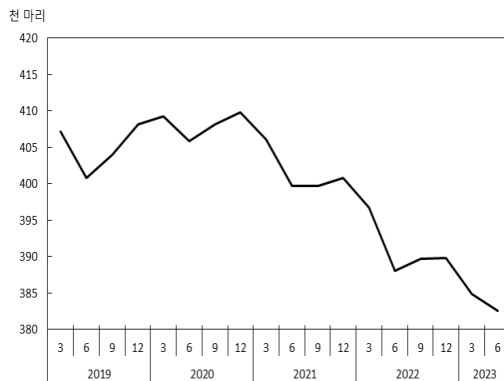
한우 사육 마릿수 및 도매가격 전망

	2022년(A)	2023년	2023년(B)	B/A
사육 마릿수	9월 358만 4천 마리	6월 353만 6천 마리	9월 364만 마리	1.6%
평균 도매가격 (지육kg)	3분기 19,592원	2분기 15,589원	3분기 15,000~16,000원	-23~-18%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한육우 6월호(23.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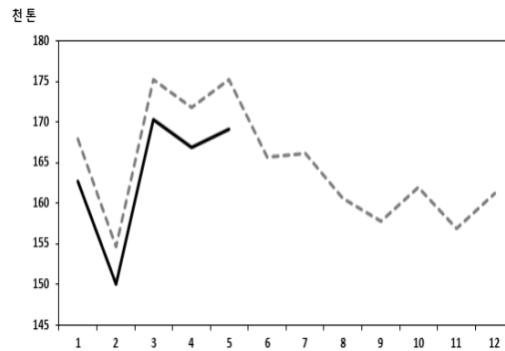
6.2. 젓소

젓소 사육 동향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원유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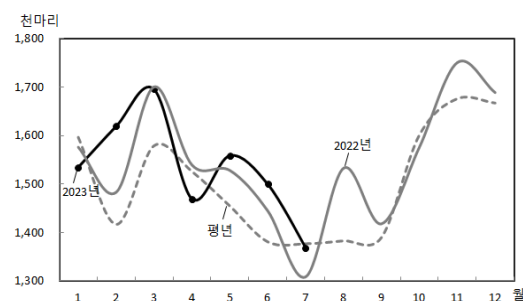


자료: 낙농진흥회

- 2/4분기 동향
 - 2023년 6월 젓소 전체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38만 3천 마리, 착유우 마릿수는 전년 대비 0.2% 감소한 19만 2천 마리
 - 2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3.3% 감소한 49만 6천 톤
- 3/4분기 전망
 - 2023년 9월 젓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1.1% 내외 감소한 38만 4천~38만 7천 마리 전망
 - 3분기 원유 생산량은 고온다습한 기후 전망의 영향으로 젓소 생산성이 하락하여 전년보다 2.4% 내외 감소한 47만 1천~47만 4천 톤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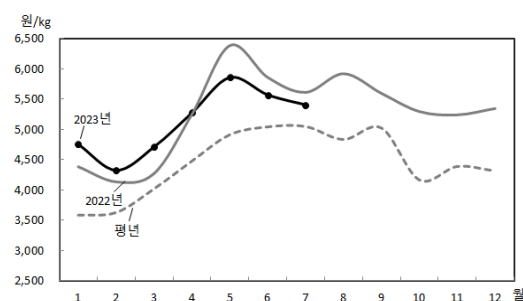
6.3. 돼지

돼지 도축 마릿수 동향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돼지 도매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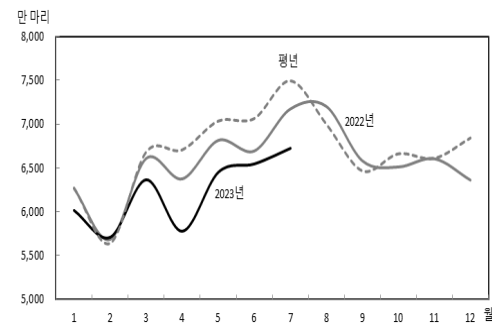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8~2022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4분기 동향
 - 2023년 6월 돼지 전체 사육 마릿수는 자돈(3.2%) 및 육성돈(0.3%)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한 1,203만 2천 마리, 모돈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한 97만 3천 마리(이력제)

- 2/4분기 도축 마릿수는 모든 감소하였으나 PSY 증가로 자돈 사육 마릿수가 증가하여 전년 동기간(452만 3천 마리) 대비 0.4% 증가한 453만 마리
- 2/4분기 재고포함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량 증가 및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영향에 따른 가수요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기간(5,830원) 대비 4.3% 하락한 5,578원/kg
- 3/4분기 전망
 - 3/4분기 도축 마릿수는 모든 감소에도 불구하고, PSY, MSY 등 생산성 향상으로 전년(426만 마리) 대비 0.2% 증가한 427만 마리 전망
 - 3/4분기 도매가격은 재고포함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량 증가로 전년(5,721) 대비 하락한 5,400~5,600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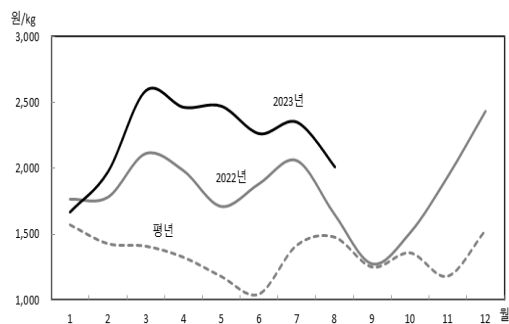
6.4. 육계

육계 도축 마릿수 동향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육계 산지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8~2022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생계유통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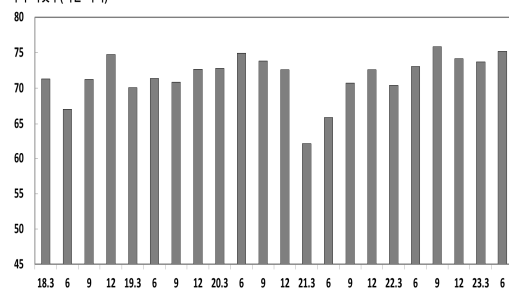
- 2/4분기 동향
 - 2023년 1~3월(말일 기준) 종계 성계의 평균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3.6% 감소한 449만 1천 마리

- 2분기 육계 도축 마릿수는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 감소 및 생산성 하락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한 1억 8천 8백만 마리
- 2분기 평균 생계유통가격은 도축 마릿수 감소로 전년 대비 29.0% 상승한 2,399원/kg
- 3/4분기 동향 및 전망
 - 4~6월(말일 기준) 종계 성계의 평균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0% 감소한 460만 3천 마리 추정
 - 3분기 육계 도축 마릿수는 병아리 입식 마릿수 감소 및 육성률 하락으로 전년 대비 3.3~4.6% 감소한 2억 1백만 마리 내외 전망
 - 7월 생계유통가격은 도축 마릿수 감소로 전년 대비 14.1% 상승한 2,350원/kg, 8~9월 생계유통가격은 도축 마릿수 감소로 전년보다 상승한 2,100~2,300원/kg 전망

6.5. 산란계

산란계 사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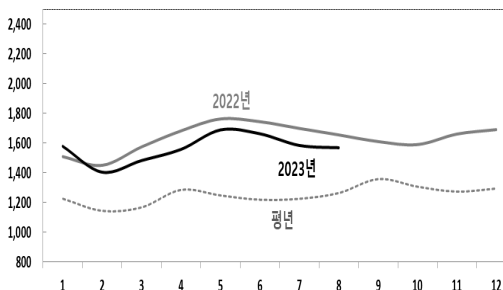
사육 마릿수(백만 마리)



자료: 통계청

계란 산지가격 동향

원/백란 1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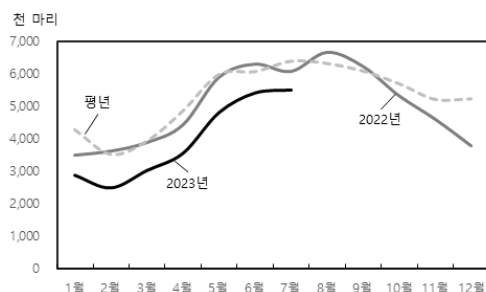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8~2022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2018년 이전), 축산물품질평가원(2019년)

- 2/4분기 동향
 -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9%, 6.6% 증가한 7,519만 마리며, 6개월령 이상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및 평년 대비 6.3%, 5.1% 증가한 5,495만 마리
 - 6월 산란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4%, 8.8% 증가한 23만 톤. 그 중 산란초기 사료는 전년 대비 5.8% 증가, 산란 중기는 0.5% 감소, 산란 말기는 12.4% 증가
 - 2분기 실용계 입식 마릿수는 전년 대비 1.3% 감소했으나 평년 대비 18.4% 증가한 1,356만 마리, 성계 도태 마릿수는 전년 및 평년 대비 11.6%, 4.0% 감소한 772만 마리
 - 4~6월 계란 평균 산지가격은 계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5.4% 하락한 1,636원(특란 10개, 축산물품질평가원)
- 3/4분기 전망
 - 7~9월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닭 마릿수는 도태 마릿수 감소로 전년 대비 2.2% 증가 전망
 - 7~9월 계란 산지가격은 계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1,500~1,600원/특란 10개 전망 (7월: 1,584원/특란 10개, 8~9월: 1,500~1,6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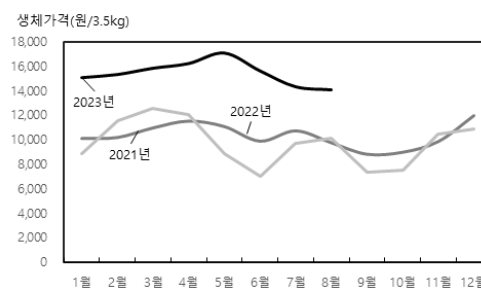
6.6. 오리

오리 도축 마릿수 동향



주: 평년은 2018~2022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오리 산지가격 동향



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2018년 3월부터 오리 산지가격을
공시하고 있으며 평년 자료는 없음.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23년 2/4분기 동향
 - 6월 오리 총 사육 마릿수는 HPAI 발생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한 881만 6천 마리, 육용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9% 감소한 808만 3천 마리, 종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3% 증가한 73만 4천 마리
 - 2분기 오리 도축 마릿수는 사육 마릿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16.7% 감소한 1,380만 6천 마리, 2분기 오리 산지가격은 출하 물량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50.9% 상승한 16,310원/생체3.5kg
- 2023년 3/4분기 전망
 - 3분기 오리 도축 마릿수는 육용오리 사육 마릿수 감소로 전년 대비 감소 전망
 - 7~9월 오리 산지가격은 출하 물량 및 냉동 재고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13,000원/3.5kg 내외 전망

Ⅳ.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 실태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조사 개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외식 부문에서의 농축산물 소비 현황 및 구매 의향을 파악하고자 음식점의 주요 농축산물 소비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음.
- 조사대상 업체는 서울지역의 규모별·업종별 음식점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점업체 330개 패널을 구성함.
 - 유형별로 한식이 45.2%로 가장 많고, 분식 18.2%, 중식 13.0%, 양식 12.7% 등의 순임.
 - 규모별 응답자는 100㎡ 이하인 업소가 73.0%로 가장 많고, 101~300㎡ 이하는 19.4%, 300㎡ 초과는 7.6% 순서로 나타남.
 - 사업유형별 응답자 대부분은 단독개인점포이며, 직원 수는 3명 이하가 79.4%로 가장 많음.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배현정(bhj923@krei.re.kr) 연구원, 이형용 전문위원(lhy2813@krei.re.kr)이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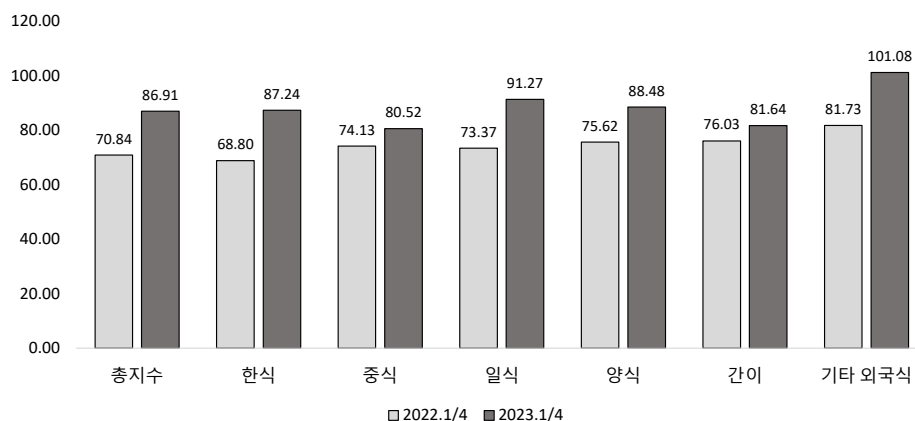
조사 대상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전체		330	100.0
업소 유형	한식	149	45.2
	일식	36	10.9
	양식	42	12.7
	중식	43	13.0
	분식	60	18.2
면적	1~100㎡ 이하	238	72.1
	101~300㎡ 이하	66	20.0
	300㎡ 초과	26	7.9
사업 형태	프랜차이즈 가맹점, 직영점	55	16.7
	단독개인점포	275	83.3
직원 수	1~3명 이하	266	80.6
	4~5명 이하	40	12.1
	6명 이상	24	7.3

2. 음식점업 경기 동향

- 지난 2023년 1/4분기 통계청의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7% 성장함.
 -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인 업종은 한식(26.8%)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일식(24.4%), 기타 외국식(23.7), 양식(17.0%) 등의 순임.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업종별)



주: '간이'는 기타 간이 음식점업을 의미하며, 제과점업, 치킨 전문점,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각 분기),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한 2023년 2/4분기 음식업 경기 동향은 2.98, 매출 동향은 2.9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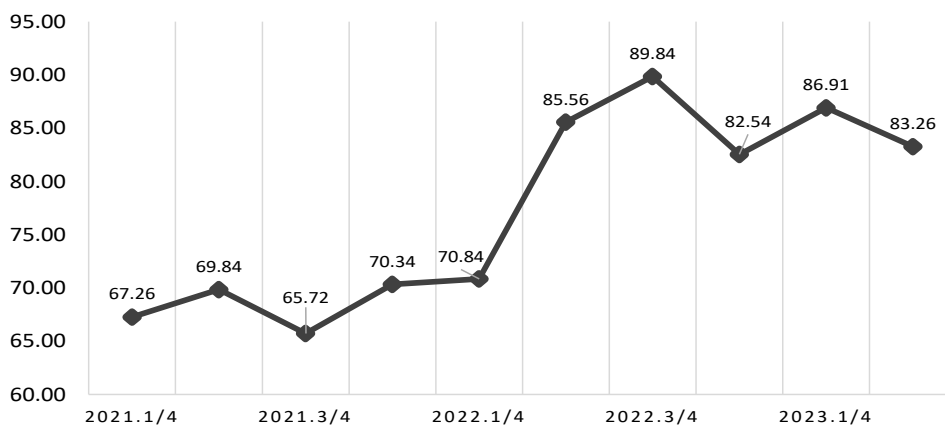
2023년 2/4분기 음식업 동향(5점 척도 기준)

경기 동향	매출 동향
2.98	2.97

주: 음식업 경기동향은 5점 척도 기준으로 5에 가까울수록 경기 상황이 매우 좋으며, 1에 가까울수록 좋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2023년 3차 음식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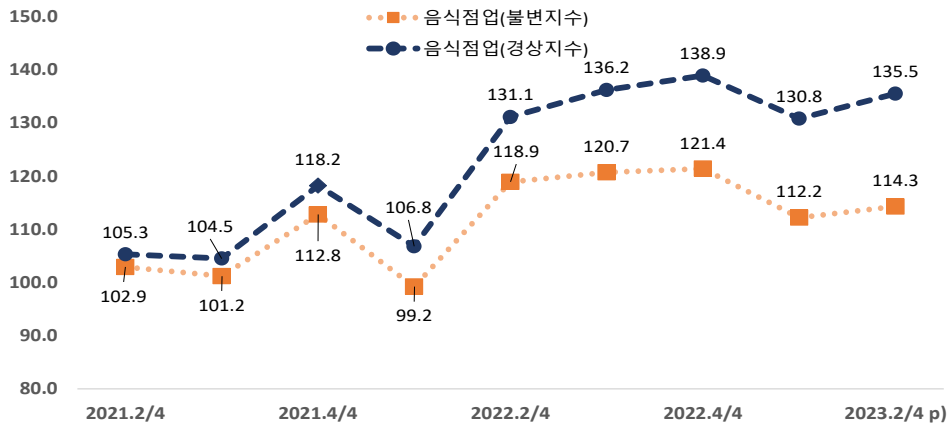
- 통계청의 2023년 2/4분기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는 전 분기 대비 4.2% 감소한 83.26이며, 서비스업생산지수 중 음식점업은 경상지수로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하였으나, 불변지수는 3.9% 하락하였음.
 - 이 중, 한식 음식점업은 전년 동기 대비 3.7%(불변지수) 하락하였으나, 외국식 음식점업은 6.2%(불변지수) 상승하였음.
- 농업관측센터 음식점 조사 결과, 2023년 3/4분기 음식점 예상 매출 지수는 99.56으로, 음식점들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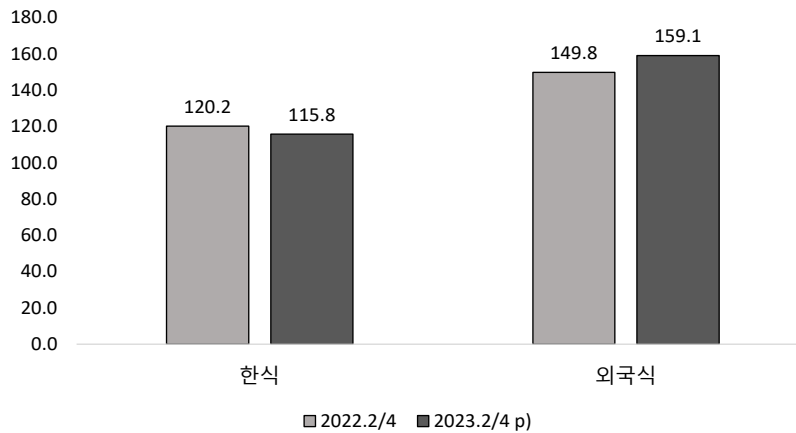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분기),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음식점업)



자료: 통계청(각 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

업종별 서비스업생산지수(음식점업, 불변지수)



자료: 통계청(각 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

3. 2/4분기 주요 농축산물 소비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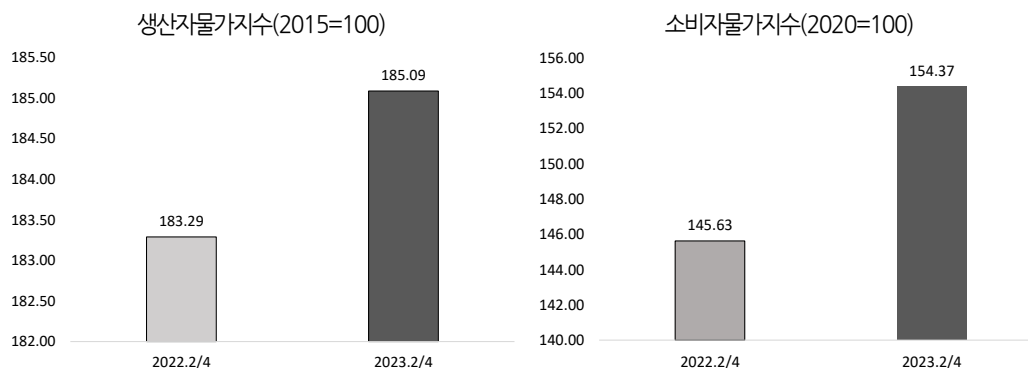
- 2023년 2/4분기 쌀과 감자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4%, 14.8% 감소함.
 - 음식점의 감자 구매량 감소는 산지 저장량 감소 등에 따른 가격 상승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됨.

곡류 품목별 2/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쌀	감자
-0.4	-14.8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2023년 3차 음식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

감자 생산자·소비자물가지수



자료: 통계청(각 분기),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 2023년 2/4분기 엽근채소류, 양념채소류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엽근채소류 중 무와 양배추는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하였고, 당근은 5.1% 증가한 반면, 배추와 배추김치는 각 0.8%, 0.3% 감소함.
 - 양념채소류의 경우, 마늘이 전년 대비 0.6% 감소한 반면, 대파는 3.6%, 중

가하였으며, 양파는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함.

- 당근과 대파는 외국식 음식점업에서 구매량이 증가하였음.
- 건고추는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구매량이 감소하였으나, 고춧가루는 소폭 증가하였음.

채소류 품목별 2/4분기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엽근채소	증감률	양념채소	증감률
배추	-0.8	건고추	-26.2
배추김치	-0.3	고춧가루	0.7
무	0.1	마늘	-0.6
당근	5.1	양파	0.0
양배추	0.1	대파	3.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2023년 3차 음식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

- 2023년 2/4분기 배추김치를 직접 제조하는 비율은 24.7%였으나, 완제품을 구매하는 비율은 55.9%로 완제품 구매 비율이 더 높음.
 - 배추김치 완제품을 구매하는 비중은 2021년 2/4분기에는 54.4%, 2022년 2/4분기에는 55.2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배추김치의 중국산 비중은 2022년 2/4분기 72.8%에서 2023년 2/4분기에는 74.7%로 증가함.

2023년 2/4분기 배추김치 구매 유형별 비율

단위: %

직접 제조	완제품 구매	무응답
24.7	55.9	19.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2023년 3차 음식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

배추김치 중국산 비중

단위: %

2022년 2/4분기	2022년 4/4분기	2023년 2/4분기
72.8	73.5	74.7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2023년 3차 음식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

- 2023년 2/4분기 주요 과채류 월평균 구매량은 모든 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
 - 애호박, 오이, 풋고추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9%, 11.3%, 7.3% 감소함.
 - 주요 과채류는 기상 여건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구매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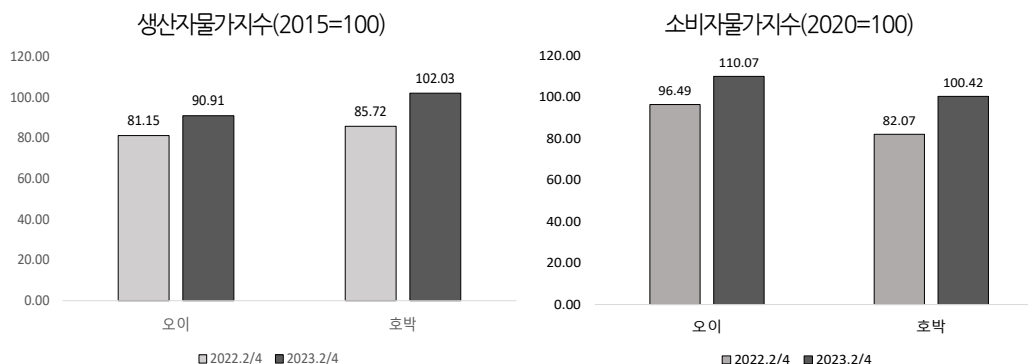
과채류 품목별 2/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풋고추	오이	애호박
-7.3	-11.3	-17.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2023년 3차 음식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

주요 과채류 생산자·소비자물가지수



자료: 통계청(각 분기),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 2023년 2/4분기 축산물의 월평균 구매량은 대부분 품목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
 - 계란, 쇠고기, 돼지고기는 외국식 음식점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6%, 6.1%, 1.9% 증가하였음.
 - 닭고기, 오리고기는 각각 4.1%, 0.2%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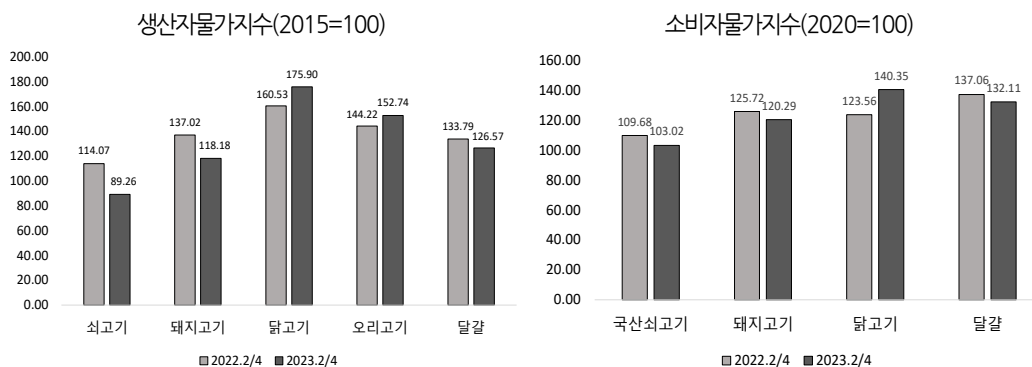
축산물 품목별 2/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6.1	1.9	-4.1	-0.2	7.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2023년 3차 음식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

축산물 품목별 생산자·소비자물가지수



자료: 통계청(각 분기),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 2023년 2/4분기 축산물 주요 품목의 원산지별 구매 비중을 조사한 결과,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국내산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고, 닭고기는 감소하였음.
 - 쇠고기의 국내산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7.7%p 증가하였으며, 한우의 공급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 돼지고기는 국내산 공급량 증가로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음.
 - 닭고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국내산 비중은 4.1%p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내산 공급량 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축산물 품목별 원산지 구매 비중

단위: %

구분	2022년 2/4분기					2023년 2/4분기				
쇠고기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8.1		74.1		17.8	15.8		66.9		17.3
돼지고기	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	뉴질랜드산	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	뉴질랜드산
	64.4	10.8	6.4	12.0	4.0	68.4	11.9	5.2	9.6	1.4
닭고기	국내산		미국산	브라질산		기타	국내산		미국산	브라질산
	84.0		7.3	7.6		1.1	79.9		4.5	13.9
오리고기	국내산			프랑스산		국내산			프랑스산	
	100.0			0.0		100.0			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2023년 3차 음식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

4. 3/4분기 주요 농축산물 예상 구매량

- 2023년 3/4분기 쌀의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22년 3/4분기) 대비 0.9%, 감자는 15.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곡류 품목별 3/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쌀	감자
-0.9	-15.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2023년 3차 음식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

- 음식점의 2023년 3/4분기 채소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엽근채소의 3/4분기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당근(5.7%)을 제외한 품목 대부분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양념채소의 3/4분기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건고추와 마늘, 양파가 각각 26.2%, 1.3%, 0.3% 감소, 대파와 고춧가루는 각각 3.6%, 0.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채소류 품목별 3/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엽근채소	증감률	양념채소	증감률
배추	-1.2	건고추	-26.2
배추김치	-0.5	고춧가루	0.9
무	-0.2	마늘	-1.3
당근	5.7	양파	-0.3
양배추	0.1	대파	3.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2023년 3차 음식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

- 2023년 3/4분기 주요 과채류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주요 과채류는 3분기에 가격 하락이 전망되어, 음식점업의 예상 구매량 감소폭을 상쇄시킬 가능성도 존재함.

과채류 품목별 3/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풋고추	오이	애호박
-7.4	-11.3	-17.8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2023년 3차 음식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

- 2023년 3/4분기 주요 축산물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대부분 축종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3/4분기 축종별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계란(7.4%)과 쇠고기(7.3%)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각각 4.3%,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축산물 품목별 3/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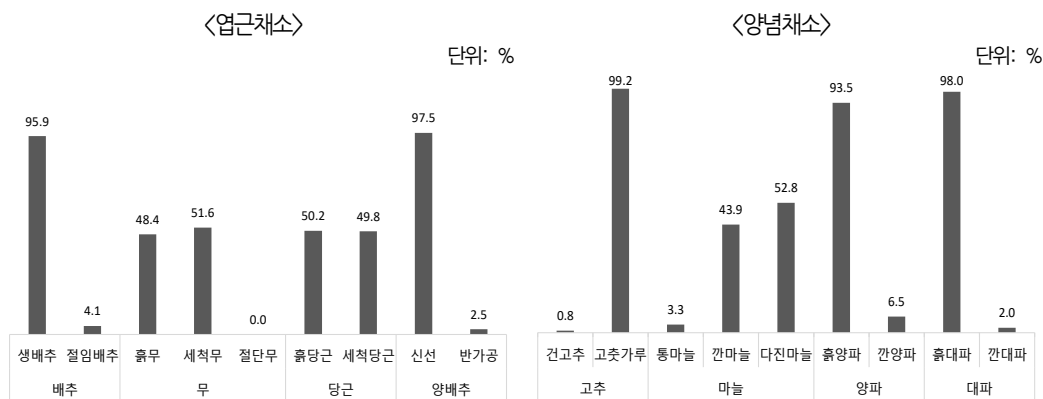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7.3	2.2	-4.3	-0.2	7.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2023년 3차 음식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

5. 채소류 구매 형태

- 음식점업체가 원물 형태로의 구매를 선호하는 품목은 대파(98.0%), 양배추(97.5%), 배추(95.9%), 양파(93.5%) 순으로 조사됨. 반면, 고추, 마늘, 무는 주로 원물 형태보다 세척하거나 분쇄 과정을 거친 1차 가공 형태의 구매를 선호하고 있음.

채소류 품목별 구매 형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2023년 3차 음식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



특별주제

- ① 국내 푸드테크 활용 실태와 발전 과제
- ② 기능성 표시식품 시장 실태와 소비자 인식

국내 푸드테크 활용 실태와 발전 과제1)

송성환*, 홍연아**, 김병률***

1. 푸드테크 시장 동향

- 푸드테크는 식품과 기술의 융합 분야로서, 인류 먹거리 식품 관련 식재료인 농림축산물의 생산공급, 식품 제조, 가공, 조리, 유통, 판매, 배달, 소비에 이르는 밸류체인(Farm to Fork) 전 분야에 IoT, AI, 3D프린팅, BT, 로봇틱스 등 ICT 혁신기술을 접목하여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분야임. 특히, 푸드테크는 2015년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하여 스타트업에 대한 세계적인 투자가 급증하고 있음.
- 닷케이BP종합연구소 등 시장조사 기관들은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 규모가 연평균 6~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25에는 북미 시장 규모가 1,110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30.8%, 유럽 950억 달러(26.4%), 아시아·태평양 900억 달러(25.0%), 기타 640억 달러(17.8%)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함(닛케이BP종합연구소, 2018).
- 2020년 기준 국내 푸드테크 시장 규모도 약 61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7년에서 2020년 간 매년 3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국내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됨(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 12. 14.).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 트렌드와 미래전망”(2023)을 기반으로 작성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song9370@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yeonahong@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brkim@krei.re.kr)

- 향후 국내외 푸드테크 시장은 스마트팜 및 식물공장의 정밀농업 시스템과 수확 로봇, 단백질 대체식품, 식품 제조 및 조리/서빙 부문의 로봇, 판매 무인화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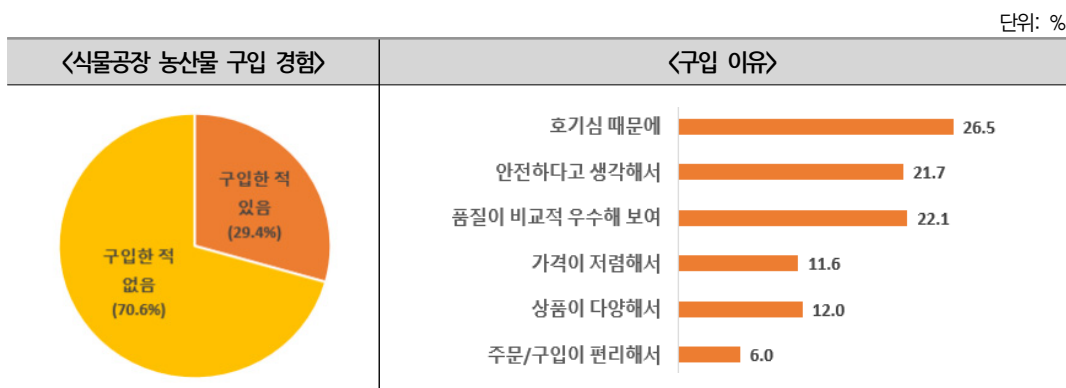
2. 푸드테크 관련 인식 및 활용 실태

2.1. 소비자 인식 및 사용 실태

2.1.1. 식물공장 농산물

-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²⁾, 응답자의 56.4%(282명)가 식물공장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 중 식물공장 농산물 구입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9.4%(83명)의 가장 큰 구입이유는 ‘호기심 때문(26.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질이 비교적 우수해 보여서(22.1%)’, ‘안전하다고 생각해서(21.7%)’가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식물공장 농산물 구입 경험 및 구입 이유(1+2순위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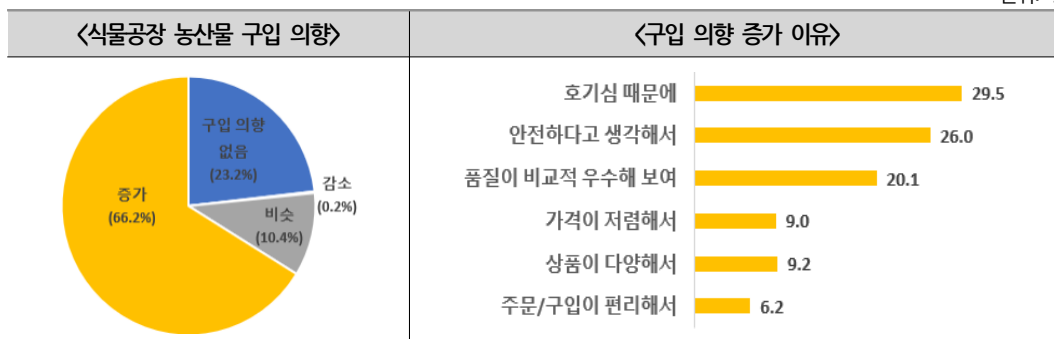
주: 사례 수=500명.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2022. 12. 14.~12. 23.).

2) 소비자의 푸드테크 산업 부문별 인식 및 사용 의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14일부터 2022년 12월 23일까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에 참여한 소비자 중 식물공장 농산물 구매 의향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6.2%로 높게 나타남. 구매 의향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호기심 때문(29.5%)’이었으며, 다음으로 식물공장 농산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26.0%)’이었음.
- 응답자의 대다수(77.4%)가 식물공장 기술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이 필요하(매우 필요+필요)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식물공장 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재배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하여(토지, 온실가스 등)(46.0%)’로 나타났으며, ‘충분한 식량 생산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27.1%)’가 2순위를 차지함.

식물공장 농산물 구입 의향 및 의향 증가 이유(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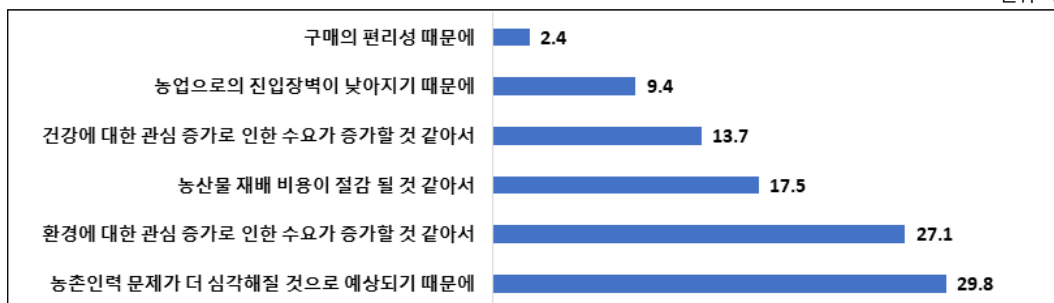


주: 사례 수=500명.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2022. 12. 14.~12. 23.).

- 소비자에게 국내 식물공장 시장 성장 예측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성장한다(매우 성장+성장하는 편)고 응답한 비율이 76.4%를 차지함. 시장 성장을 전망한 가장 큰 이유는 ‘농촌인력 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29.8%)’였으며,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한 수요가 증가할 것 같아서(27.1%)’가 2순위를 차지함.

국내 식물공장 시장 성장 전망 이유(1+2순위)

단위: %



주: 사례 수=382명.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2022. 12. 14.~1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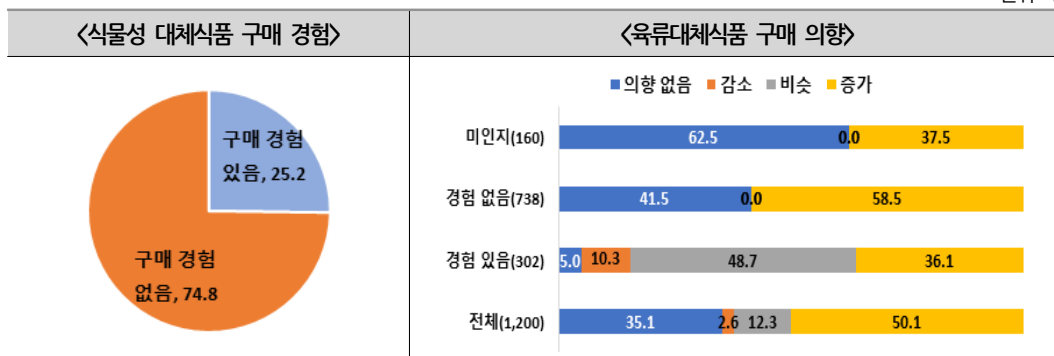
2.1.2. 대체식품³⁾

- 홍연아 외(2022)의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구매경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200명 중 25.2%(302명)가 식물성 대체식품 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식물성 대체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가장 큰 구매 이유는 ‘맛이 궁금해서’가 35.7%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상의 이유(28.3%)’,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해서(16.0%)’ 순으로 나타남.
- 식물성 대체식품 구매 의향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소비자 비율은 50.1%를 차지했으며, 이전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48.7%가 구매 의향이 이전과 비슷하다고 응답, 36.1%가 증가했다고 응답함. 이를 통해 향후 식물성 대체식품의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식물성 대체식품 구매 의향이 증가한 이유 비율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가 39.3%로 가장 컸으며, ‘건강상의 이유’가 30.7%로 2순위를 차지함.

3) 홍연아 외(2022)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재작성함.

식물성 대체식품 구매 경험 및 구매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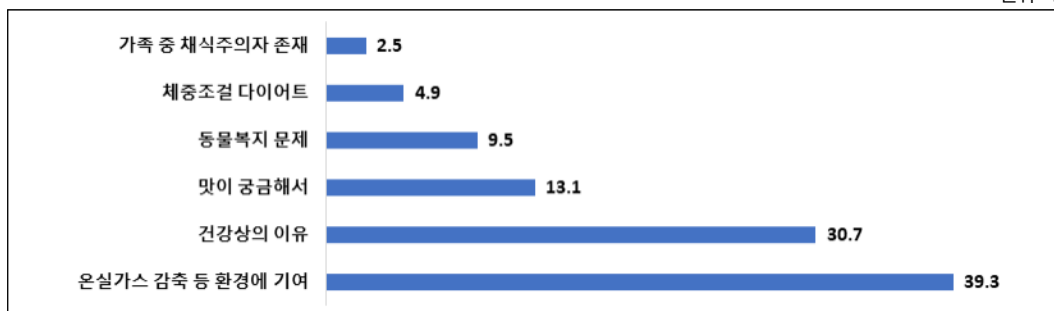
단위: %



주: 사례 수=1,200명.
자료: 홍연아 외(2022).

육류대체식품 구매 의향 증가 이유(1순위)

단위: %



주: 사례 수=687명.
자료: 홍연아 외(2022).

2.1.3. 유통 및 소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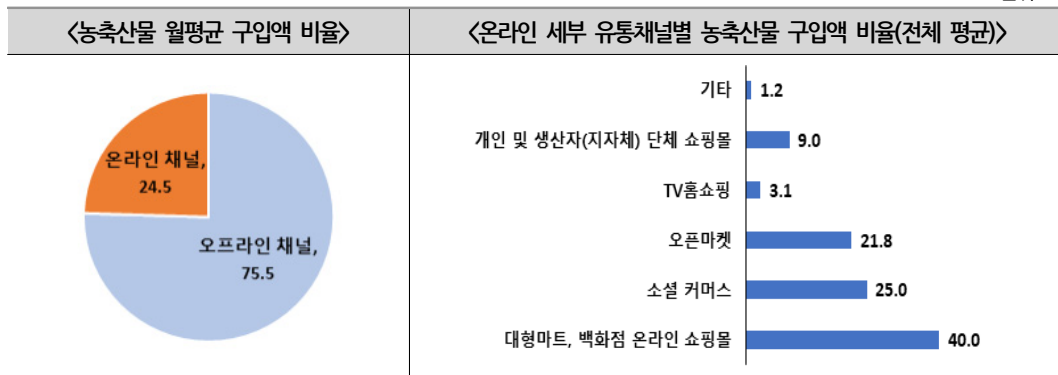
- 김성우 외(2022)의 소비자 온라인 유통채널 이용 조사에 따르면, 가구의 전체 농축산물 월평균 구매액은 약 37만 8천 원이며, 이중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구매액이 약 28만 6천 원(75.5%), 온라인 채널을 통한 구매액은 약 9만 3천 원(24.5%)으로 나타남.

4) 김성우 외(2022)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재작성함.

- 가구의 농축산물 구매 시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구매액 비율이 가장 큰 채널은 ‘대형마트 및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40.0%)’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셜 커머스(25.0%)’, ‘오픈마켓(21.8%)’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남.

채널별 농축산물 월평균 구입액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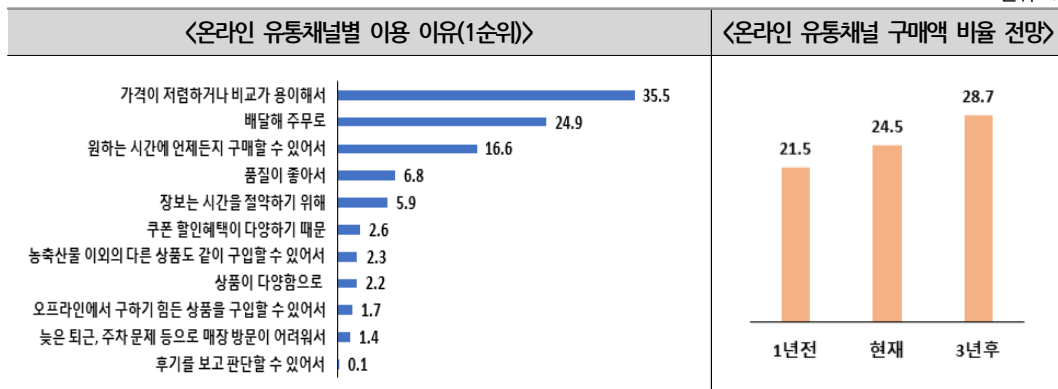
단위: %



주: 사례 수=1,000명.
자료: 김성우 외(2022).

온라인 유통채널별 이용 이유(1순위)와 구매액 비율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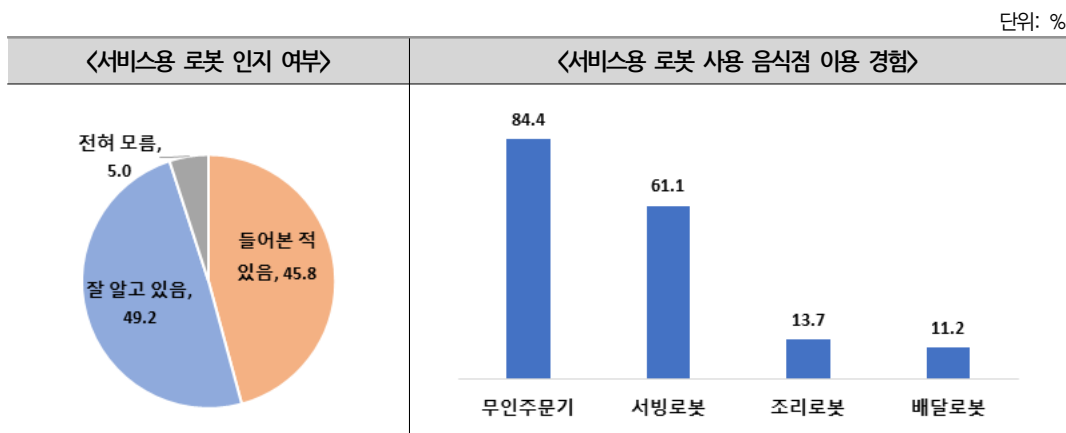
주 1)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구매액이 있는 가구(724) 가구 내 식품 주구입자 대상 조사 결과임.
2) 구매액 비율 전망은 가구의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1년 전 구입액 비율과 3년 후 구입액 비율 전망 설문 결과를 이용하여 작성함.
자료: 김성우 외(2022).

- 가구가 농축산물 구매 시 온라인 유통채널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거나 비교가 용이해서(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배달해 주므로(24.9%)’가 2순위를 차지함. 또한 대부분 가구 내 식품구매의 온라인 유통채널 이용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농축산물 구매 비율은 향후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2.1.4. 외식부문 서비스용 로봇

- 소비자 설문조사 응답자(500명) 중 45.8%(229명)가 서비스용 로봇을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49.2%(246명)를 차지하여 이미 대부분의 소비자가 서비스용 로봇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용 로봇을 사용하는 음식점을 이용해 본 경험에 대해서는 무인주문기가 8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빙로봇이 61.1%, 조리로봇 13.7%, 배달로봇 11.2%의 순으로 나타남.

서비스용 로봇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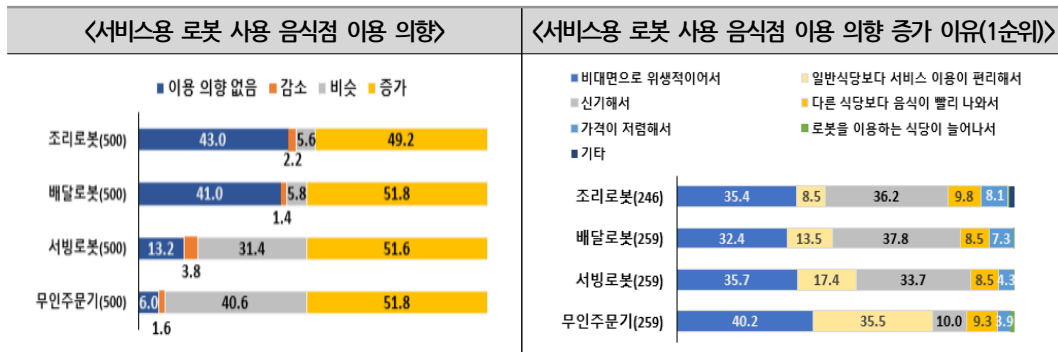


주: 사례 수=500명.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2022. 12. 14.~12. 23.).

- 서비스용 로봇 사용 음식점 이용 의향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과반수였으나(49.2~51.8%), 배달로봇과 조리로봇의 경우 ‘이용 의향 없음’ 역시 각각 41.0%, 43.0%의 비율을 차지하여 양극화된 이용 의향이 나타남.
- 서비스용 로봇 사용 음식점 이용 의향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무인주문기와 서빙로봇의 경우 ‘비대면으로 위생적이어서’였으며, 배달로봇과 조리로봇은 ‘신기해서’가 각각 37.8%, 36.2% 비율을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남.

서비스용 로봇 사용 음식점 이용 의향 및 증가 이유

단위: %



주: 사례 수=5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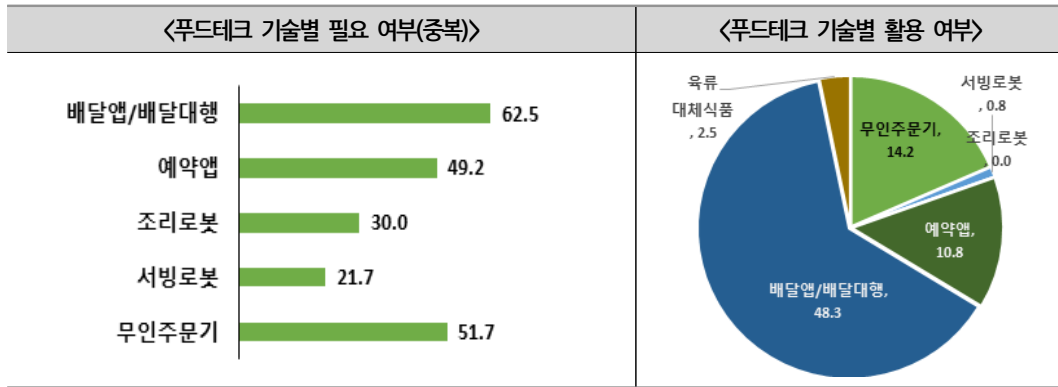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2022. 12. 14.~12. 23.).

2.2. 외식업체 활용 실태

- 외식업체(120개) 조사결과, 62.5%(75개)가 푸드테크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푸드테크 활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배달앱/배달대행’이 62.5%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인주문기’ 51.7%, ‘예약앱’ 49.2%, ‘조리로봇’ 30.0%, ‘서빙로봇’ 21.7%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활용 여부에 있어서는 ‘배달앱/배달대행’이 48.3%, ‘무인주문기’ 14.2%, ‘예약앱’ 10.8%로 조사되어 필요성에 비해 실제 활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푸드테크 기술별 필요 및 활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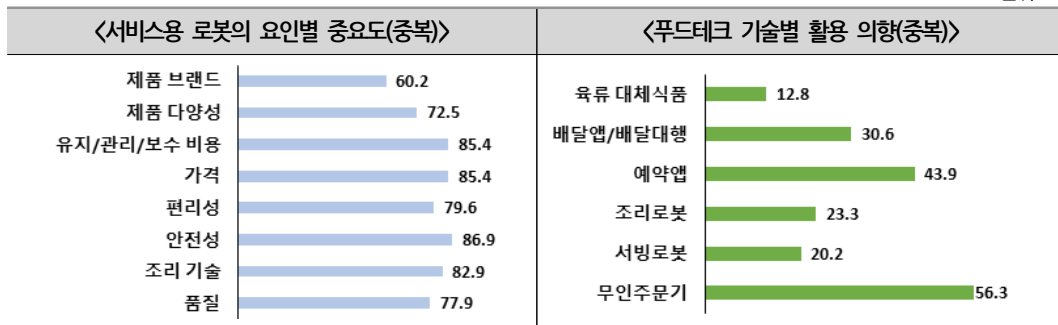
단위: %



주: 사례 수=120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식업체 조사(2022. 12. 14.~12. 23.).

서비스용 로봇의 요인별 중요도 및 푸드테크 기술별 활용 의향

단위: %



주 1) 사례 수=120개.
2) 중요도 점수는 5점 척도를 100점으로 환산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식업체 조사(2022. 12. 14.~12. 23.).

- 서비스용 로봇에 대한 요인별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안전성’이 86.9%로 가장 높았으며, ‘가격’, ‘유지/관리/보수 비용’ 등 금전적 측면이 85.4%, ‘조리 기술’이 82.9%의 순으로 나타남.
- 푸드테크 활용 의향은 ‘무인주문기’가 56.3%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약앱’ 43.9%, ‘배달앱/배달대행’ 30.6%, ‘조리로봇’ 23.3%, ‘서빙로봇’ 20.2%, ‘육류 대체식품’ 12.8%의 순으로 나타남.

3. 푸드테크 확산 및 영향 전망

3.1. 국내 푸드테크 진단

- 국내 식품, 외식,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FGI 결과, 모든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푸드테크 분야 기술의 선진국으로 선택하였으며, 특히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생명공학(BT)의 영역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푸드테크 기술별 선진 기술 보유국 평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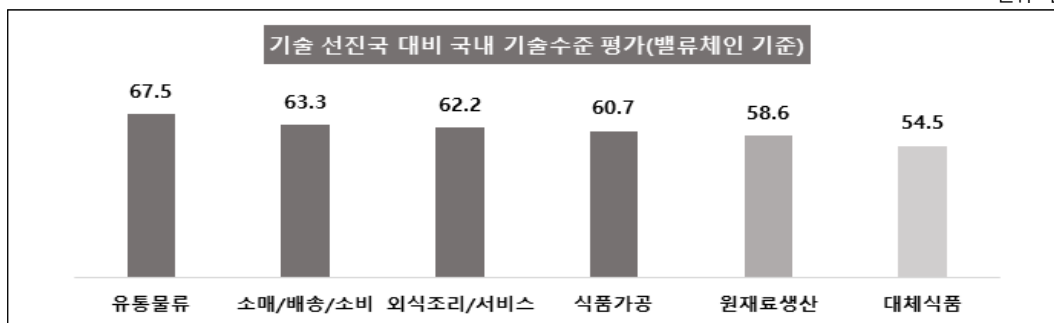
IoT	빅데이터	3D프린팅	블록체인	로봇틱스	인공지능(AI)	생명공학(BT)
미국 (6)	미국 (7) EU (1)	미국 (4) 이스라엘 (3) 네덜란드 (2) 독일 (1) EU (1)	미국 (4) 중국 (1)	미국 (3) 일본 (2) 중국 (1)	미국 (6)	미국 (7) 네덜란드 (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FGI 조사(2022. 12. 15.~12. 16.).

- 푸드테크 산업에서의 관련 기술 수준 및 활용 수준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유통/물류, 소매/배송/소비, 외식조리/서비스 부문에서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음. 그러나 푸드테크 밸류 체인의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원재료 생산, 대체 식품 부문에서는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및 활용 수준이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선진 기술 대비 국내 기술 수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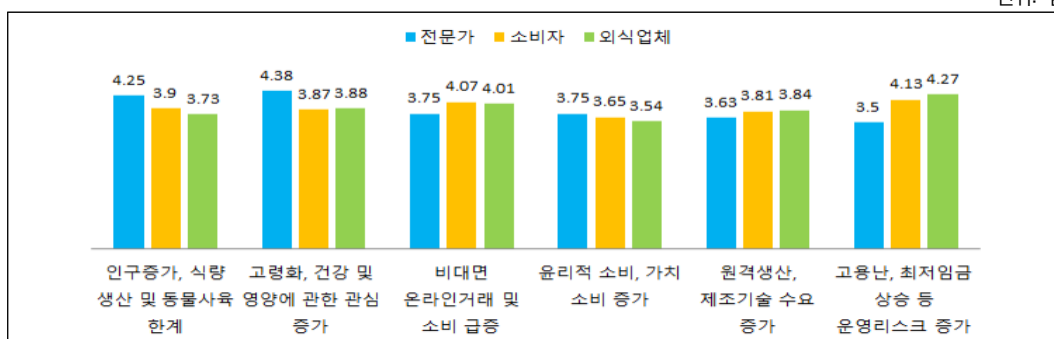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FGI 조사(2022. 12. 15.~12. 16.).

3.2. 사회 이슈별 푸드테크 영향

- 분야별 푸드테크 전문가들은 푸드테크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회 이슈로는 ‘고령화, 건강(영양)에 관한 관심 증가(4.38점)’를 꼽았으며, ‘인구의 변화와 식량 생산, 동물사육의 한계(4.25점)’ 또한 매우 높은 영향을 주는 이슈로 평가하였음.

사회 이슈별 푸드테크 영향 수준(전문가, 소비자, 외식업체)

단위: 점



주: 중요도는 1점부터 5점까지 부여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높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FGI 조사(2022.12.15.~12. 16.), 소비자 조사(2022.12.14.~12. 23.), 외식업체 조사(2022.12.14.~12. 25.).

- 푸드테크 산업에 영향을 주는 트렌드에 대한 전문가와 소비자 및 외식업체의 의견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남.
 - 소비자 및 외식업체는 ‘고용난, 최저임금 상승 등 운영리스크 증가(소비자 4.13점, 외식업체 4.27점)’를 1순위로, ‘비대면 온라인 거래 및 소비급증(소비자 4.07점, 외식업체 4.01점)’을 2순위로 꼽았음.

3.3. 국내 푸드테크 확산으로 인한 영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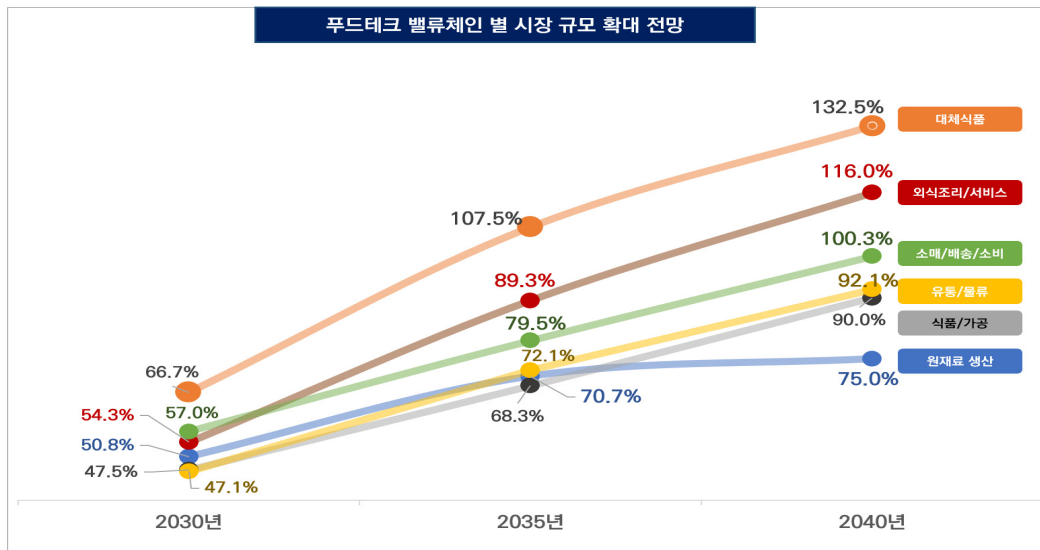
- 전문가들은 푸드테크 생태계 형성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인프라⁵⁾가 구축되는 분야는 소매/배송/소비 부문으로, 2030년에는 인프라 구축 수준이 80%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함.
 - 소매/배송/소비 부문의 경우 현재의 인프라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40년에 이르면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프라 구축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였음.
- 유통/물류 부문과 외식조리/서비스 부문, 식품/가공 분야는 2030년에 이르러 70% 가까운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2040년에는 90% 가까운 수준으로 인프라 구축이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 다만 신기술 기반의 원재료 생산과 대체식품 분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밸류체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인프라 구축 속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 전문가 조사결과, 2040년에는 푸드테크 시장 규모 현재보다 약 1.8~2.3배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그중 대체식품 분야의 성장세가 가장 클 것으로 평가하였음.⁶⁾

5) 푸드테크 관련 정부의 산업 지원 시스템이 갖춰지고 기술개발/이전 체계 정립, 관련 규제/제도 등의 정비되는 수준을 의미함.

6) 향후 시장 전망 수치는 전문가 중 가장 높게 예측한 성장세와 가장 낮게 예측한 성장세 수치를 제외한 나머지 예

- 외식조리/서비스 부문에서는 2040년 현재의 약 2.2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대체식품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는 분야로 평가되었음.

시장규모 확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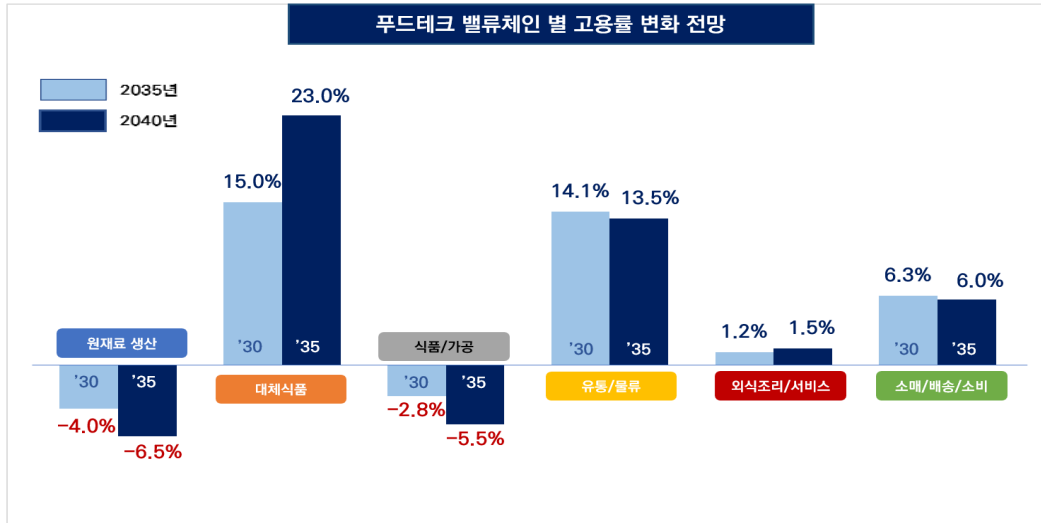


주: 연도별 시장규모 증가는 현재 시장규모 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FGI 조사(2022. 12. 15.~12. 16.).

- 전문가들은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이 성공적으로 확산된다고 전제했을 때, 이전 10년과 비교하여 대체식품, 유통/물류, 외식/조리서비스, 소매/배송/소비 네 개 분야는 고용률이 증가하고, 원재료 생산 및 식품/가공 두 개 분야는 고용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반면 원재료 생산의 경우, 기술 확산을 통해 생산성을 증가시키면서 고용 측면에서는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어 2035년에는 현재 고용 수준 대비 6.5%의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었음. 식품/가공 부문 역시 기술 확산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면서 고용 부문에서는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음.

축한 값을 기준으로 도출한 값임.

고용률 변화 전망



주: 각 고용률 변화는 현재 고용 수준 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FGI 조사(2022.12.15.~12. 16.).

4. 푸드테크 발전 과제

4.1. 푸드테크 관련 규제 개선

- 푸드테크 각 분야에서 규제 개선 및 완화, 규제 공백 해결, 명확한 지침 정리 등에 대한 관련 업계의 요구가 큰 상황임. 규제 개선의 범위 또한 국제 표준에 맞는 기준/규정 재정비, 산업 안전, 부동산 활용 등 매우 포괄적이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범부처 간 협조가 중요함.

4.1.1. 식물공장⁷⁾

- 관행농업은 농지를 중심으로 한 평면적인 공간 위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관련된 법령 역시 이에 따라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스마트농업에서는 수직형농장(식물공장 등) 등과 같은 입체적인 공장을 이용한 방식이 시도되고 있어 입지 측면에서 새로운 지침이 필요한 상황임.
- 현재 일부 건축물에서는 소규모 수직형 농장시설을 두고 있지만, 대규모 수직형 농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내지는 가설건축물 등을 필요로 하는 구조임. 하지만 현재 대체로 농업용지에서는 이와 같은 건축물 등의 설치가 제한되고있는 실정임.⁸⁾
 - 농공단지 내 수직형 농장 설치에 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목에서 농공단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

7) 박훈민(2021)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재작성함.

8) 농지법(법률 제18401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36조. 검색일: 2023. 2. 1.(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 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라고 규정한것 외에 별다른 정의가 없어 현행 법령에 따라서 수직형 농장의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⁹⁾

- 이에 따라 국내 수직형 농장(식물공장) 설치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 간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며, 스마트 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입지의 범위, 시설의 규모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음.

4.1.2. 대체식품¹⁰⁾

- 국내에서 식물성 대체식품이 일부 생산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아직 식물성 대체식품 유형이 구분 되어있지 않아 국내 생산·판매액, 수입·수출액을 알기 어려운 상황임.
- 대체식품의 기준 마련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1) 식물성 단백질 대체식품 등의 새로운 식품유형(육류대체식품, 식물성 대체식품) 신설 및 원료의 특징, 생산 방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 및 규격 마련, 2) 비건(Vegan) 및 대체육, 배양육 등 단백질 대체식품 표시기준, 표시·광고의 세부기준 등 명확한 규정 마련, 3) 식물성 단백질 대체식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마련 등이 있음.
- 국내 식품업계 중심으로 배양육 등 신소재 식품개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까지 배양육과 관련된 법규와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
- 배양육 제품개발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으로는 1) 배양육 정의, 해당 식품유형 신설, 원재료 및 제조·가공기준 등 관련 법규제정 및 배양육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2) 배양육 제조 배지 원료 중(혈청 원료 제외) 안전성 확보된 의약품 원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조 제8호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3. 2. 1.

10) 홍연아 외(2021)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재작성함.

료 식품용으로 일부 사용 허가, 3) 신기술 적용한 새로운 식품에 맞는 과학적 안전성 평가 기준과 신속한 인정심사 체계 마련 등이 있음.

4.1.3. 물류/유통(온라인 플랫폼 등)

- 정부는 최근 국내 플랫폼 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규제 필요와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대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자율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으로,¹¹⁾ 해당 규제에 관한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4.1.4. 외식서비스(배달로봇)¹²⁾

- 푸드테크 로봇 중 규제 이슈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문은 배달로봇임.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으로 인해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인도, 횡단보도 등을 이용 불가하고, 규제 샌드박스로 시범운영 되는 배달로봇도 대부분 동행자가 있어야 운행 가능함.
- 국내에서 시범적으로 배달로봇을 운영하는 기업은 전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경우이며, 샌드박스 특구 내에서만 제한적인 운행이 가능함.

11) 뉴시스. (2022. 12. 22.). “뉴시스 포럼: 한기정 “카카오 독과점 사태에도 자율규제 기조 변함없어”

12) 삼일PwC경영연구원(2022)의 일부 내용을 요약 정리 재작성함.

- 2021년 4월 정부는 ‘2021년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배달로봇의 도보 이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실내 배달 로봇의 승강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승강기 안전기준이 개정되기도 하였음. 그러나 배달 로봇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공원녹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물류신문, 2023. 3. 6.).

4.2. 푸드테크 진흥을 위한 지원

- 국내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로봇, 대체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생산성 높이기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대표적으로, 푸드테크 원천기술 및 소재 개발을 위한 스타트업 대상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금융 및 투자 인프라 조성, 선제적 규제 개선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필요함.
- 소비자 조사 결과, 응답자의 65% 이상이 푸드테크 기술 진흥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기술개발 연구사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된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푸드테크 기술 진흥을 위한 대안/정책 중요도(평균 요약)

단위: 점

구분	신기술 도입 및 적용을 위한 규제 개선	초기 투자비 지원	기업 지원	산업화 및 수출 지원	기술개발 연구사업 지원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식물공장	3.94	3.97	3.86	3.89	4.07	4.00
서비스용 로봇	3.77	3.71	3.76	3.75	3.93	3.86

주 1) 사례 수 = 500명.

2) 5점 만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2022. 12. 14.~12. 23.).

푸드테크 진흥을 위한 정책수요(전문가 의견)

1	“ 푸드테크는 유망한 신산업 분야이며,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활한 생태계 구축이 잘 되고 있지 못함. 따라서 현장 수요 분석, 공급 분야 분석, 소비 분야 분석을 위한 코어 플랫폼이 필요함. ”
2	“ 푸드테크 유망 기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통한 혁신기업을 향하는 지원 사업을 전개해야 하며 핵심 분야 및 기초 기술에 대한 R&D 추진, 명확한 산업분류, 관련 규정 정비 가 필요한 시기임. ”
3	“ 일부 추진되고 있는 과제들은 있으나 각 기술을 관장하는 기관(ex 로봇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에서 푸드테크와 연계된 과제 확대해야 함. ”
4	“ 푸드테크 분야 융합형 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기술 기반 산업화 촉진 및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함. 또한, 장비·시설·정보 공동이용 플랫폼 등 여건을 확충하고 수출(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해야 함. ”
5	“ 푸드테크 산업 진흥법 제정 및 푸드테크산업청이 신설되어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FACCP 인증제도 도입하여 (푸드테크 전용 인증제) 시장 활성화를 이루어야 함.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FGI 조사(2022. 12. 15.~12. 16.).

- 전문가 FGI 조사 결과에서도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체계 구축이 매우 필요하며, R&D 추진, 관련 규정 정비 및 지원 기관 지정, 전문 인력 양성 등이 제안되었음.
- 푸드테크가 고성장이 전망되는 새로운 산업 분야인 만큼 국내 푸드테크 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기술 개발 투자 확대, 전문 인력 양성 등 진흥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음.
- 푸드테크 관련 산업의 보다 집중적인 육성·지원을 위해서는 기존의 식품산업 진흥법의 일부를 개정하기보다는, 푸드테크 산업의 기술 융·복합적인 특성 반영, 통계체계 구축 등 향후 지원관리체계 마련과 같은 다양한 쟁점별 정책 추진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새로운 법 제정 추진이 필요해 보임.
 - 정부는 2022년 12월 발표된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에서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푸드테크 산업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푸드테크 관련 각종 기준과 제도 등을 정비할 계획을 밝힘.

기능성 표시식품 시장 실태와 소비자 인식¹⁾

최윤영*

1.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는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농림축산식품부, 2021).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에만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였으나 2020년 12월 29일 제도의 도입으로 일반식품에도 확대 적용됨.

1.1. 기능성 표시식품 vs. 건강기능식품

-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고시형 기능성 원료 29가지를 사용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관 부처라는 점에서 유사해 보이나 서로 다른 유형의 식품임.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하며²⁾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음.
 - 기능성 표시식품은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제품에는 XX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YY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문구와 함께 건강기능식품과 구분을 위해 “본 제품은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현황과 시사점”(2022. 12.)을 기반으로 작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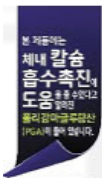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c2y1205@krei.re.kr)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4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3조. 검색일: 2022. 8. 10.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가 표시되어 있음.³⁾

- 기능성 표시식품은 기능성 원료의 함유량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1일 섭취 기준량의 30% 이상이면 됨(농림축산식품부, 2021). 식품의 제형도 건강기능식품은 주로 액상, 환, 캡슐, 과립, 분말 등의 형태이나 기능성 표시식품은 일상에서 섭취하는 일반식품의 형태임.

기능성 표시식품 vs. 건강기능식품

구분	기능성 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
정의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과학적 근거를 갖추어 제품에 기능성 표시가 허용된 일반식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여 액상, 환, 캡슐, 과립, 분말 등의 형태로 제조 가공한 것으로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증받은(건강기능식품 마크를 받은) 식품
관련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기능성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용한 기능성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용한 기능성 원료
기능성 원료 함유량	건강기능식품 1일 섭취 기준량의 30% 이상 최대수준 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29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의 제4조 제1항 [별표 2]를 따른 1일 섭취 기준량
형태	일반식품	액상, 환, 캡슐, 과립, 분말 등 일반식품 및 의약품
표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영양성분기능표시 생리기능향상표시	영양성분기능표시, 생리기능향상표시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

자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4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3조. 검색일: 2022. 8. 10.; 농림축산식품부(2021).

3) 식품위생법(법률 제18445호, 2021. 8. 17., 타법개정). 검색일: 2022. 12. 6.;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67호, 2019. 7. 30., 제정). 검색일: 2022. 12. 6.; 농림축산식품부. (2021).

1.2.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vs. (기능성 미표시) 일반식품

- 기능성 표시식품은 일반식품이기 때문에 기능성이 표시되지 않은 일반식품(이하 기능성 미표시 일반식품)과도 구분이 어려울 수 있음. 기능성 표시식품의 기능성 문구는 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됨.

기능성 미표시 일반식품 vs. 기능성 표시식품 예시

제품명	기능성 미표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풀무원 국산콩 두부 & PGA플러스 칼슘연두부			“본 제품에는 체내 칼슘흡수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폴리감마글루탐산(PGA)이 들어있습니다.”
롯데 칠성 칠성사이다 & 칠성사이다 플러스			“본 제품에는 식후 혈당상승 억제·혈중 중성지방 개선·배변활동 원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있습니다.”
파스퇴르 쾌변			“본 제품에는 배변활동 원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이눌린치커리 추출물이 들어 있습니다.”

자료: 저자 작성.

2. 기능성 표시식품 시장 규모 및 판매 현황

2.1. 기능성 표시식품 출시 현황

- 2022년 10월 28일 기준 한국식품산업협회 공개에 따르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가 시행된 후 총 125개 식품제조업체의 242개 기능성 표시식품이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출시 예정임. 제도가 시행된 바로 다음 해인 2020년 출시된 제품 수는 7개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110개로 약 16배나 증가함. 그 다음 해인 2022년에는 125개의 기능성 표시식품이 신규 등록됨.
- 현재 기능성 표시식품에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된 기능성 원료는 29가지로 제한되어 있음. 가장 많이 활용된 기능성 원료는 난소화성말토텍스트린 식이섬유로 72개의 제품, 전체의 약 30% 제품에 사용되었음. 다음으로 많이 활용된 기능성 원료는 알로에겔과 프락토올리고당으로 각각 33개와 21개 제품에 사용됨. 29개 원료 중 이 세 가지 원료가 전체 제품의 약 52.1%를 차지하고 있음.
- 기능성 표시식품은 기능성 표시가 되지 않은 일반 제품보다 대체적으로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12월 8일 기준 온라인 쇼핑 사이트 검색결과 난소화성말토텍스트린이 함유된 롯데칠성의 더하다 보리차(500ml 기준)의 경우 기능성 비표시 일반식품인 동서 보리차에 비해 가격이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프락토올리고당이 함유되어있는 ABC 초콜릿 블루베리 요거트 또한 일반 ABC 초콜릿보다 100g당 가격이 1.3배 높음.
 - 난소화성말토텍스트린이 첨가된 롯데칠성의 사이다 플러스는 일반 롯데칠성 사이다보다 1.1배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출시되었음.
 - 그러나 광동 옥수수수염차(500ml)와 기능성이 추가된 동회사의 옥수수수염차 이너브이(500ml)는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었음.

기능성 미표시 일반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 가격 비교

출처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식품	
	제품명	가격(원)	제품명	가격(원)
홈플러스 온라인몰	동서 보리차 500ml	1,200	롯데칠성 더하다 보리차	1,580
홈플러스 온라인몰	광동 옥수수수염차 500ml x 24개	23,500	광동 옥수수수염차 이너브이 500ml x 24개	23,500
롯데마트 온라인몰	롯데제과 ABC 초콜릿 187g	3,980	롯데제과 ABC 초콜릿 블루베리 요거트 172g	4,780
이마트몰	롯데칠성 사이다 500ml	1,880	롯데칠성 사이다 플러스 500ml	1,980

자료: 롯데마트 온라인몰(https://www.lotteon.com/p/display/main/lottemart?mall_no=4&ch_no=100195&ch_dtl_no=1000617), 이마트 온라인몰(<https://emart.ssg.com/>), 홈플러스 온라인몰(<https://front.homeplus.co.kr>). 검색일: 2022. 12. 8.

2.2. 식품 분류별 기능성 표시식품 판매 현황

- 기능성 표시식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 2021년부터 2022년 3분기까지의 POS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능성 표시식품의 오프라인 판매 현황을 살펴봄. 해당 기간 기능성 표시식품의 시장 규모는 판매액 기준 약 2,157억 원인 것으로 집계됨. 판매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음료류로 약 1,462억 원 판매되어 전체 판매액의 67.8%를 차지함. 유가공품 매출액은 약 483억 원으로 전체의 22.4%를 차지함. 이 두 개의 품목이 기능성 표시식품 시장 매출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식품 유형별 기능성 표시식품 판매액을 살펴보면, 판매액이 가장 높은 기능성 표시식품은 액상차로 전체 판매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54.6%). 다음은 농후발효유(18.9%), 추잉껌(8.0%), 탄산음료(5.9%)가 차지함.

식품 분류별 유통채널별 기능성 표시식품 판매액(2021년~2022년 3분기)

단위: 십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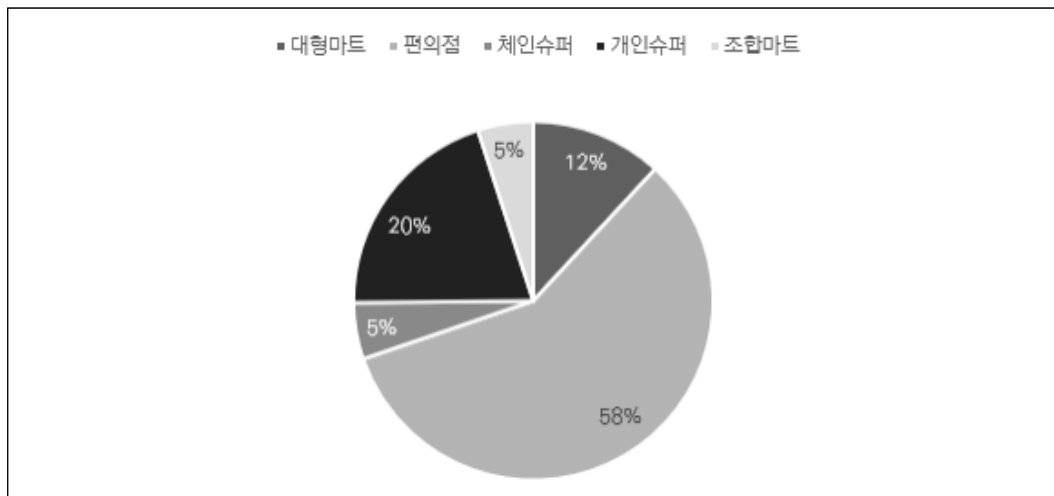
식품공전 대분류	매출액	%
음료류	1,462,358	67.8
유가공품	483,777	22.4
과자류, 빵류, 떡류	180,892	8.4
즉석식품류	20,444	0.9
기타	4,216	0.2
농산가공식품류	3,048	0.1
기타식품류	1,188	0.1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1,020	0.0
장류	8	0.0
두부류 또는 묵류	4	0.0
합계	2,156,954	100.0

자료: 마켓링크, 가공식품 POS 데이터. 검색일: 2022. 12. 1.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2.3. 유통채널별 기능성 표시식품 판매 현황

- 기능성 표시식품은 편의점(58%)이 주요 판매처인 것으로 나타남. 가격이 대형마트보다 다소 높더라도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편의점의 특성이 기능성 표시식품, 특히 음료류에 잘 맞기 때문으로 예상됨. 다음으로는 개인슈퍼(20%), 대형마트(12%), 체인슈퍼(5%), 조합마트(5%) 순서임.
- 대부분의 식품 분류군은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었으나, 즉석식품류는 편의점보다 대형마트에서 더 많이 판매되었음. 편의점에서 판매되지 않는 농산가공식품류 또한 대형마트에서만 판매됨.

유통채널별 기능성 표시식품 판매 비율(2021년 1분기~2022년 3분기)



자료: 마켓링크, 가공식품 POS 데이터. 검색일: 2022. 12. 1.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2.4. 기능성 표시식품 판매액 변화

- POS 데이터로 본 2021년 기능성 표시식품의 오프라인 판매액은 약 924억 원으로 추정됨. 보통 온라인 시장 판매액이 오프라인 시장 판매액의 20%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2021년 기능성 표시식품의 시장 규모는 1,109억 원으로 추정됨. 이는 2019년 국내 식품 시장규모 126조 원의 약 0.09% 수준임.
- 2022년 데이터 가용기간인 1~3분기까지 판매액은 1,233억 원으로 이미 전 해 수준의 1.3배를 기록함. 이를 1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년 대비 약 1.7배 판매액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전년 대비 기능성 표시식품 판매액 변화

단위: 십만 원

	2021년	2022년 1~3분기	2022년 (전망)	전년 대비 %
기능성 표시식품	923,578	1,233,327	1,541,658	67

자료: 마켓링크, 가공식품 POS 데이터. 검색일: 2022. 12. 1.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 그러나 판매액 증가는 신제품의 출시로 인한 것으로 보임. 기능성 표시제품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 2021년 출시된 제품들의 2022년 판매액 전망치는 898억 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즉, 제품의 시장 지속성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전년 대비 기능성 표시식품 판매액 변화(2021년 출시 제품 대상)

단위: 십만 원

	2021년	2022년 1~3분기	2022년 (전망)	전년 대비 %
기능성 표시식품	923,297	718,610	898,263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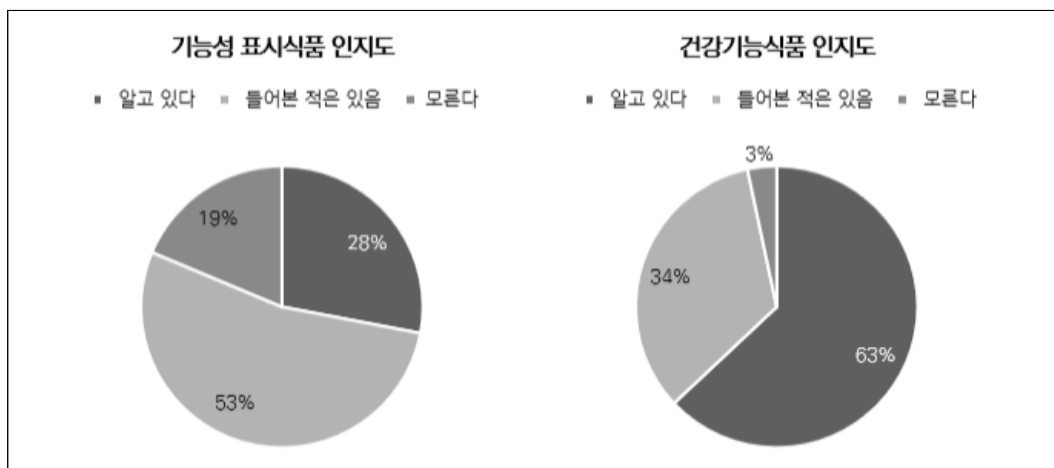
자료: 마켓링크, 가공식품 POS 데이터. 검색일: 2022. 12. 1.를 분석하여 저자 작성.

3. 기능성 표시식품에 관한 소비자 인식

3.1. 기능성 표시식품 인지도

-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1.3%가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함. 기능성 표시식품에 비해 건강기능식품의 인지도는 매우 높은 편임 (97%).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인지도 비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소비자들이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효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존 제품을 바탕으로 가상의 기능성 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일반식품 제품을 제시하고 설문함. 해당 제품들은 발효유와 액상홍삼(혹은 홍삼 음료)임.⁴⁾

4) 발효유의 기능성 표시식품 버전에는 “본 제품에는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습니다”의 문구와 현 제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있음. 건강기능식품 버전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삽입하였으며, 기능성 미표시 일반식품 버전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마크를 삽입하였음. 액상홍삼의 기능성 표시식품 버전에는 “본 제품에는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홍삼이 들어있습니다”라는 문구를, 건강기능식품 버전

기능성(효능) 질문 대상 제품

구분	기능성 표시 문구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일반
발효유			
액상 홍삼			

자료: 저자 작성.

- 기능성 표시식품 제품에 함유된 기능성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1일 섭취 기준량의 30% 정도에 불과하지만,⁵⁾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 기능식품의 건강성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발효유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이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34.7%, 기능성 표시문구가 있는 제품이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34.2%로 0.5%p 차이였음. 해당 제품의 경우 기능성 관련 마크나 문구가 없는 일반식품이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 또한 31.1%로 다른 두 제품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액상 홍삼 또는 홍삼 음료도 발효유와 결과가 비슷함.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이 가장 건강하다는 응답이 40.7%로 가장 높았으나 기능성 표시가 있는 제품이 가장 건강하다는 응답과의 차이는 0.4%p에 불과함. 다만 기능성 미표시 일반식품은 응답 비율이 19.0%에 그침.

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삽입하였음.

5) 조상우. (2022. 6. 15.). “[특별기고] ‘기능성표시식품’을 ‘기능성식품’으로 편입해서는 안되는 이유.” 푸드아이콘.

- 아래 표는 기능성 원료 29개를 대상으로 응답자들이 건강하다고 느끼는 순위대로 정리한 것임. 응답자들이 가장 건강하다고 느끼는 원료는 홍삼(전체의 89.3%), 프로바이오틱스(88.3%), 인삼(87.7%), 마늘(83.0%), 클로렐라(56.3%) 순서임. 이들은 식품 형태로 섭취할 수 있어 친숙함을 느끼기 쉬운 원료들임. 반면 기능성 표시식품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친숙함은 다소 낮을 수 있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은 전체 응답자의 7.7%만이 건강한 원료라고 응답하였음.

건강하다고 느끼는 기능성 원료 (1~10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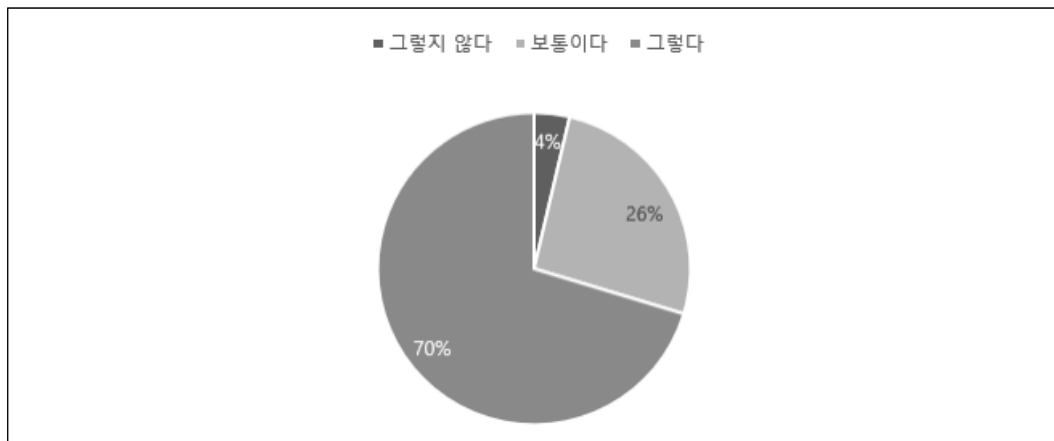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
홍삼	89.3
프로바이오틱스	88.3
인삼	87.7
마늘	83.0
클로렐라	56.3
알로에겔	53.3
매실추출물	52.3
프락토올리고당	47.3
자일리톨	41.3
스피루리나	39.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는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이에 대해 응답자들에게 설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0%는 기능성 표시식품 섭취가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함.
- 기능성 표시가 제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에는 ‘그렇다’가 70%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그저 그렇다)’가 26%였음.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4%에 불과함.

가능성 표시와 소비자 선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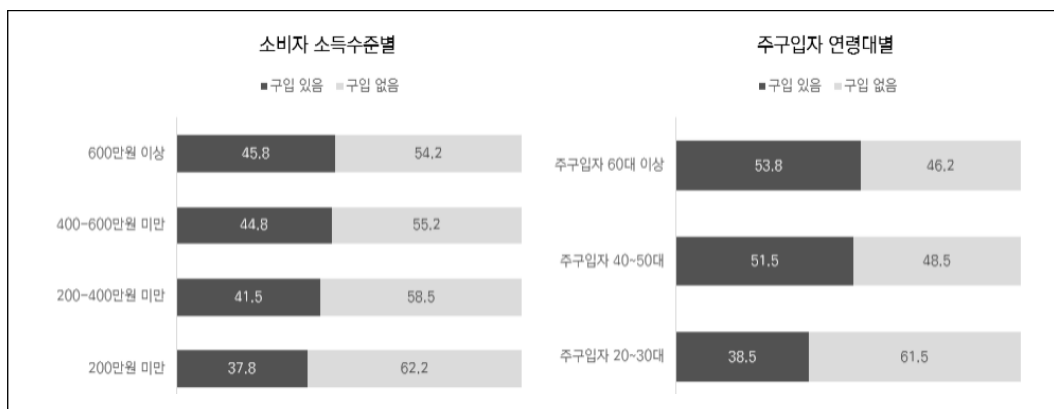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2. 기능성 표시식품 구매 경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결과, 전체 소비자 응답의 43.6%는 기능성 표시식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입 경험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구입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았음.

소비자 소득수준별, 주구입자 연령대별 기능성 표시식품 구입 경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결과 데이터 분석(일반소비자 대상 온라인 조사).

-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기능성 표시식품 구입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구입 이유를 물어보았음. ‘몸에 좋을 것 같아서(컨디션 향상)’가 전체의 61.8%를 차지하여 가장 응답이 많았으며, ‘질병 예방 목적’이 19.1%, ‘건강기능식품 대신 섭취’가 12.6%, ‘특별한 이유 없음(기능성 표시식품인지 모르고 구매)’ 4.5%, ‘질병 치료 목적’ 1.5% 순서였음.
 -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몸에 좋을 것 같아서’의 응답은 낮고, ‘질병 예방 목적’, ‘건강기능식품 대신 섭취’, ‘질병 치료 목적’의 응답이 많았음.

기능성 표시식품 구매 이유

단위: %

구분	몸에 좋을 것 같아서 (컨디션 향상)	질병 예방 목적	건강기능식품 대신 섭취	특별한 이유 없음 (기능성 표시식품인지 모르고 구매)	질병 치료 목적	기타
전체	61.8	19.1	12.6	4.5	1.5	0.5
20대	86.7	0.0	6.7	6.7	0.0	0.0
30대	74.2	12.9	9.7	3.2	0.0	0.0
40대	62.1	19.0	13.8	5.2	0.0	0.0
50대	57.4	25.9	11.1	3.7	0.0	1.9
60대 이상	48.8	22.0	17.1	4.9	7.3	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요약 및 시사점

-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는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농림축산식품부, 2021).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에만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였으나 2020년 12월 29일 제도의 도입으로 일반식품에도 확대 적용됨.
- POS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한 2021년 기능성 표시식품 시장의 규모는 1,109억 원으로 전체 식품 시장의 약 0.1%를 차지함.
 - 이듬해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7배 커진 것으로 추정 되었으나 2021년 판매된 기능성 표시식품의 2022년 매출액은 이보다 2.7% 감소한 것으로 추정 되어 시장 지속성이 낮을 가능성이 보임.
- 한국식품산업협회의 기능성 표시식품 등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능성 원료 제한으로 인해 가공적성이 맞는 소수의 기능성 원료만 활용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해당 기능성 원료와 가공적성이 맞는 제품(음료류)만 개발·출시 되는 실정임. 결과적으로 음료류 중심으로 기능성 표시식품 시장이 형성됨. 제품 다양성은 기능성 표시식품 시장의 지속성과 관련되므로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29개 원료 외에 개별 인정을 받아 새로운 기능성 원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음. 그러나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제조업체가 이를 시행하기는 쉽지 않음. 농촌진흥청 자문에 의하면 최소 5년, 평균 1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함. 이와 같은 이유로 실질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는 10여 가지에 불과함.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1%가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그러나 예상대로 소비자들은 제품 정체에 대한 혼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간의 건강증진 효과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능성 표시식품 혹은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보다 더 건강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 기능성 표시식품에 사용되는 기능성 원료는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많았던 구매 이유 응답은 질병 예방이었음. 의약품의 기대 효능인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였다는 응답 또한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즉, 일반식품인 기능성 표시식품을 섭취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의 효과를 기대하는 등 제품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이 나타남.
- 기능성 표시식품 활성화 방안으로 인증마크 표시, 기능성 표시 문구의 단순화 혹은 직관화 등 기능성 표시 방법의 단순화가 중요해 보임. 또한 “이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으므로 표지면 표시·문구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임.